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탈북작가 북한 재현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혜연

2018년 8월

# 탈북작가 북한 재현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

지도교수 노 대 원

이 혜 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이혜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권 유 성	
위 원	장 인 수	
위 원	노 대 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6월

Aspect of Characters coping with reality  
in Short stories written by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Lee Hye-yeon

(Supervised by professor Noh Dae-w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8. 0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18. 06.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 초록】

탈북작가 북한 재현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

이 해 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노 대 원

이 연구는 탈북작가의 북한 재현 단편소설을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의 북한 문학이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 사회 변화상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상이 탈북작가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의 문학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 인권을 고발 혹은 증언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북한의 사회상과 북한 인민들의 삶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현하고 있는 남북공동소설집 『국경을 넘는 그림자』, 『금덩이 이야기』 두 편과 『망명북한작가 PEN문학』(창간호~제4호)에 실린 탈북작가의 단편소설 30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인물이 처한 현실이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작중인물이 처한 현실은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의 두 층위로 구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경제적 현실은 대량 아사 사태를 수반한 고난의 행군, 이를 계기로 등장한 사회주의 속 ‘장마당’ 경제, 자본주의 풍조 속에서 심화되는 경쟁과 적자생존 인식에서 오는 실존의 불안, 빈부 격차의 문제 등이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었다. 탈북작가들이 증언하는 경제적 현실의 요체는 가난이지만 가난은 단지 부(富)나 식량의 결핍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난은 인심과 인정의 결핍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가난의 극복을 위해 등장한 장마당 경제는 배금(拜金)의 가치관과 함께 실존의 불안으로 인한 윤리의 결핍 상태를 야기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은 대상 작품에서 ‘결핍의 현실’로 재현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핍의 현실’에 대한 인물의 대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 ①생존 추구형, ②모성 추구형, ③욕망 추구형, ④국경 넘기형의 네 가지 인물 유형을 도출하였다.

정치적 현실은 경제적 요인 이외의 정치, 사회 등 체제 전반의 요인을 폭넓게 포괄하여 ‘억압의 현실’로 규정하였다. 소설에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개 처형, 강제수용소(감옥), 추방, 출신성분, 연좌제, 선전선동, 공권력과 같은 각종 법과 제도 및 부정부패 등의 상황 일체는 인민을 억압하는 폭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억압의 현실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인물의 언행과 내면의식에 영향을 주는 관념의 영역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억압의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은 인물의 체제 몰입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억압의 현실에 대한 인물의 대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 ①충성형, ②순응형, ③내적 저항형, ④외적 저항형의 네 가지 인물 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여덟 개의 인물 유형 가운데 생존 추구형, 모성 추구형, 충성형, 순응형은 ‘모성애’와 ‘가부장적 세계관’의 메커니즘 안에서 희생과 순종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전체주의적 인간’이다. ‘욕망 추구’와 ‘국경 넘기’형, ‘내적 저항’과 ‘외적 저항’형은 전체주의에서 이탈하는 ‘개인’을 형상화한다. 이들 유형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삶의 추구 현상이야말로 운명 공동체라는 관념에서 이탈하는 ‘개인 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설에서 재현된 ‘개인’은 사회 개혁 주체로서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전의 전체주의적 인간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전체주의에 함몰된 개인’의 형상에서 ‘전체주의로부터 이탈한 개인’의 형상으로 인간 형상에 변화를 보이긴 하지만, ‘욕망 추구’형의 속물성과 무비판성, ‘내적 저항’형의 소극성은 사회 변혁의 주체로 부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것은 저항의 시도조차 불가능하다는 탈북작가들의 오랜 무력감, 제한된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탈북작가들 자신조차 구태의연한 전체주의적 인간관, 가부장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 대상 작품들은 북한에서의 부정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증언하려는 탈북작가들의 강한 욕구와 소명의식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고 비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탈북작가의 북한 재현 소설의 의의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 한계로 남는다. 탈북작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적 상상력 안에 증언 의식과 사명감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필요가 있다.

탈북작가의 문학은 북한 문학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제가 탈북작가에 의해서든 북한에 현존하는 작가에 의해서든 북한인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의 문학을 통해 이야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기 운명에 대처하는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학, 남한 문학이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이라는 큰 틀 안에 포섭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탈북작가의 문학을 북한 문학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는 일이다. 아직은 요원해 보이지만 한국 작가들의 탈북 문학, 남북공동소설집,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등 의미 있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전망이 아주 어둡지만은 않아 보인다.

핵심어 : 탈북 문학, 북한 문학, 증언문학, 탈북작가, 탈북소설, 북한소설, 북한 재현 소설, 북한 인권, 저항문학, 망명북한작가센터,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남북공동소설집, 금덩이 이야기, 국경을 넘는 그림자, 현실대응, 인물 유형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3. 연구 대상과 방법 .....	13
II. 북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재현 .....	22
1. ‘결핍’으로 표출되는 경제 현실 .....	23
2. ‘억압’으로 대변되는 정치 현실 .....	36
III.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 .....	51
1. 결핍의 현실에 대한 인물의 대응 양상 .....	51
1) 식량의 결핍과 ‘생존 추구’ .....	51
2) 인정의 결핍과 ‘모성 추구’ .....	58
3) 윤리의 결핍과 ‘욕망 추구’ .....	66
4) 희망의 결핍과 ‘국경 넘기’ .....	77
2. 억압의 현실에 대한 인물의 대응 양상 .....	84
1) 자발적 체제 몰입과 ‘충성’ .....	85
2) 비자발적 체제 몰입과 ‘순응’ .....	92
3) 위장된 체제 몰입과 ‘내적 저항’ .....	101
4) 체제 이탈과 ‘외적 저항’ .....	110
IV. 결론 .....	117
【참고문헌】 .....	125
【ABSTRACT】 .....	130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탈북작가<sup>1)</sup>의 북한 재현 단편소설을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북작가의 문학은 사실성을 강조한다. 사실적 소설에서는 무엇보다 ‘재현’이 중요하며, 작중인물과 사회적 환경은 재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두 요소다.<sup>2)</sup> 따라서 탈북작가의 북한 재현 소설에서 ‘작중인물’이 ‘사회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작가의식이 가장 예리하게 반영되는 지점일 수밖에 없다.

1996년 신형기가 북한의 주체소설을 두고, “일상적 현실성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문학은 환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sup>3)</sup>고 우려하였는데, 탈북자 현인애는 2014년에 마치 이에 답하기라도 하듯 북한의 수령형상문학이 “판타지 문학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판타지 문학으로의 변신이 수령형상문학이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신형기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현인애는 그럼에도 북한에서 ‘어떤 글을 쓰고 싶다면 또 써야 한다면’ 북한 작가들은 가냘프지만 절절한 ‘항거의 정신’을 수령형상문학의 ‘판타지’로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재확인하고 재분출하는 출구가 될 것이

---

1)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탈북’은 해방 시기부터 6·25전쟁 시기에 있었던 ‘월남’과는 구별된다. ‘월남민’의 광의 개념에는 최근의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월남’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면, 1990년대 시작된 ‘탈북’ 현상은 냉전 시대의 종결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현상으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와 함께 형성된 탈북작가군은 전후 월남 작가와는 또 다른 의미, 역할,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북작가들 중에는 북한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사람도 있지만(김정애, 도명학, 윤양길, 이지명, 장해성 등), 탈북 이후 소설 창작을 시작한 사람도 적지 않다. 엄밀히 구분한다면 이들은 탈북작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작가’는 마치 탈북한 북한 작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작가 활동을 했던 사람과 남한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한 사람을 굳이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학계에서 대체로 용인되고 있는 ‘탈북작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재현은 사실적 소설의 으뜸가는 관심사이고 재현의 두 가지 큰 목표는 작중인물과 사회적 환경이다.” 버나드 J. 페리스, 『작중인물과 함축된 작자 - 심리학의 용도』, 김병욱 편자, 최상규 옮김,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431쪽.

3)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학, 1996, 23쪽.

라고 역설한다.<sup>4)</sup>

현인애의 참신하고도 일면 설득력 있는 관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창작·출판되는 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고, 사회 비판적 인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탈북작가는 북한 문학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언어를 수단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인간과 사회를 진실하게 그리는 예술”을 문학이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의 “어용문학”에는 그러한 진실한 문학이 없다<sup>5)</sup>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주의와 반대되는 문학을 퇴폐주의의 변종으로 취급하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북한에서 수령형상문학이 판타지 문학으로 변질<sup>6)</sup>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는 북한에서 강조하는 사실주의 문학이 북한 밖에서, 탈북자들에 의해서 시도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와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의 문학이 사실주의적 경향을 띠는 이유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의 영향 때문<sup>7)</sup>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의 체험과 탈북 체험에 대한 ‘고발’과 ‘증언’의 욕망이 탈북자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문학적 성격은 문학성의 한계로 인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인애는 탈북문인들 작품에 내재한 강한 정치성을 비판하면서 “북한에서 배운 과도한 사명감이 오히려 사명감을 다할 수 없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sup>8)</sup> 비판의 내용도 수긍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탈

4) 현인애는 「화창한 봄날의 이야기」(한철순, 『조선문학』, 2014, 4월호)와 「감사」(윤경찬, 『청년문학』, 2014, 3호) 두 편의 소설을 예로 들면서 이 두 소설에 나오는 사건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을 쓴 판타지 문학에 가깝다고 하였다. “수령형상문학은 말 못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 그러나 감히 걸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수령의 위대성이라는 가면 하에 드러내보”이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각인시켜”주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재확인하고 다시 분출하는 출구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인애에 대해서는 ‘전 북한대학 교수, 현 망명북한작가센터 이사, 통일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라는 약력만 공개되어 있다. 현인애, 「수령형상문학과 판타지」,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2호, 등대지기, 2014, 95~107쪽.

5) 장해성, ‘권두 칼럼」『망명북한작가 PEN문학을 펴내며』,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창간호, 2013년, 10~11쪽.

6) 현인애, 앞의 평론, 102쪽.

7)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쪽.

8) 현인애는 중국 출신 여성 작가 다이 시지에의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가 문화대혁명의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유머와 해학이 있고 흥미진진해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면

북작가 문학의 불안한 지위에 대한 원인을 안에서 찾고 있고, 이것이 같은 탈북자에 의한 내부 성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작품의 강한 정치성은 그동안 판타지 문학으로 밖에 표출할 수 없었던 현실 비판의 목소리, 참았던 울음이 절제 없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문학의 한계는 탈북자 현인애의 내부 성찰로 충분히 드러났지만, 그것이 독자의 외면을 받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연구에 대한 기피나 회의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up>9)</sup>

문학을 통해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삶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은 문학의 중요한 효용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다. 바흐찐은 소설 속에 나타나는 “사회적 모순의 폭로와 관련된” 시간의 형식들을 “충만한 시간”, “시간적 충일성”, “시간의 충만함”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모든 그같은 폭로는 필연적으로 시간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모순들이 더욱 깊이있게 폭로되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수록 “예술가의 재현 속의 시간은 더욱더 진정하고 포괄적인 온정성을 갖게”되기 때문이다.<sup>10)</sup>

이 연구에서는 탈북작가의 단편소설 30편에 등장하는 인물의 현실대응 유형화를 통해 북한 사회의 현실과 작가의 비판적 사회 인식을 총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지금의 북한 문학이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 사회 변화상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상이 탈북작가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의 문학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서 탈북작가 문학의 현재를 비판하고,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현인애, 「문학의 재미에 대한 소고」,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3호, 등대지기, 2015, 243~247쪽.

9) 탈북작가의 단편소설을 연구한 정하늬는 탈북작가의 단편소설이 탈북 문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를 이들 단편소설이 북한 현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정하늬, 「탈북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문학』, 제6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33~34쪽.

10) 미하일 바흐찐,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334~335쪽.

## 2. 선행 연구 검토

탈북 문학은 한국 문학사 중심의 특수한 문학 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 지배 질서에서 배제된 제3세계 이주 노동자, 난민의 문제와도 관련성을 가지면서 보편적인 시대 담론으로서도 의의를 갖는다. 탈북 현상은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문제가 독자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냉전의 종식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운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배제되고 고립된 북한 체제<sup>11)</sup>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 문학의 연구는 자연 이러한 탈북자 문제 인식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반영하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검토한 선행연구물들을 관점에 따라 구분하면, 분단문학의 경계 작품<sup>12)</sup>, 탈북자 글쓰기의 문학 정체성<sup>13)</sup>, 디아스포라·소수자·타자의 문제<sup>14)</sup>, 탈북 여성의 하위주체 특성<sup>15)</sup>, 탈북작가 작품의 증언문학적 성격<sup>16)</sup>, 탈북작가 작품의 이데올로기 영향 관계 분석<sup>17)</sup>, 탈북 문학에 관한 중

11) 여기에서 체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에,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 “일정한 정치 원리에 바탕을 둔 국가 질서의 전체적 경향”이라는 사전적 의미 정도로 이해한다. 「체제」,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18년 1월 10일)

12)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제5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김은아, 「이산의 비극성을 통한 분단의 현재성 고찰」,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호, 국제한인문학회, 2014. 양진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상상력 - 200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64집, 우리말글학회, 2015.

13)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한중인문학회, 2012.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평화통일학회, 2014.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집, 2016.

14) 강미라,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 『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2집, 한국문학회, 2009.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 -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김재영,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에 나타난 탈근대적 인식과 형식적 특성」, 『우리말글』, 제55집, 우리말글학회, 2012. 이미림, 「유동하는 시대의 여행과 이주양상 - 정도상의 연작소설집 찔레꽃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3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서세립, 「탈북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 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52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김영미, 「탈북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는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15) 연남경, 「탈북여성작가의 글쓰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1권, 한국현대문학회, 2017.

16)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 -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권세영의 논문 취지는 탈북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남북 이데올로기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에 포함된 대상 작품 가운데 한

합적 검토<sup>18)</sup> 등이다. 탈북작가 작품의 증언문학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는 탈북자 글쓰기의 문학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이 연구가 탈북작가의 문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북 문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연구 경향을 고찰하되, 탈북자 글쓰기의 문학 정체성, 탈북작가 작품의 이데올로기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박덕규는 탈북 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탈북자의 체험을 다루었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사용되었던 ‘탈북자 문학’이라는 용어 대신 ‘탈북 문학’으로 개념을 확장하였다.<sup>19)</sup> 이는 ‘탈북자의 체험’이라는 소재적 한정성에서 벗어나 ‘탈북자 자신이 창작한 것’으로 창작 주체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시, 소설뿐 아니라 탈북자의 수기까지도 수용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20여 년간 탈북 문학이 형성,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창작 주제, 문학 제재, 문학 형식 등의 확장과 다양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작가가 탈북 체험이 아닌 북한 사회를 소재로 하는 작품을 발표하는 사례가 늘면서 더 이상 탈북 문학을 탈북 소재로 한정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망명북한작가센터<sup>20)</sup>를 중심으로 탈북작가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작가들의 ‘탈북자 문학’이라는 개념으로도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남게 되어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탈북작가의 문학을 탈북 문학 안에 포섭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문학의 특이한 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탈북 문학의 논의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결론에서 ‘탈북작가 문학의 의의’ 정도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탈북자들의 이주와 난민 상황을 세계적 전망 속에서 포착하는 것은 탈북 문학 담론에서 주로 한국 작가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탈북자는 흔히 비법월

---

편을 증언소설 관점에서 접근하였음을 밝힌다.

17)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18) 박덕규, 「탈북 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제14권 제3호 통권 35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19) 박덕규, 같은 논문, 91쪽.

20) 2012년 9월 15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진행된 제78차 국제펜대회에서 “망명북한작가센터”를 14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하였다. 『망명북한작가 PEN문학』은 이곳에서 발행하는 문예지로서 2013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한 호씩 발행되어 2016년 4호까지 발행되었다. 탈북작가들의 시, 소설, 수필, 수기, 동화, 평론 등을 게재하고 있고, 한두 편씩 남한 작가들의 시, 소설 등도 실고 있다. 2017년에는 발행이 안 되었다.

경자, 밀입국자, 난민, 디아스포라, 이주 노동자, 하위주체의 관점에서 투사되었다. 김세령은 탈북자 소재 주요 한국 소설 작품을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형도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민족과 탈민족 차원에서 탈북자는 분단으로 인한 경계인으로서, 혹은 전지구적인 디아스포라와 코스모폴리턴으로서 발견되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타자로서, 소수자로서 나타난다.<sup>21)</sup> 타자와 소수자로서의 탈북자 역시 디아스포라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결국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에서 탈북자를 디아스포라적 관점으로 쓴 것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북작가의 탈북 문학 연구는 대체로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효석, 권세영은 이 소설을 증언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김효석은 기존 탈북 서사가 기록문학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 이 소설은 소설의 미학적 측면과 허구성을 바탕으로 탈북자의식을 다성적인 목소리로 담아냄으로써 총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증언문학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sup>22)</sup> 권세영은 김유경의 이 소설이 경제난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 상황, 매매혼으로 인한 중국 남성들의 폭력과 멸시로 인한 고통, 남한에서 겪는 차별적 인식 등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인식,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고 분석하였다.<sup>23)</sup>

정찬영은 증언문학의 발생원인의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싶은 인간의 본원적 욕망’이라고 하면서 사회·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작가의 소명의식과 의욕이 증언문학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증언문학의 소재선택 기준으로 첫째, 사회적·역사적으로 소외된 것, 둘째, 사회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한 것, 셋째, 사회적인 문제를 띠거나, 역사적 사건이 아직 미해결인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4·3항쟁, 거창사건, 한국전쟁, 5·18 광주민중항쟁 등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증언문학의 소재로 들었다.<sup>24)</sup>

그렇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대량 탈북사태와 그로 인해 표출된 북한

21)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 - 탈북을 통한 지향점과 탈북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52~53쪽.

22) 김효석, 같은 논문.

23)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118~165쪽.

24)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25쪽.

체제의 모순, 유랑하는 탈북자의 삶을 그린 탈북 문학 역시 증언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 문학은 작가의 강한 증언 욕구와 소명의식에 의해 탄생하였으며, 한국의 특수한 역사와 세계 인류사의 보편적인 문제 현상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러한 문제적 사건이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김효석은 기존 탈북작가 소설의 미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유경의 ‘청춘연가’에 이르러 비로소 소설의 미학적 측면과 허구성을 바탕으로 탈북자의식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려는 증언문학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고평하면서도 소설 속 탈북자들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아래 재식민화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sup>25)</sup>

반면 이성희는 한국 기성작가들의 탈북서사가 탈북 디아스포라의 보편적 특성을 담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탈북자 내부의 집단 의식과 정치성 등을 형상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자본주의를 체험한 한국의 기성작가들에게 탈북자는 난민으로 규정되는 동정의 대상으로 포획된다고 비판하였다.<sup>26)</sup>

이처럼 탈북 문학의 창작 주체에 따른 문제의식이 확실히 구별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한국 작가들이 북한체제와 탈북에 대한 체험이 간접적인 대신 지금의 세계 질서에 대한 체험이 훨씬 직접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탈북작가들은 그들의 북한체제와 탈북 체험이 직접적이고 강렬한 대신, 오랜 기간 세계 질서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그 체험을 세계 질서와 연결지어 이해하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북작가의 문학작품에는 고발과 증언의 욕망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목적의식은 문학의 미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성희는 탈북작가를 남북한 경계인인 동시에 통일문학의 연계자로서 호명하면서 탈북자가 주체가 된 자기 서사는 그 체험의 강렬함 때문에 오히려 수기형식을 취하거나 내용이 단순해지는 문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sup>27)</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25) 김효석, 같은 논문, 313~316쪽.

26)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 탈북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3쪽.

27) 이성희, 같은 논문, 3쪽.

김효석<sup>28)</sup>, 권세영<sup>29)</sup>, 서세립<sup>30)</sup>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탈북작가의 장편소설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성희가 탈북자의 자기중심의 서사가 탈북의 과정이나 뿌리내리기 과정은 보여주지 못한 채 떠나온 북한 현실이나 정권에 대한 고발에 그치고 있어 탈북자가 지닌 다양한 의식지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sup>31)</sup>하면서 김혜숙의 『인간이고 싶다』, 최진이의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장영진의 『붉은 넥타이』 등 장편소설을 예로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박덕규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창작된 탈북작가의 소설이 북한 체제에 대한 고발이나 자기 체험 고백, 남북한 생활의 비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기나 수필이 주종을 이룬 반면 2000년 이후 탈북작가의 작품에서 한국문학사의 전통에서 뚜렷이 나타난 ‘세련된 리얼리즘’이 나타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도명학의 「재수 없는 날」, 「책 도둑」, 설송아의 「진옥이」 등 몇몇 작품을 단편소설의 미학을 제대로 갖춘 리얼리즘 문학으로 고평하였다.<sup>32)</sup>

방민호 역시 남북공동소설집에 실린 탈북작가들의 작품 수준을 높게 평가하며 오히려 한국의 작가들이 형식주의에 치우쳐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면에서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탈북작가들의 작품이 전통적인 단편소설의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장의 경제성, 묘사의 정확함을 장점으로 꼽았다.<sup>33)</sup>

한편 탈북작가들이 북한의 고유한 문학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이영미의 문제의식은 반추할 만하다. 여기서 그는 북한의 문학은 ‘실화’라는 문학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 허구 중심의 문학관이 득세한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문학은 쉽게 문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탈북작가의 작품이 한국 작가의 탈북자 소재 소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

28) 김효석, 같은 논문, 314쪽.

29)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118~123쪽.

30) 서세립, 같은 논문, 83쪽.

31) 이성희, 같은 논문, 3쪽.

32) 박덕규, 같은 논문, 105~108쪽.

33) 방민호는 남북공동소설집 『국경을 넘는 그림자』(2015)와 『금덩이 이야기』(2017) 두 소설집을 기획하고 여기에 한국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싣기도 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방민호의 탈북작가 작품에 대한 평가는 2015년 PEN 문학지 3호에 실린 일문일답 기사에서 발췌하였다. 따라서 방민호가 말한 ‘남북공동소설집’은 당시 출간된 남북공동소설집 『국경을 넘는 그림자』를 의미한다. 이 소설집에 실린 탈북작가의 소설은 「꽃망울」, 「불륜의 향기」(인간의 향기), 「책 도둑」, 「진옥이」, 「소원」, 「아버지의 다이어리」이다. 「방민호 교수와의 일문일답」,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3호, 2015, 42쪽.

는 이유의 하나로 그들의 수기(手記)로서의 문학, 실화소설 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국 문단의 보수성을 들고 있다.<sup>34)</sup> 이영미는 다른 논문에서 탈북작가들의 문학이 “개인의 고통을 중심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 혹은 잊지 않으려 기억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수기이든, 소설이든 그 형식적 구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들 문학 형식의 특수성에 주목하였다.<sup>35)</sup>

탈북작가의 서사가 그 체험의 강렬함 때문에 수기형식을 취하거나 내용이 단 순해지는 문제를 나타낸다는 여러 연구자의 문제의식<sup>36)</sup>은 일면 온당하기도 하지만 탈북작가의 문학 정체성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그들의 문학 형식에 대한 낯 설 등으로 탈북작가 문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형기가 탈북작가 김유경의 장편소설 『청춘연가』를 “탈북한 사람의 용알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문학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환기한 것이 주목된다. 탈북한 사람의 용알이란 탈북작가의 문학 창작을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제거된 언어의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이 비로소 말을 새로 배우고 해보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 재현의 충실성이 떨어진다거나 단조로운 어휘 사용으로 내용의 복잡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 말을 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1990년대 실화소설, 증언소설, 자전소설, 비화소설 등의 부제를 달고 탈북자들의 장편소설이 많이 출간되었고 2000년대에도 이들의 장편소설은 꾸준히 출간되어<sup>38)</sup> 자연히 연구도 장편소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 탈북작가의 단편소설 출판은 꽤 늦게 이루어진 편이다. 2012년 망명북한작가센터가 국제 PEN 회원으로 승인되고 2013년부터 『망명북한작가 PEN문

34)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74~82쪽.

35)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231쪽.

36) 김효석, 같은 논문,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서세립, 같은 논문.

37) 신형기, 「잃어버린 청춘의 연가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308쪽.

38) 권세영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초 당시 수기와 에세이류의 산문 94편, 시집 10권, 장편소설 19편이 출판되었다.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1쪽 각주 3번 참조) 2018년 5월 현재, 4편의 장편소설이 추가된 것으로 조사된다. 이지명, 『포 플라워』, 문예바다, 2014. 이주성, 『선희』, 책밭, 2015. 김평강, 『풍계리』, 꿈시, 2017. 립일, 『통일』, 시대정신, 2015.

학』(이하 ‘PEN 문학지’)을 내면서 여기에 실을 단편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후원으로 2015년, 2017년 두 차례 출판된 남북공동소설집에 PEN 문학지에 실렸던 단편소설이 중복 게재되기도 하고 새로운 단편소설이 창작되어 실리기도 하면서 탈북작가의 단편소설이 이제 막 편 수를 늘려가는 상황으로 보인다.<sup>40)</sup>

따라서 연구도 아직 많지 않다. 정하늬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을 분석한 것이 현재 발견되는 유일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두 탈북작가의 작품 각 두 편씩을 선정하여 문학의 형식과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도명학의 단편소설에서는 ‘아이러니’ 장치를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고, 이지명의 소설은 규율과 감시의 체제하에서 도구였던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신의와 사랑을 통해서 인간다운 존재가 가능하다는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았다.<sup>41)</sup> 이 연구는 탈북작가의 단편소설에 대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연구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네 편의 작품으로 작가와 작품의 전체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정하늬는 작품 속 인물을 통칭할 때나 현실과의 관계에서 그 인물들이 가지는 의의를 평가할 때 ‘북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북한 사람’과 같은 말로, 가치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한 객관적 용어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이 ‘한국 국민’, ‘일본 국민’, ‘미국 국민’을 가리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인’은 ‘국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은 개인(인간)을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종속시키는 개념이므로, 소설 속에서 국가 혹은 국가체제와 대결 국면에 있는 자아로서의 인간(개인)을 논의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 ‘국민’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 권리 주체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국가에 종속된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더 부각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헌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논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39) 이전에는 단편소설이 전혀 창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탈북자 단체가 만드는 잡지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발표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0) 2018년에 남북공동소설집 세 번째 단편집 『꼬리없는 소』, 탈북작가 김정애와 이지명의 공동단편집 『서기골 로반』이 출판되었다. 이정·이지명·유영갑·도명학·이성아·김정애·정길연·설송아·방민호·박주희, 『꼬리없는 소』, 예음, 2018. 김정애·이지명, 『서기골 로반』, 글도, 2018.

41) 정하늬, 같은 논문.

거부감 때문에<sup>42)</sup> ‘인민’이 위치할 자리에 ‘국민’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유진오는 회고담에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하므로, 국가 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나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sup>43)</sup>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그 사회 구성원을, 그리고 사회 구성원 자신들이 스스로를 ‘인민’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북한 국민’보다 ‘북한 인민’이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 논문에서는 필요에 따라 인민, 주민, 인(人), 사람, 인간, 인물 등의 용어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권세영은 작가의 체험과 탈북 시기, 이데올로기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이 어떤 식으로 탈북작가 소설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권세영은 탈북자의 국내 유입이 소수였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여 피동적인 방식으로 담론이 형성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탈북자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단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탈북자 단체들과 인사들의 북한 체제 비판을 반공주의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시선도 있으나, 현 탈북자들의 북한 체제 비판은 자신들의 체험과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반공과는 다른 ‘반북주의’적 성격이라고 해석하였다. 다수의 탈북자 관련 단체가 탈북자 주도로 구성되고 활동을 전개하며, 이들의 활동과 저술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sup>44)</sup>

양진오는 강영숙의 『리나』와 조혜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통해 분단의 상상력이 근대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진화했음을 포착하였다. 20세기의 탈북이 전적으로 남측으로의 투항과 국민으로의 탄생을 의미하면서 관 주도의 반공주의의 정당성을 남한 사회에 선전하는 프로파간다로 활용되었다면, 21세기의 탈북은 남측의 근대국민국가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제3지대에서 주체의 가능성을

42)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크게 부각된 이데올로기적 분열”(124쪽)로 인해 북한에서 “형식상 주권의 담지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인민’이라는 용어가 자리잡”았고(173쪽),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피하면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오늘에 이른다.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소화, 2009.

43)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65쪽. ;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제14권, 2009, 84쪽에서 재인용.

44)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10~11쪽.

모색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sup>45)</sup>

권세영은 탈북자의 주체 성격의 변화를 현실에서 포착하였고, 양진오는 소설에서 포착하였지만, 현실과 소설에서 포착한 탈북자의 성격 변화는 묘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연구의 탈북자 성격 변화에 대한 포착은 탈북작가의 북한 재현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이상 탈북 문학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탈북 문학은 비단 북한 체제의 모순이나 탈북 과정의 혹독한 경험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모순 속에서 부유하는 탈북자의 디아스포라적 상황까지 포괄한다. 창작 주체에 따라 문제의식에 한계를 보이는데, 탈북작가들은 탈북 현상이나 탈북자 문제를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 재식민화와의 관련성을 통찰하는 안목이 부족하다. 한국의 작가들은 탈북자 내부의 집단 의식과 정치성 등을 형상화하는 데 약점이 있고, 타자적 시선으로 탈북자 문제를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다.

탈북작가 문학은 탈북 문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섭되지만 그들의 문학은 사실성을 강조하는 ‘실화소설’과 ‘수기’의 문학적 전통이 강한 북한 문학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괴리는 탈북작가의 문학이 한국 작가의 ‘탈북자 소설’에 비해 한국 문단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미학적인 면에서 폄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탈북자의 존재와 활동을 반공주의 담론으로 재생산하려는 정치 논리에 의해 탈북작가 문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기도 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북한 체제 비판은 자신들의 체험과 체제 인식의 변화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반공주의와는 다른 반북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탈북작가의 단편소설은 장편소설에 비하면 최근에 창작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실린 문학지와 소설집의 기획 자체가 북한 사회에 대한 고발과 증언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장편소설에 비해 미학적인 완성도가 높고 강렬한 사회 비판의식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

45) 양진오, 같은 논문, 352~354쪽.

###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상과 북한 인민들의 삶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현하고 있는 남북공동소설집 두 권<sup>46)</sup>과 PEN 문학지 창간호·제2호·제3호·제4호에 실린 탈북작가의 단편소설 30편을 대상 작품으로 한다.<sup>47)</sup>

- 46)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소설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남한 작가 6명, 탈북 작가 5명이 참여하여 2015년 『국경을 넘는 그림자』, 2017년 『금덩이 이야기』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후원으로 출간하였다. 첫 번째 공동소설집에 참여한 남한 작가는 윤후명, 이청해, 이평재, 이성아, 정길연, 방민호, 신주희이고, 두 번째 공동소설집에 참여한 남한 작가는 이경자, 박덕규, 이대환, 유영갑, 이성아, 정길연, 방민호이다. 두 공동소설집에 탈북작가 윤양길, 이지명, 도명학, 김정애, 설송아가 참여했고, 이은철은 첫 번째 소설집에 광문안은 두 번째 소설집에만 참여하였다. 이상 두 권에 실린 탈북작가의 단편소설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8년 출간된 『꼬리 없는 소』는 출간 시기상 대상 작품이 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 47) 남북공동소설집과 PEN 문학지에 실린 탈북작가 단편소설 전체 31편 가운데 광문안의 「공주와 부마」는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에서 배제되고 숙청되는 장성택의 이야기를 서사화하고 있다. 이 소설은 김정은의 잔혹성을 부각하기 위해 장성택의 인간적인 면모를 미화한 측면이 있어 사실성을 강조한 소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구 주제와도 관련이 없어 대상 작품에서 배제하였다.
- 탈북/입국 시기가 공란인 것은 연구자가 자료를 찾지 못한 경우이다. 김정애의 입국 시기(※)는 2006년, 2008년으로도 나와 있다. 가장 최근 작품집 (김정애·이지명, 『서기골 로반』, 글도, 2018)에 실린 작가 이력에 나온 탈북 시기를 참고하였다.

번호	작가명(개명)	탈북/입국	작품명(변경)	계재 도서명(중복)	출판연도(중복)
1	광문안		코 빨 소년	PEN 1 (금덩이)	2013(2017)
2	광문안	입2004	공주와 부마	PEN 2	2014
3	광문안		죄와 벌	PEN 3	2015
4	김수진	입2013	산 넘어 산	PEN 4	2016
5	김정애	탈2003	밥	PEN 2 (금덩이)	2014(2017)
6	김정애	입2005	소원	국경	2015
7	김정애	(※)	오두막집 안주인	PEN 4	2016
8	김주성		영원한 순간	PEN 2	2014
9	김주성		용서	PEN 3	2015
10	남정연		지영이	PEN 3	2015
11	남정연		겨울약속	PEN 4	2016
12	도명학		재수 없는 날	PEN 1	2013
13	도명학	탈2006	생일	PEN 2	2014
14	도명학		책 도둑	국경	2015
15	도명학		잔혹한 선물	금덩이	2017
16	설송아		제대군인	금덩이	2017
17	설송아	입2010	진옥이	국경	2015
18	송시연		이지러진 달	PEN 3	2015
19	송시연	입2007	칠보산	PEN 4	2016
20	양윤(윤양길)		꽃망울	PEN 1 (국경)	2013(2015)
21	윤양길	입2012	어떤 여인의 자화상	PEN 4 (금덩이)	2016(2017)

남북공동소설집과 PEN 문학지 모두 북한 인권을 고발 혹은 증언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출판되었다. 2015년, 2017년에 출판된 남북공동소설집 『금덩이 이야기』와 『국경을 넘는 그림자』에는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소설집’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2013년부터 매년 한 호씩 출판되고 있는 PEN 문학지 등표지의 표제를 살펴보면 ‘특집 북한 투옥 작가와 인권’(2013),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PEN의 역할’(2014), ‘문학으로 통일을 이루다’(2015), ‘북한 현실에 관한 리얼한 기록’(2016)으로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하였듯이 탈북작가 문학 연구는 문학 정체성에 관한 양식사(樣式史)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작품으로 접근한 사례는 김유경의 『청춘연가』 한 편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탈북작가 문학 연구의 가치가 특별할 것 없다는 인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탈북작가 문학, 특히 최근 창작되고 있는 단편소설의 강한 정치성, 그로 인한 반공주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연구에 대한 회의 혹은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방민호는 남북공동소설집을 기획하면서 “현재 문단에서 문학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일, 피해를 볼 수 있는 일, 대중들로부터 소외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였

22	이은철	탈2005	아버지의 다이어리	국경	2015
23	이지명	입2005	복귀	PEN 1	2013
24	이지명		안개	PEN 2	2014
25	이지명		불륜의 향기(인간의 향기)	국경 (PEN 3)	2015(2015)
26	이지명		금덩이 (금덩이 이야기)	PEN 4 (금덩이)	2016(2017)
27	장해성	입1996	단군릉과 노 교수	PEN 1	2013
28	장해성		32년 전과 후	PEN 2	2014
29	장해성		충신과 지도자	PEN 3	2015
30	정선화		사생아	PEN 1	2013
31	정선화		수재	PEN 3	2015

(목록 순서는 작가명 가나다 순으로 함. 게재 도서명에서 ‘국경’은 『국경을 넘는 그림자』, ‘금덩이’는 『금덩이 이야기』, PEN은 『망명북한작가 PEN문학』의 줄임말이다. 공동소설집의 출판사는 예옥이고, PEN 출판사는 ㈜도서출판 등대지기이다. 중복 게재된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작가의 이름이나 작품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된 것을 괄호에 병기하였다. 논문에서 인용할 때는 중복게재된 소설의 경우 나중에 출판된 것의 제목과 게재 도서의 쪽 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금덩이 이야기」를 논문에서 인용할 때는, PEN 문학지 4호(2016.12)에 실린 「금덩이」가 아니라, 『금덩이 이야기』(2017.1)에 실린 「금덩이 이야기」의 제목, 게재 쪽수를 인용 정보로서 괄호에 표기할 것이다.)

다.48) 이것은 탈북작가의 문학,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담은 문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한 진보와 보수, 좌우의 대립 속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5년, 2017년 격년으로 출간되던 남북공동소설집이 2018년에 세 번째 책이 나와 고무적인 반면, 2012년부터 매년 12월에 한 호씩 발간되던 PEN 문학지는 2017년에 5호가 발간되지 않았다. 정확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들의 열악한 재정 사정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49) 남북공동소설집에 참여하는 탈북작가는 망명북한작가센터 회원으로서 모두 PEN 문학지에 참여하고 있고, 작품 역시 중복 게재되기도 하는 점으로 볼 때 PEN 문학지의 탈북작가 소설이 남북공동소설집의 그것에 비해 작가 혹은 작품 성향에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PEN 문학지와 남북공동소설집에 참여하는 작가 대부분은 2000년대에 탈북하였다. 권세영의 분석처럼 200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험,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내재적인 요인에 기반하여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반북주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이전 군사정권이 권력의 정당성 강조, 민주화 운동 탄압의 명분, 남한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이용하던 관 주도의 반공주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탈북작가 장편소설에서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인권 유린 문제 등 작가의 비판의식이 발견되지만, 이 일련의 단편소설의 창작이 망명북한작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탈북작가 연대 혹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국작가

48) 「방민호 교수와의 일문일답」, 같은 책, 39~45쪽.

49) 망명북한작가센터 전 이사장이면서 PEN 문학지와 남북공동소설집에 꾸준히 작품을 내고 있는 이지명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비해 (탈북작가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자) 남한 작가들의 관심이 한참 모자란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탈북작가의 인권문학에 대한 정부 지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끊겼다”고 말했다. (「이지명 망명北펜 전 이사장 “개방의지 없는 북한과 교류확대, 北주민에 도움안돼”」, 『서울신문』, 2018년 4월 30일.) 또한 국제PEN 망명북한작가센터 사이트 (<http://www.nkpen.org>)의 공지 사항에 PEN 문학지 5호에 실을 작품을 모집하는 내용을 보면, “원고료는 센터의 재정 형편상 없거나 작년 기준에서 일부 줄어든 금액으로 차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공지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을 보여주었다. 좋은 작품이 공모되지 않았거나, 2018년 출판된 남북공동소설집에 실린 작품과 중복되거나, 재정상 출판 여건이 되지 않아 5호 발간이 무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진강 출판사 설립인 겸 계간지 『임진강』 편집인인 조선작가동맹 시인 출신 탈북자 최진이씨도 “17호까지 내면서 매호 마감할 때마다 잡지가 돼 나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한국과 미국의 몇몇 단체로부터 조금씩 지원받고는 있는데, 인건비 문제에 취재부터 마감까지 총괄하다 보니 한 호 내고 나면 압 걸리기 직전 상태까지 간다. 백혈구 수치도 높아지고 황달도 오고.”라고 하면서 열악한 재정 형편을 드러낸 바 있다. 「최진이 탈북 시인 “스칼렛 오히려” 같은 녀성들이 북한의 희망」, 『여성신문』, 2012년 11월 23일.

와의 연대를 배경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창작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단편소설의 특성상 인물과 세계의 소설적 대결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강렬하게 드러나 여러 편을 통해 세계와 인물의 응전을 다양하게 고찰해볼 수 있다는 점, 탈북작가의 단편소설은 장편소설에 비하면 나중에 등장한 것으로 최근의 북한 사회상을 고찰해볼 수 있고, 따라서 연구의 개척지로서 가치가 있는 점이 대상 작품 선정 이유로 작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제학적 분석 방법을 큰 틀로 삼고, 인물의 현실 대응 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 이론을, 인물 유형의 특징을 파악할 때에는 종합적인 서술 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주제학적 분석 방법은 “시대를 통한 지속을 강조하면서 문학작품의 예기치 않은 차원을 노출하고 고행의 신화나 이미지들이 어떻게 현대성을 발휘하는지의 현상을 확인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테마·모티프·소재·이미지·상징들이 어떻게 살아 있는 것으로 순환·반복되고 또 지속적인 것으로서 포착되는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제학적 분석에서는 “이미지, 모티프, 테마 그리고 상징이 중요한 비평적 술어” 역할을 하게 된다. 주제학적 분석 방법에 따르면 “테마는 인물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 역으로 상황에서 유래되는 것이 모티프”이다. “인물 모형에의 탐색, 모티프의 발굴과 이의 연계화, 그리고 상징의 체계화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주제론의 핵심”이다.<sup>50)</sup> 이 연구는 30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인물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두 층위로 구분하여 그 재현 양상을 고찰하고, 다시 ‘테마’를 중심으로 각 테마별로 네 개씩 총 여덟 개의 인물 유형을 도출할 것이다. 따라서 주제학적 분석 방법이 연구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조동일의 자아와 세계의 관계 이론은 인물(자아)의 현실(세계) 대응 양상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인물이 대결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인물의 대응 양상을 파악하고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동일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 양상에 의한 장르론에서 서사는 “작품내적 자아와 세계에 작품외적 자아가 개입하고 있으며, 자아와 세계가 어느 한쪽으로 귀착되지 않고 대결”<sup>51)</sup>하는

50) 이재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23~26쪽.

51)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관계 이론」, 『한국 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204쪽.

장르라고 규정하였다. 서사의 하위 장르인 신화, 전설, 민담과의 종차(種差)를 밝히면서 다다른 소설의 정의는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 입각하여 대결하면서 자아와 세계 양쪽에 통용될 수 있는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sup>52)</sup>이다. 연구 대상 작품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소설 속 인물이 대결하는 세계는 국가 혹은 국가체제와 관련된 가시적·비가시적 실체나 관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작품 속에서는 인물과 인물의 대결로 나타나더라도 한쪽의 인물은 국가체제에 동화된 인물로서 그 실체는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경우,<sup>53)</sup> 작품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자아로서의 욕망을 지닌 여인과 세계로서의 ‘충성’형 자아의 대결인 경우도 있다.<sup>54)</sup>

각 인물 유형을 고찰할 때는 종합적인 서술 분석을 통해 인물 유형의 특징을 포착할 것이다. 서술 분석은 “사실적이거나 허구적인 연속적 사건과 연쇄나 대립, 반복과 같이 사건들이 갖는 다양한 관계” 일체를 서술이라고 정의하고 텍스트 안의 “모든 총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그 자체로 연구”<sup>55)</sup>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대신 작품에 나타나는 탈북작가의 증언 의식<sup>56)</sup>, 자유간접 문체를 이용한 작중인물의 논평, 인물의 내면 의식의 변화, 알레고리, 아이러니, 체험 서사 등 모든 서술 일체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각 인물 유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대상 작품 30편 중 「코 빨 소년」, 「밥」, 「영원한 순간」, 「아버지의 다이어리」, 「인간의 향기」를 제외하고 25편 모두 북한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액자 구성 작품인 「밥」, 「인간의 향기」에 삽입된 서사 역시 북한을 배경으로 한다. 「영원한 순간」, 「아버지의 다이어리」는 북한에서의 사건을 회상하는 삽입서사<sup>57)</sup>를

52) 조동일, 같은 책, 245쪽.

53) 「사생아」를 예로 들 수 있다. ‘내적 저항’형 순옥은 자아, ‘충성’형 남편은 세계이다. 자아가 우위를 점하다가 세계의 우위로 역전된다. 하지만 자아의 패배는 결국 세계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승패를 규정하기 어렵다.

54) 「어떤 여인의 자화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심일옥은 성적 욕망을 지닌 여인(자아)이면서 조국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여인(세계)이다. 자아가 승리하는 듯하지만 결국 세계가 승리한다.

55) 제라르 주네트, 「서술 이론」, 석경정·여홍상·윤효녕·김종갑 역음,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숲, 1997, 40쪽.

56) “북한의 절대적 체제에 대한 저항적 의식이 드러난다는 점, 자신들의 체험을 토대로 체제의 폭력성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언문학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면 북한의 인권 현실을 문제화하는 대상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증언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298쪽.

57)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또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경우나 과거의 편린들을 회상할 때, 또는 단 순히 앞날을 계획하는 순간에도 이런 식의 작은 스토리들을 떠올리곤 한다. 라이언이나 파머 같은 학자들

갖고 있다. 「코 빨 소년」 역시 북한의 정치, 경제 문제가 인물들의 대화, 편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작품에서의 북한 재현은 단순히 서사의 공간적 배경이 북한이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삽입된 미시 서사를 통한 재현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을 말하기 위한 소설에서 탈북작가가 중심 서사의 배경을 대체로 북한으로 설정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북한 체험이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공동소설집에 실린 한국작가의 작품들이 대체로 서사의 배경을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설정하고 탈북자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켜 간접적으로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체험의 직·간접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sup>58)</sup>

최종 대상 작품 30편을 분석한 결과 소설 속 인물이 대결하고 있는 세계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현실, 정치적 현실로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II장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소설에서 북한 사회의 현실로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모티프들을 추출하여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의 두 층위로 구분하여 문학적 재현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대상 작품에서 경제적 현실은 대량 아사 사태를 수반한 고난의 행군, 이를 계기로 등장한 ‘장마당’ 경제, 경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심화 양상으로 재현되면서 물질적, 심리적, 윤리적 결핍 문제를 포함하는 결핍의 세계로 표현되고 있음을 분석할 것이다. 정치적 현실은 끊임없는 선전선동을 통한 인민의 구속, 부패한 공권력, 출신성분과 연좌제의 굴레 등으로 재현되면서 억압하는 세계로 대변되고 있음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III장에서는 각 현실에 대한 소설 속 인물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 유형화를 진행할 것이다. 경제적 현실은 비단 경제적 결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인정, 윤리의 결핍을 초래하는 ‘결핍의 세계’로 표출되며, 정치적 현실은 개인의 삶과 꿈을 짓밟는 ‘억압의 세계’로 대변된다.

1차로 소설 속 인물이 대결하고 있는 세계가 결핍의 현실인지 억압의 현실인

에 따르면, 서사성이 조금 부족하긴 해도 이런 경우 역시 충분히 삽입서사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H. 포터 애벗,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4, 69쪽.

58) 물론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설로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정의 「유산」(PEN 문학지 창간호), 방민호의 「삼수갑산」(『국경을 넘는 그림자』, PEN 문학지 제4호에 중북계제)은 한국작가가 북한을 공간적 배경으로 쓴 소설이다. 본문에서는 대체적인 경향을 말한 것이다.

지를 구분하고, 2차로 인물이 그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을 유형화할 것이다.

결핍의 현실은 소설 속 인물과의 대결 구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세계다. 소설 속 자아가 마주한 생계, 생존, 혹은 치부(致富)의 욕망과 좌절의 상황, 경제적 빈곤 체험과 이후 장마당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에 만연한 경쟁 구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은 인간 실존에 관계하는 식량, 인정, 윤리, 희망이 결핍된 현실로 판단하였다.

반면 억압의 현실은 대결 구도가 숨겨진 경우가 많았다. 억압의 현실은 정치적 현실의 문학적 재현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의 영역과 대비되는 세계로 비가시적인 관념의 영역까지 포괄한다.

예를 들어 「겨울약속」의 지영이가 공권력 침해를 당하는 상황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지영은 안전원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다. 이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상황만을 놓고 지영이가 억압의 현실에 대해 저항의 대응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한다면 너무 기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대결 구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영이가 엄마가 국경을 넘지 않았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엄마가 나라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아버지가 당원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통해 역으로 지영이 내면에 자리한 정치적 현실을 유추하였다. 「사생아」, 「꽃망울」, 「32년 전과 후」에도 억압의 현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인물의 언행과 내면 의식을 통해 그들이 마주한 억압의 현실을 유추하였고, 인물의 언행과 내면 의식에서 억압의 현실에 대한 응전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단하였다.

두 가지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각각의 현실을 분리하고 그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고, 그것도 안 된다면 소설의 주제 맥락 안에서 중심되는 것을 인물이 대결 구도에 있는 세계라고 판단하였다.

두 가지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각각의 현실을 분리한 예로 「사생아」, 「어떤 여인의 자화상」이 있다. 「사생아」의 순옥은 결핍의 현실에 대해서는 ‘생존 추구’ 유형이고, 억압의 현실에 대해서는 ‘내적 저항’ 유형이다. 「어떤 여인의 자화상」의 심일옥은 결핍의 현실에 대해서는 ‘생존 추구’ 유형이고, 억압의 현실에 대해서는 ‘충성’ 유형이다.

두 가지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주제 맥락 안에서 중심되는 현실을 선

택한 예로 「32년 전과 후」를 들 수 있다. 「32년 전과 후」의 최호는 당과 조국에 대한 맹목적이고 한결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극도의 빈궁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 최호가 처한 빈궁의 상황에 초점을 둔다면 그가 대결하는 세계는 결핍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요인은 그의 정치적 신념이었다. 32년 전 체제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간파한 박경선이 광산을 떠나 체제 선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텔레비전 정치부 기자로서 풍족한 삶을 사는 아이러니는 32년을 한결같이 체제 선전에 경도되어 사는 최호의 빈궁한 삶과 대비되면서 ‘체제의 거짓 선전과 그에 속는 선량한 인민’이라는 소설의 주제를 강렬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최호가 대결하는 세계는 억압의 현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대상 작품들에서 북한 인민들이 처한 현실, 즉 소설 속 인물과 대결 구도에 놓인 세계를 결핍의 현실과 억압의 현실로 구분하고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정을 거쳤다.

III장에서는 북한 인민들이 맞닥뜨린 결핍의 현실을 식량의 결핍, 인정의 결핍, 윤리의 결핍, 희망의 결핍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양상을 ①생존 추구형, ②모성 추구형, ③욕망 추구형, ④국경 넘기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분석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절망, 각박한 인심, 불안으로 인한 윤리의 부재 등 물리적, 심리적, 윤리적 결핍 상황을 초래하며 이러한 각각의 결핍 상황에 놓인 인물의 대응 양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억압의 현실에 대한 인물의 대응 양상은 ①충성형, ②순응형, ③내적 저항형, ④외적 저항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억압의 현실 자체가 선전선동 행위, 공권력 행사처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출신성분제, 연좌제, 추상적인 공권력처럼 비가시적이고 관념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도 하는 ‘체제’의 문제이다. 따라서 억압의 현실에 대한 대응은 체제에 대한 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③ 유형은 체제 몰입형으로 체제 몰입의 자발성에 따라 구분되고, ④는 체제 이탈형이다. 체제 몰입과 이탈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다는 점이 북한 사회의 억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IV장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의 의미와 한계, 탈북작가 문학의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종합적인 의의와 시사점을 밝힐 것이다.

## II. 북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재현

탈북작가들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체험한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공언한다.<sup>59)</sup>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수기를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sup>60)</sup> ‘수기’는 한 사람의 하나의 체험이므로 일회적이지만<sup>61)</sup> 소설은 여러 허구적 장치를 이용해 무한 변주가 가능하다. 따라서 탈북작가들이 소설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알리겠다는 것은 각자가 체험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재현’ 의지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탈북작가들이 끊임없이 재현하고자 하는 그 역사적 진실이란 허구화된 이야기 속에서 반복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대상 작품에서 반복되고 있는 테마와 모티프를 찾아내어 탈북작가들이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현실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대상 작품 분석을 통해 경제 현실에 관한 모티프와 정치 현실에 관한 모티프로 구분하였고, 이들을 각각 ‘결핍’과 ‘억압’의 테마로 해석하였다.

결핍의 테마는 고난의 행군, 장마당의 등장, 장마당 등장 이후 사회적 폐단의 모티프로 반복 재현된다. 각 모티프를 ‘국가’ 속의 국가 없음, 비공식 언어의 확산과 연대, 적자생존의 실존 불안으로 해석하였다.

억압의 테마는 공개 처형, 강제수용소, 추방, 출신성분, 연좌제, 선전선동, 공권력의 횡포 등의 모티프로 재현되었다. 각 모티프를 순종하는 신체의 산출, 인민의 삶과 괴리된 공식 언어의 생산·유통, 권력의 하수인에 의한 인민의 이중고로 해석하였다.

---

59) 장해성, 위 ‘권두 칼럼’.

60) 권세영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15년 초 당시 수기와 에세이류의 산문 94편, 시집 10권, 장편소설 19편으로 수기등 산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1쪽 각주 3.

61) 물론 여러 사람의 수기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진실(반복되는 답론)이 있을 것이다. 수기도 서사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소설과의 구별을 위해 한 사람의 ‘일회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 1. '결핍'으로 표출되는 경제 현실

### 1) '국가' 속의 '국가 없음'의 경험

고난의 행군<sup>62)</sup>은 탈북작가 문학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대상 작품 대부분이 고난의 행군 혹은 그 기억의 자장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은 중심 서사의 시간적 배경이 되거나 기억의 형태로 삽입서사에서 재현되고 있다. 탈북 시기를 작가 이력에 밝히지 않은 작가의 작품에서도 고난의 행군이나 장마당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들 역시 2000년대에 탈북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쯤되면 고난의 행군은 탈북작가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흰쌀밥은 죽을 때까지 먹어도 싫지 않을 것 같아. 엄마, 잇밥보다 더 맛있는 건 아마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야.”

“그렇지? 쌀맛보다 더 맛있는 건 없지.”

나는 확인하듯 향이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고향을 떠날 때 입골 살이던 향이는 지금도 여전히 밥을 실컷 먹고 싶었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김정애, 「밥」, 222, 밑줄은 연구자)

「밥」은 액자 구성의 작품이다. 딸과 함께 탈북하여 한국에서 살고있는 모녀가 늦은 아침을 먹는다. 10년 전 고향 청진을 떠난 뒤로 그들은 ‘단 한 번도 밥을 굶은 적이 없’다. ‘악착스러울만치 끼니를 찾아먹는’데 그것도 ‘꼭 흰쌀밥으로만’ 먹는다. 딸아이의 일곱 살 때의 체험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의 내면에 아직 생생하게 살아서 현재를 지배한다. 그 체험이란 액자 속 삽입서사에서 재현된 허기(虛飢)의 체험이다.<sup>63)</sup>

“엄마, 딱 한 번만 쌀밥을 실컷 먹고 싶어.” (김정애, 「밥」, 233)

62) ‘고난의 행군’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나라의 경제 사정이 극히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김정일이 내놓은 당적 구호로서, 고난의 행군 정신은 1996년도 신년사에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노동청년>의 북한 3대 신문에 공동 사설형식으로 그해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기본사상으로 제시되었다. 「고난의 행군」,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검색일: 2018년 1월 30일)

63) “액자서사가 내부에 삽입된 서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할 때 (H. 포터 애벗, 같은 책, 67쪽), 「밥」의 액자 서사는 현재가 과거의 지배를 받으며, 아직 과거의 서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쌀죽이 먹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아버린 막내를 안고 저는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은철, 「아버지의 다이어리」, 349, 밑줄은 연구자)

고난의 행군 모티프는 허기(虛飢)와 죽음을 환기한다. 허기는 ‘배고프다’는 언술이 아니라 ‘먹고 싶다’는 욕망으로 드러난다. 생존의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허기에서 오는 생생한 고통은 죽음에 대한 추상적 공포와는 또 다른 충격적 체험이다.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개구리 뱀뱀듯 자주 빼먹던 배급이 아예 뚝 끊겼다. 소련이 자본주의로 이전하고 동구권의 사회주의 제도가 무너지자 그 여파가 공화국에까지 밀어닥쳤다고 당에서는 변명했다. (김정애, 「밥」, 227)

... 당에서는 허리띠를 조금만 조이자며 옥수수 뿌리를 먹으라고 했다. 빼에 가죽만 남은 아이들까지 아편 받으로 내몰아 백도라지라 불리는 양귀비 진을 채취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왜정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소”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뿜었다. (김정애, 「밥」, 237)

고난의 행군이 선포되기 전부터 이미 배급 사정 악화의 전조가 있었다. 언론에서는 배급 중단 이유를 내부적 요인이 아닌 국제 정세에서 찾았다. 북한에서 국가가 식량을 독점 관리하는 배급 제도는 ‘양정(糧政)’이라고 불린다. 식량 공급원을 장악하여 인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한다. 양정이 무너지면서 당국은 인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허리띠를 조금만 조이자’며 정신 무장을 독려하지만 노인들의 입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왜정 때보다 더 가혹한 시기로 비교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 살길을 찾아 떠나던 북간도행이 해방 오십 년이 되는 때 다시 이어졌다. 그때는 그래도 남편의 등과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여인의 머리에 피나리뭇짐이 있었고 고향을 떠나 이국땅으로 가는 설움에 눈물을 지으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나 지금은 살길을 찾아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배신이라는 대죄로 총구를 피해야 했다. 구사일생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은 이국땅에서 짐승처럼 이리 팔리고 저리 팔렸다고 한다.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49)

위 인용문에서도 고난의 행군을 일제강점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나마 살길을 찾아 떠나는 길조차 막혀있다는 점에서 왜정 때보다 더 가혹한 시절로 그려진다.

주디스 버틀러는 국가 안에서도 얼마든지 국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수감된 자, 노예, 불법 이주 노동자를 예로 들고 있다. 신자본주의의 산물인 불법 이주 노동자가 국가 속에서 국가 없음을 경험하는 존재라면 피식민지인들도 국가 속에서 국가 없음을 경험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신자본주의는 서구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로서 이전의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피식민지인의 존재는 지금의 이주 노동자의 존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되는, “존재론적 무게감이 결핍되고”, “유령 같은 인간 존재”였다. 조선인 강제 징용 노동자, 위안부의 존재는 당시 조선인이 “나이나 성별, 인종, 국적, 그리고 노동 상태 등이 시민권 획득 기준에 미달”<sup>64)</sup>되는 존재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가 왜정 하에서의 피식민지인의 삶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인민은 국가 안에서 ‘국가 없음’의 상황에 놓인 존재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양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던 사람들은 배급 중단으로 인해 당장 실존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삶과 관련된 복지는커녕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 없음’의 상황이고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중에도 ‘대죄’와 ‘총구’, 즉 법과 심판이라는 ‘국가’의 권위 안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당시 북한 인민들은 ‘국가’ 속의 ‘국가 없음’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는 지면서 돌봄은 받지 못하는 이중고(二重苦)의 상태이다.

1997년에 들어서며 삼 년째 계속되던 ‘고난의 행군’이란 굶주린 악귀가 사람을 마구 잡아먹기 시작했다. ... 갑자기 국가식량공급이 끊겨 굶어 통통 부은 사람들이 전국 어디나 차고 넘쳤고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다. ... 아침이면 돌덩이처럼 굳어진 시신을 실은 달구지며 리어카가 집집에서 나와 목소리도 없이 산으로 향했다. 하도 많이 죽으니까 사람 죽었다는 소리가 나중에는 항방 없이 짓어대는 개소리같이 들렸다. 노인의 큰딸도 그런 굶주림 때문에 자리에 누웠고, 작은딸은 먹을 것을 찾아 가출해버렸다.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03~104)

영수도 노인과 별반 다른 처지가 아니었다. 노인과 같은 마을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도 ‘고난의 행군’이란 악귀에게 부모님, 동생, 누나 다 잃어버리고 고아로 집도 없이 여기저

64)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역, 『누가 민족 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24쪽.

기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다.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07)

인용문을 통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일상화된 죽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죽음에 대한 공포, 가족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전 지역적인 현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이웃, 동포의 일상적인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더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환희의 도가니로 묘사되던 광장이 시체와 거지로 들어찬 폐허의 광장으로 변모’<sup>65)</sup>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타인의 슬픈 죽음에 대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sup>66)</sup>고 ‘무표정한 얼굴’<sup>67)</sup>로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다.

질겁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아니면 가족 누군가가 저 자리에 시체로 누워 있을 수 있다는 위구를 몸서리치게 느끼며 적자생존을 위한 필사의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돈을 위한 살인, 절도, 사기, 강도 행위가 난무했다.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49)

기아와 죽음의 공포는 생존의 본능을 깨운다. 어린 시절 고난의 행군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sup>68)</sup>이 삶의 감각이 마비되어 회로애락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생존의 본능이 훨씬 절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삶의 감각을 회복했을 때,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 못지 않게 고통 또한 강렬하게 느끼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이들은 오열하거나 삶을 놓아버린다. 따라서 생에 대한 감각 마비는 고통을 차단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생존 본능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통증(痛點)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위 인용문에서처럼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살인, 절도, 사기, 강도 행위까지 불사한다.

① 초겨울 저녁 열 시쯤,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철교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오 미터나 되는 철교 위에서 큰 돌들이 몇 개 떨어졌다. 정통으로 뒷머리를 맞은 아버지는 즉시 졸도하였다.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가 탄 자전거였다. 굽어 죽게 된 청장년들이 어둠이 깃들면 철교 위에 잠복한다. 밤이면 자전거를 탄 사람을 큰 돌로 급소 시켜 자전거를 빼앗는 일이 빈번했다. (설송아, 「제대군인」, 352~353)

65)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51~52쪽.

66)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21쪽.

67) 송시연, 「이지러진 달」, 182~183쪽.

68) 「꽃망울」의 철이, 「금덩이 이야기」의 영수가 그 예다. 철이는 삶의 감각을 회복한 뒤 재상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삶을 놓아버린다. 영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존재에서 오열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이들은 III장 1절 3항 ‘모성 추구’형에서 분석할 것이다.

②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졌는지 모른다. 사람 잡아 먹는 일도 있고 중국에 납치해 팔아먹고, 한 달 전에 동네 은심 엄마가 국경에 갔다왔다 하는 말이 젊은 여자를 납치해 생채로 피를 몽땅 뽑아 죽였다고도 했다. (김정애, 『책 도둑』, 291)

‘굶어 죽게 된 청장년들이’ ‘어둠 속에서’ 자전거 한 대를 빼앗기 위해 살인을 한다. 식인(食人), 인신매매, 잔혹한 살인 등 세상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은 기아의 현실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든다. “전쟁은 단지 전투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알려진 시간의 흔적 안에도 있다”<sup>69)</sup>는 홉스의 통찰을 수용할 때, 전쟁의 살의(殺意)로 가득찬 고난의 행군 시기야말로 전쟁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홉스는 “무한한 권력으로부터 많은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나,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결과,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끊임없는 투쟁이 훨씬 더 나쁘다”<sup>70)</sup>고 주장하였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전쟁 상태는 모두 국가 없음의 상태이다. 그런데 소설에서 재현되는 현실은 무한한 권력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공존하는 상황으로서 예외적 상황이다.<sup>71)</sup>

주디스 버틀러의 ‘국가 없음’이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하에서 차별받고 모욕받는 피식민지인의 존재를 상징했다면, 홉스의 ‘국가 없음’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살의(殺意)를 품은 존재를 상징한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 없음’을 경험하는 존재는 실존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홉스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sup>72)</sup>고 단언한다. 이것은 바로 탈북작가들이 고난의 행군에 부여하는 의미와 정확히 일치한다. 탈북작가의 소설에서 고난의 행군은 허기(虛飢)의 생생한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파괴, 죽음의 일상화, 마비된 삶의 감각, 살의(殺意) 등을 환기하며 비참한 생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 속의 ‘국가 없음’의 상황으로 반복해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69) 홉스, 김용환 옮김, 『리바이어던』, 살림출판사, 2005, 214쪽.

70) 같은 책, 231쪽.

71) 아감벤은 자연 상태(전쟁 상태)는 연대기적으로 ‘국가’가 창설되기 이전에 실재했던 시대가 아니라 ‘국가’에 내재해 있는 원리로서 ‘국가’가 “분해된 것처럼” 간주되는 순간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자연 상태는 예외 상태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출판사, 2008, 216쪽.

72) 홉스, 같은 책, 215쪽.

## 2) 비공식 언어의 확산과 연대의 공간

‘장마당’은 개방과 개혁을 철저히 외면해온 북한 체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아래로부터의 개혁’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절대 독재 권력도 인민들의 생존 본능까지 꺾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국가공급제로의 복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국가 사정을 여실히 드러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장마당은 고난의 행군의 극심한 가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인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이다. 탈북작가들의 이러한 의식은 장마당을 ‘전장’, ‘전투’, ‘치열한 생존의 장(場)’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전에 열차가 들어서고 있었다. 구루마에 걸터앉아 햇볕을 쬐이던 구루마꾼들이 일제히 일어나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손님 쟁취하는 백병전이 벌어질 때가 온 것이다. 창수도 싸움 나가는 소처럼 뿔을 세웠다. (도명학, 「책 도둑」, 185)

북중국경도시 혜산역은 각지에서 모여드는 보따리장수들로 붐비기 때문에 짐을 운반하는 구루마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가로이 손님을 기다리던 구루마꾼들이 열차가 들어오자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곧 있을 손님 쟁취의 ‘백병전’을 치르기 위해 저마다 무장을 하는데 창수도 ‘싸움’ 나가는 소처럼 뿔을 세운다. 장마당은 생존의 치열한 현장으로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판나는 전장(戰場)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비고 손님을 찾는 외침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목청으로 승부를 가르고 있는 경기장인 듯 자기 상품을 사라고 외쳐대는 소리, 흥정이 맞지 않아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도적놈 잡으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 삼십대 아주머니에게 매를 맞고 있는 구척의 오십대 거지 남자, 음식 바구니를 안고 단속원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여인들.....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52)

위 인용문은 영예군인인 남편에게 온 나라가 겪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쉬쉬하던 아내가 남편을 삼륜차에 태우고 나가 남편에게 처음 보여준 장마당 풍경이다. 아내 덕에 시절을 모르고 살던 남편 광호가 난생처음 보는 장마당은 활기 넘치는 긍정적인 삶의 현상이 아니라 서로 살겠다고 목청을 돋우는, 무질서하고 도덕과 윤리가 마비된 아수라장 같은 곳으로 그려진다. 장마당은 내가 아니면 내가 죽는 전쟁터, 승부를 가리는 경기장으로 묘사된다. 장마당의 전쟁 상태가 고난의

행군의 그것과 다른 점은 ‘단속원’의 존재다. 고난의 행군이 ‘국가 없음’의 혼란 상태였다면 장마당은 국가의 힘이 개입하고 있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북한은 이중 언어의 사회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표현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으로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로 철저히 언어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중 언어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인용문을 잠깐 보기로 한다.

말도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계산된 말만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아무튼 모두는 마치 얇은 얼음장 위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식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다. (장해성, 「충신과 지도자」, 87~88)

위 인용문은 ‘새해 첫 영농 전투’라는 이름의 연례 행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색하고 조심스럽게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계산된 말만 해야 하기 때문에 격의 없는 대화로 떠들썩해야 할 새해 행사가 살얼음 위에 있는 것처럼 몹시 긴장되어 있다. 이처럼 공식 언어는 뻔하게 틀에 박힌 언어, 규정되고 계산된 언어, 법이 허용한 언어이다.

반면 장마당은 금지품인 곡물을 포함해 남조선 노래, 영화 등 북한 체제에 있어 불온한 물건이 팔리는 곳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될 뿐 아니라 바깥세상의 소식이 들고 오는 정보의 장으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물건과 소식은 색다르고, 불온하고, 법이 금지하는 것들로서 정확히 공식 언어와 반대되는 개념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비공식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장마당은 이처럼 비공식 언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① “... 매장에 내놓은 책은 시시껄렁한 것들이고 좋은 건 장마당 옆에 집을 따로 정해놓고 갖다 놓았더군요. 거기 보니까 별게 다 있더군요. 남조선 노래랑 영화랑 거기서 몰래 팔더군요.”

“아니, 남조선 것도 판다고?” (도명학, 「책 도둑」, 173)

② 철이는 세상이 알쏭달쏭했다. 남조선이란 곳이 정말로 ‘미국놈’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 못 살 곳인지, 선생님들은 남조선을 나쁘게 말했지만 장마당에서 들은 소리는 달랐다.

(생략)

“진짜라니까, 너 광혁이 알지? 여기 떠돌아다니던, 너 만한 꽃제비 광혁이 말야. 참, 넌

여기 금방 와서 모르겠구나. 그런 애가 있었어. 그런데 그 조꼬만 새끼가 어떻게 남조선에 갔대. 장마당에서 어른들이 하는 소릴 엿들은 건데, 그 새끼가 남조선 가서 살두 찌구, 학교 다니며 잘 산대, 그리구 남조선에선 꽃돌이라고 불려준다는 거야.” (윤양길, 『꽃망울』, 46~47)

인용문 ①에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돈벌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돈키호테 소리를 듣는 작가 중 한 명인 ‘나’는 위원장의 도난당한 책이 장마당에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을 따라 장마당을 간다. ‘나’는 거기에서 남조선 노래랑 영화까지 몰래 거래된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란다. 서술자 ‘나’는 “변하는 세태를 먼저 알아야 할 작가가 그것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당이 어떻고 하며 글을” 쓴다는 부끄러운 자의식을 드러낸다.

한편 인용문 ②에서는 장마당에서 절도한 작물을 음식과 바꿔 먹으며 사는 거지 소년이 지식인 작가보다 세상 소식에 더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지 소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모두 장마당 어른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얻은 것이다. ‘선생님들은 남조선을 나쁘게 말했지만’ 거지 소년은 ‘장마당 어른’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 즉 누군가에게는 비공식적인 언어가 공식적인 언어보다 신뢰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지식인 작가마저 공식적인 언어가 비공식 언어와 유리된 공허한 울림일 뿐이라는 자조를 보인다. 장마당에서 들고나는 남조선 소식, 은밀히 거래되는 금지 물건, 그러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와 그 주체들은 사회의 비공식 언어 혹은 비공식 언어 주체이다. 그들은 공식 언어 혹은 공식 언어 주체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따라서 신뢰할 만한 존재들이다. 장마당은 그러한 비공식 언어 혹은 비공식 언어 주체의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보위원은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바치라고 했다. 만약 라디오를 몰래 청취하고 그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은 반혁명분자로 엄벌에 처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선화, 『사생아』, 144)

시장 아줌마들에게 한국은 한 집에 자동차가 한 대 이상씩 있다는 등, 라디오에서 들은 소식을 몇 마디 흘린 때문일까. 그러나 시장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이젠 흔하다. 마치 어디서 언어들은 듯이 말해도 밤에 두더지처럼 이불 속에 틀어 박혀 듣는 라디오에서 나온 소식이라는 것을 순옥도 그 아줌마들도 모를 리 없다. (정선화, 『사생아

], 148, 밑줄은 연구자)

주민 통제를 아무리 강도높게 실시한다고 해도 라디오를 듣는 일,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들은 한국 소식 등이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것이 ‘흔한’ 일로 된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권력이 규정해놓은 공식 언어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비공식 언어의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위 인용문에서 서술자 역시 장마당에서 정보 수용자일뿐 아니라 정보 제공자로서도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마당이 비공식 언어 주체의 확산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특히 ‘시장 아줌마들’에 의해서 그러한 연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여성들은 경제 활동의 주체로 사회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고, 특히 장마당이라는 북한 속 시장경제를 이루어낸 주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공식 언어의 확산·재생산·연대의 가능성과 힘은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 3)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실존 불안

칼 폴라니는 1944년 기념비적 저작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경제를 “인간들을 통째로 갈아서 무차별의 떼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멧돌’에 비유한 것으로 유명하다.<sup>73)</sup> 이것은 시장경제가 사회를 멧돌처럼 통째로 갈아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파괴하고 몰개성의 원자화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고이다. 그의 저작이 최근 다시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의 이러한 경고가 마치 예언처럼 현대사회의 인간 소외, 탐욕과 타락의 문제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인민들이 생존을 위해 시작한 자생적 장마당 경제 역시 서서히 그 사탄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소설에서 목격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인민들에게 장마당은 생존 가능성의 희망이 되었지만, 한편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불안이 공존하는 또 다른 전장(戰場)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자와 약자, 승자와 낙오자, 부와 가난의 대립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장에서 연민과 동정은 허락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늦은 밤거리를 혼자 지키다가 남은 순대를 가지고 들

73) 칼 폴라니,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2009, 163쪽.

어가면 남편은 많지 않은 걸 불쌍한 애들에게 주고 오지 그랬냐고 말했다. 나는 그런 애들이 가깝게 없었다고 말했지만 설사 있었다고 해도 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야박한 장마당 인심의 모범생이었다.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55~56)

심지가 끈은 중학교 음악교원이었던 인물이 장사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면서 주변의 불쌍한 이웃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어진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은 자신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웃 공동체 전체의 변화라는 것이 ‘야박한 장마당 인심’이라는 말에서 드러난다. 시장경제는 공동체를 갈아 원자화한다. 원자화된 개인은 자신의 생존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시장을 드나들 때 부득이 이 음식 매대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길 좌우에 늘어앉은 음식 장사꾼들의 사열을 받기가 제일 고통스러웠다. 어서 빨리 이 저주스런 음식 매대 구간이 끝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만치 국수 장사꾼들이 물려 있는 곳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사십 대 중반의 국수 장수 아주머니가 둔푼이나 있어 보이는 옷차림의 젊은 여인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 옆에는 남루한 차림의 작은 여자애가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다.

“네 눈엔 저 애가 먹다 남은 게 있으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게 안 보여? 절반이나 남은 국수를 애가 보는 앞에서 쏟아버려? 이 염통이 똥구녕에 붙은 것아!”

“개가 나 보구 달라기나 했기에 야단이요?” (윤양길, 「꽃망울」, 38~39)

자본주의 사회의 결핍된 윤리의식은 빈익빈 부익부, 빈자를 돌보지 않는 부자의 야박한 인심에서 드러난다. 북한은 엄연한 사회주의 사회이지만 장마당 활동이 부상하면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가 겪고 있는 빈부 격차, 빈곤층의 소외현상 등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 고난의 행군 때 고아가 된 꽃제비 아이들은 사회의 돌봄은커녕 이웃의 외면을 받는다. 거지 소년에게 시장통의 음식 매대 구간은 굶주림을 자각시키는 ‘저주스러운’ 공간이다. 혹시라도 손님이 남긴 음식이 있으면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지 소녀를 배려하지 않고 절반이나 남은 음식을 버려버리는 돈 있는 여자의 야박한 인심은 소년과 소녀의 우연한 재회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 시끌벅적한 작은 사건을 통해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극빈의 아이들은 그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저주스러운’ 장마당에서 재회하며 그들만의 연대가 주는 안도감과 유대감을 확인한다.

① 알지도 못하는 기름장사꾼에게 갑자기 질투가 났다. 자기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아줌

마가 때 묻는 빨간 돈 가방을 배꼽 아래 차고는 돈뭉치를 계속 밀어 넣는다. 도적맞은 기분이 들었다. (설송아, 「진옥이」, 230)

② 작달뱅이 아줌마가 가끔 시비도 걸어왔다. 자기 손님 뺏는다고 씹을 걸때는 악담을 퍼붓는 건 보통이고 머리끄덩이 쥐고 싸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진옥은 점점 야성적으로 변했다. 기름이 잘 팔리지 않을 때는 작달뱅이 아줌마 탓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덤벼들어 머리칼 한 줌을 뽑아놓고야 분을 삭혔다. 악발이로 변한 진옥에게 작달뱅이 아줌마는 더 이상 덤비지 않았다. 그 대신 요염한 계집에게 운전수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담배 한 갑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진옥은 한 수 더 뺏다. 수출 석탄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수들을 자기 손님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한동네에서 살고 있는 본가 집을 냉면집으로 만들었다. 본가 집이 기름 창고와 멀지 않은 데 있어 더 많은 차들이 식사 겸 기름 보충도 할 겸 몰려들었다.

남자를 자극하는 살짝 패인 옷을 가끔 입는 것도 잊지 않은 터라 동업자들의 험담에도 올랐다. 개의치 않았다. 저주하는 약자보다 저주받는 강자가 된다는 진옥이다운 장마당 기질에 험담 따위는 컷등에도 안 들린다. (설송아, 「진옥이」, 235~236)

원자화된 개인은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며 남이 벌면 내가 잃는다는 생각으로 질투와 경쟁을 무한 반복한다. 인용문 ①은 이러한 제로섬 게임 상황이 잘 나타난다. 제로섬 게임에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버는 돈은 내 돈을 도적맞은 것과 같다. 따라서 그를 향한 질투와 투지가 끓어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위 인용문 ②에서는 일종의 독과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름집(자동차 기름) 두 곳이 손님 경쟁을 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처음에 이들은 장사가 안 된다 싶으면 상대 기름집 주인을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그것도 부족하면 머리끄덩이를 잡고 몸싸움을 한다. 완력으로 승부가 안 나자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 전략을 바꾸는데, 이 차별화된 서비스란 담배 한 갑, 살짝 패인 옷이다. 현대 사회의 세련된 마케팅 기술 이면에 숨은 상술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위 두 인용문에 등장하는 진옥이라는 인물은 내연 관계인 시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연유공급소 소장을 소개받아 뇌물을 주고 연유를 싼 가격에 공급받는다. 자본, 인맥 청탁, 뇌물, 부패한 관료의 결합은 가족 윤리와 성 윤리, 기업 윤리, 공직자 윤리 등 사회 윤리의 총체적 부재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금옥이 창수에게 구루마를 같이 끌자고 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좋은 짐은 늘 여자의 구루마를 비웃으며 피해갔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였다. 그래서 쇠새끼 같은 창수를

부려먹기로 했다. 창수도 구루마 살 돈만 있으면 그 노릇을 하고 싶던 터, 텃석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불평등 조약’을 감수해야 했다. 빈 돈은 금육이 7할, 창수는 3할만 가져야 했다. 구루마가 좋고 창수의 힘이 세서 하루 잘 벌면 1kg짜리 강냉이국수 10사리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런데 창수 몫이 3할이면 3사리 값밖에 안 된다. 여우같은 년, 세월이 어수선하니 별 갈짚은 과부 따위가 자본가행세를 하네, 아무리 순박한 쇠새끼라도 기분이 좋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 절박한 처지라 싫은 대로 응했다. 그야말로 ‘무산 계급의 설움’이다.

(중략) 그래도 구루마 덕분에 배라도 불리고 집에 강냉이국수 한두 사리라도 사들고 들어가게 돼 창수는 ‘피착취계급의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금육이 역시 자기의 ‘노동력 착취’를 당연한 이치로 여기기 시작했다. 자기 덕에 창수가 먹고 산다고 생각했다. (도명학, 「재수 없는 날」, 180~181)

한편 자본과 인맥이 없는 보통의 인민들은 그들대로 살 방도를 찾는다. 위 인물은 구루마 살 자본은 있지만 힘의 경쟁에서 밀리는 젊은 과부와 가진 게 힘밖에 없는 젊은 남자의 동업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결합은 각자의 필요에 따른 연대이지만, 자본은 언제나 노동 우위에 있으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에 ‘피착취계급’의 삶에 길들기 시작한다.

폴라니는 노동·토지·화폐는 상품이 아님에도 상품으로 취급되는 허구 상품이고 이것들이 시장 메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다 보면 그 노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라는 육체적·심리적·도덕적 실체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들은 갖가지 문화적 제도라는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에 알몸으로 노출되어 쇠락해”갈 것이며, “악덕·인격 파탄·범죄·굶주림 등을 거치면서 격심한 사회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74)</sup>

74) 칼 폴라니, 같은 책, 243~244쪽.

창수는 ‘힘밖에 가진 게 없’고, ‘뭘든 배만 채우면’ 노동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심지어 그는 ‘생김새까지 소를 닮았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먹은 후’에 ‘아무거나 배만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창수 자신도 ‘외양간에서 끌어내면 채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키는 소처럼’ 누가 찾아주기를 바란다. 노동의 대가로 ‘커다란 배’에 채워줄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가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 노동력이라는 알몸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현실을 해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돈벌이가 고조에 오르고 있을 무렵 진옥은 재수 없이 임신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신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 암에 걸린 환자보다 더 화가 났다. (중략) 최근 관계한 남자들을 떠올리며 달력을 놓고 생리 날짜와 관계 날짜를 따져봤다. 남편 아이 같기도 하고 운전수 아이 같기도 하다. 밤에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낮에는 운전수와 정사를 한 적도 많다. (중략) 진옥의 장마당 야망은 끝이 없이 오르고 있었다. 고민하는 사이 몇 달이 흘러 태아의 발이 진옥의 배를 툭툭 친다. 태아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진옥은 생각했다. (설송아, 「진옥이」, 238)

이 인용문에서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소위 장마당 세대<sup>75)</sup>의 성 윤리, 가족 윤리, 생명 윤리의 결핍이 극단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아이를 임신한 것을 돈 벌 기회를 잃게 된 재수 없는 일로 표현하면서 8개월이나 된 아이를 낙태하기로 결심한다. 인물의 내면을 지배하는 배금(拜金)의 의식은 성, 가족, 생명 윤리를 압도한다.

식량부족 문제로 야기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사회 혼란이 장마당의 확대와 더불어 배금주의 가치관의 우세화로 이어지고 이로써 성과 사랑, 생명이 돈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연쇄적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재현된다. 이것은 타락마저 생존 본능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탈북작가들의 소설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무한경쟁,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 각박한 인심, 노동력으로 전락한 비참한 인간 존재, 배금(拜金)의 가치관 속에서 타락한 인간 존재로 형상

75) 북한에서 1990년 이후 출생한 세대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에 20·30대를 이루며 북한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세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가뭄과 추위로 극심한 발육장애를 겪은 젊은이들로, 국가의 배급망이 붕괴된 이후에 태어나 국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들이다. 「장마당 세대」,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검색일 : 2018년 2월 10일)

화되고 있다. 이들 소설은 화려하고 세련된 수식어를 다 거둬내고 자본주의의 생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마치 그 안에 매몰되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우화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 2. '억압'으로 대변되는 정치 현실

### 1) 순종하는 신체의 산출

공개 처형, 강제수용소(감옥), 추방, 출신성분, 연좌제는 권력에 의한 인간 생명의 통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공개 처형은 살 가치가 없는 생명에 대한 권력의 직접적인 선고이며, 강제수용소(감옥)는 살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의 개조를 위한 훈육의 공간, 혹은 훈육의 공간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는 생명이라는 선고를 받은 자가 머무는 곳이다. 추방·출신성분·연좌제는 국가가 개인의 생물학적인 생명은 허용하되 정치적·사회적 생명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출신성분은 피의 순수성, 혈통의 우열에 대한 권력의 규정으로 나치의 우생학적 인종주의를 연상케 한다.

아감벤이 “20세기의 강제수용소와 거대 전체주의 국가들의 구조”를 “현대 생명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sup>76)</sup>이라고 한 것을 상기할 때, 북한의 공개 처형, 강제수용소, 추방, 출신성분, 연좌제야말로 권력이 “인민의 생명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sup>77)</sup>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생명정치<sup>78)</sup>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탈북작가들은 당연히 이러한 독재국가의 생명정치를 문제삼았다. 중심서사로든 삽입된 미시 서사로든 생명정치 모티프는 「죄와 벌

76) 아감벤이 말한 강제수용소는 나치 시대의 강제수용소를 말한다. 조르조 아감벤, 같은 책, 38쪽.

77) 같은 책, 277쪽.

78)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복지 차원에서 논의되는 생명 연장 기술, 임신·출산 정책, 안락사, 금연 캠페인 등의 문제 역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생명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생명정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감벤은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내적으로 결탁되어 있다”(같은 책, 49쪽)는 도발적인 주장을 하였다. 아감벤은 금세기 들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생명정치가 사실은 이미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책, 238~239쪽.

], 「소원」, 「금덩이 이야기」, 「복귀」, 「생일」, 「수재」, 「밥」, 「재수 없는 날」, 「이 지러진 달」, 「산 넘어 산」, 「용서」, 「칠보산」, 「사생아」 등 꽤 많은 작품에 등장한다. 특히 출신성분과 연좌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고성기에서 ‘야 10번, 오늘이 네 생일이야?’하는 소리가 나왔다. 김 대위다.

“아닙니다, 전 생일이 없습니다.”

“인마, 생일이 왜 없어?”

“예! 반역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은 생일을 쇠지 않습니다!”

박 영감 목소리가 이상하게 씩씩했다.

“허허. 너 그새 많이 공부했구나. 처음 들어올 때 그 배짱은 다 꺼졌나?”

“예! 그땐 제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거 봐.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여기가 대학인 거야. 얼마나 좋아. 공짜로 밥 먹여주지, 공부시켜주지. 안 그래?”

“예. 맞습니다.”

감시모니터 옆에서 다른 자들이 깔깔대는 소리가 고성기로 새어나왔다.

“히히히. 저 새끼 이제야 제대로 아네.”

“그래도 저게 한때는 지배인노릇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호호호.” (도명학, 「생일」, 237)

위 인용문은 10번으로 호명되는 인물이 구류장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매질과 폭언, 혹독한 규율과 모욕감을 경험한 뒤 자신은 짐승이라는 고백을 하는 대목이다. 처음 감방을 들어왔을 때만 해도 3천 명 종업원을 거느렸던 기계공장 지배인의 기상이 남아 “내가 환갑이 넘었다. 당장 니들 정치부장 데려와라. 법대로 하자!”고 악악 소리를 질러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물은 “순종하는 신체”<sup>79)</sup>화 된다. 감방은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하는 ‘대학’이며, 간수들은 ‘선생’으로 호명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이름 회수, 수인 번호 부여, 욕설, 매질, 기함, 모욕, 가래침, 불결함, 배고픔, 추위, 수치심, 비굴함, 강도 높은 노동<sup>80)</sup>이다. 그리

79) ‘순종하는 신체’는 아감벤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승리는 일련의 적절한 기술들을 통해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이른바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해낸 새로운 생명권력의 규율적 통제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 말에서 빌려온 말이다.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의 생명권력과 다른 ‘새로운’ 생명권력의 규율적 통제를 고안했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전체주의 생명권력의 규율적 통제가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르조 아감벤, 같은 책, 37쪽.

80) 「생일」의 구류장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기 전 예심을 받는 죄수들이 거쳐가는 곳이어서 그런지 노동 형벌은 나오지 않는다. 「금덩이 이야기」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재현된다. 여기에서는 구류소와 정치범 수용소를 구분하지 않고 감옥으로 통합해서 논의하였다.

고 생명정치를 통해 목표하는 바는 순종하는 신체의 산출이다.

“튼실하게 생긴 술한 농촌 처녀들을 놔두고 하필 일할 줄도 모를 뿐 작고 보잘것없고 출신성분조차 나쁜 도시처녀를 데려왔누? 고르다 고르다 쥐를 고른다더니.....쯧쯧.”

(중략)

내 친정은 월남자 가족이었다. 북한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성분이다. 타고난 성분에 놀려 남들보다 곱절이나 더 성실하게 살아야했고 남들보다 더 가난해야 했다. 출세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기껏 바래봤자 당원에게 시집가는 것, 그 외 집에서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여주는 것이 효도라고 여겨야 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이가 아홉 살이나 많지만 당성 하나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시골 총각 상철에게 감지덕지 서둘러 시집을 왔던 것이다. (김정애, 「밥」, 224~225)

위 인용문에서 ‘나’라는 인물은 월남자 가족이라는 ‘타고난’ 성분에 놀려 성실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서의 계층구조는 인위적인 서열구조<sup>81)</sup>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타고난’ 운명으로 인식한다. 월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출세는 꿈도 꿀 수 없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으면 북한에서 입신양명의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가 기껏 기댈 수 있는 꿈은 당원에게 시집가는 것이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은 당원이 되는 것”인데 당원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출신성분”<sup>82)</sup>이다. ‘타고난’ 출신성분이 밑바닥인 ‘나’는 출신성분이 좋은 아홉 살 많은 당원에게 감지덕지하여 시집을 간다. 자신의 환경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의 함의가 있다.

“(중략) 보안원 자리가 좋긴 좋다~”

“좋으면 너두 좀 돼봐라.”

“인마, 성분이 나쁜데 어떻게 되니? 우리 할아버지 월남자란 말야. 헤헤” (도명학, 「재수 없는 날」, 190)

할아버지가 월남자이기 때문에 북에 남은 자손들은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직업 선택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된다. 위 인용문

81) 유광진은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계급정책」과 「인간개조」 방법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임을 강조한다. 즉 생성 자체가 자유세계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 직업, 교육 등의 배분과정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조작적 계급정책의 결과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유광진, 「북한의 사회체제와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안보연구』, 제10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0, 62쪽.

82)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구조의 성격과 심화 과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5쪽.

에서 보듯이 월남자 가족이 보안원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출신성분 제도는 수용소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민대중을 순종하는 신체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교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혈통의 순수성, 우열이 실재한다고 믿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젠장, 골칫거리가 생겼네. 평양에서 추방되는 가족이 또 우리 농장에 내려왔어. 원래는 개성지방의 지주 출신인데, 지주가 큰 아들을 데리고 월남하고 미처 월남하지 못한 지주 마누라는 작은 아들을 데리고 북에 남았다는 거야. 지주 마누라는 사는 고장을 평양으로 옮기고 지금껏 폭력에 가족을 잃은 피난민으로 신분을 속이고 살았대. 평양에서 자란 지주의 작은 아들은 간부로 발전했고, 지주 손자는 조만해서는 가기 힘든 유학까지 갔다는 거야.”

“저런, 타도계급이 출세를 하고 자식을 유학까지 보냈으면 누릴 건 다 누렸구만.”

“지주 손자가 그렇게 소문난 수재였다네.”

“허이구, 아무리 수재면 뭘 하오. 이젠 이 산골에 와서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신분이 들창 났수?”

“한 고향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우연히 지주 마누라를 봤다는구먼. 그래서 신고했나봐. 지주 마누라하고 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며느리하고 손자는 여기로 추방되었다네.”

“그래도 가족까지 다 끌려가지 않은 게 다행이구먼.”

“며느리 쪽 성분이 엄청 좋은가봐. 그 가족도 언제 끌려갈지 모르지. 추방되어 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가족들이 있지 않나. 젠장, 우리 농장이 뭐 반동가족들이 추방되는 유배지인가? 적하면 추방가족을 들이밀고. 내 군당에 가서 좀 들이받아야겠네.”

(정선화, 「수재」, 120~121)

이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수혁)은 러시아 유학 시절 물리학 박사 학위를 딴 이름난 수재였으나 출신성분이 탄로 나면서 하루아침에 산골농장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할머니는 남편이 큰아들을 데리고 월남한 뒤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작은 아들을 데리고 북에 남게 되었다. 할머니는 지주였다는 사실과 남편이 월남했다는 사실 두 가지에 대해 일종의 성분 세탁을 하였다. 그 덕분에 그동안 집안에서 간부도 나고 유학자도 나왔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 나자 수혁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어머니와 수혁은 산골농장으로 추방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한 일인데, 이마저도 수혁의 모친쪽 성분이 ‘엄청’ 좋기 때문에 가능한 선처였다.

이 소설에서는 한 인물에 대하여 출신성분, 연좌제, 추방의 정치 기술이 한꺼번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신성분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연좌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출신성분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태도에서 거부감이나 강한 저항심을 보기 힘들다. 위 작품 대화 속 인물 허수혁의 경우처럼 출신성분의 역전으로 인한 고난 상황만 아니라면 그것은 인민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장 사람들이 수혁이네를 동정하기는 커녕 그들을 ‘타도계급’, ‘반동 가족’으로 지칭하며 경멸하는 어조마저 띠고 있는 것을 볼 때 출신성분에 의한 계층구조는 인민들의 생활 정서로 깊게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좌제는 출신성분 제도와 연동하여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북한은 반역자로 간주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본인뿐 아니라 정치범 조부모 및 3대 가족이 다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 처벌받는 연좌제를 1972년 김일성 시대에 제도화했다.<sup>83)</sup>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와 수감 추정자 1천 258명 중 연좌제로 수감된 사람이 29%로 가장 많았다.<sup>84)</sup> 북한사회는 가뜰이나 성분에 의거한 계급차별이 절대적인 체제구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족 전체의 성분이 강등되어 정치적 핍박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정신 빠진 년, 새빨간 우리 집 출신성분에 흙탕물을 섞고 싶어 환장을 했냐? 니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순간 너의 큰 아버지도 부락당비서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군 보위부에서 일하는 네 사촌 오라비랑, 평양 호위국에서 복무하는 네 동생이랑 다 촌으로 쫓겨 올 수 있다는 걸 몰라? 이 미친년아.”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 봐 큰 소리도 못 치고 이를 갈며 나직하게 독설을 내뿜었다.

“그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닥치지 못해! 반동분자의 자식은 평생 반동분자야. 내 그 빌어먹을 평양집 사람들을 당

83) FIDH, 「북한의 사형제도: 전체주의 국가기구」(<https://www.fidh.org/IMG/pdf/kr-report-high-rez.pdf>), 2012, 8쪽.

84)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정치범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사전」(<http://www.nkdb.org>), 2016, 17쪽.

장 다른 분조로 옮겨달라고 형님한테 말해야겠다. 이년 때문에 집안에 망조가 들겠어.”  
(정선화, 「수재」, 131)

위 인용문을 통해 월남자 가족이라는 출신성분이 탄로 나 평양에서 추방당해 온 수혁을 짝사랑하게 된 ‘내’가 수혁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을 때 ‘대번에 빗자루부터 집어들며 아버지가 한 말’은 출신성분과 연좌제가 연동될 때 갖게 되는 파괴력을 보여준다. ‘나’의 집안은 ‘새빨간’ 출신성분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핵심계층에 속한다. 그런데 수혁은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흙탕물’처럼 ‘나’의 집안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고, 오점이 남는 순간 큰아버지, 사촌 오빠, 남동생 모두 당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집안이 망하는 것이다. 반면 수혁이네 입장에서 ‘나’는 은인일 수밖에 없다. ‘나’는 촌 여자고 겨우 중졸이지만 수혁은 명문대 출신에 유학까지 다녀온 뛰어난 수재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출신성분이 새빨간 ‘내’ 덕분에 정치범관리소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를 은인이라고 말한다.

“제발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미친 듯이 두 손을 마주비비며 빌고 빈다. 손바닥이 불꽃이 튀겨날 것처럼 따가워 났다.  
“이건 법이야, 법. 우린 법의 집행자야. 네 종자들을 살려둔다면 언젠가는 잡혀간 놈들을 위해 복수를 꿈꿀 것 아니냐? 그래서 종자를 남기지 않는 법이야.” (김수진, 「산 넘어 산」, 261)

위 인용문에 의하면, 연좌제는 ‘복수하는 종자’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이다. 연좌제가 출신성분 제도와 연동된다는 것은 두 제도가 이처럼 혈통의 우열과 보존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출신성분 제도의 최하류층인 적대계층은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sup>85)</sup>로서 피 속에 반동의 기질이 있다고 권력에 의해 규정되어 특별 관리되는 부류이다. 연좌제는 혈통의 순수성과 우열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정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돌연변이를 제거

85) 이성로, 같은 논문, 69쪽. “적대계층은 전체 주민의 27%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주로 85이후 전락 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 관복무자, 체포 투옥자 가족, 간첩 관계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자본가 등 21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진학에 심한 제약을 받고, 노동당 입당이 봉쇄되어 다양한 탄압을 받고 있는 계층이다. 특히 적대계층은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의 대상이 되는 제재 대상, 동태를 감시당하는 감시 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 순응적인 대상으로 포섭되는 포섭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이성로, 같은 논문, 115쪽.

할 때는 관련된 가족을 함께 제거함으로써 ‘복수할 가능성이 있는 종자’의 씨를 말린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하기 위해 동원되는 많은 정치적 장치 중에서도 유독 연좌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탈북작가 소설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탈북작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반영으로 이해된다. 탈북자를 코헨의 디아스포라 유형 중 국가체제의 희생자라는 의미에서 희생자 디아스포라로 분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좌제와 출신성분 제도와 관계되기 때문이다.<sup>86)</sup> 탈북자는 국가를 배신한 자가 되어 그 가족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좌제와 관련되고, 이러한 개인의 전과가 가족 공동체의 전과가 되어 가족 전체가 이에 따른 사회적 제약, 정치적 박해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출신성분 제도와 관련된다. 탈북작가 역시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희생자 디아스포라인 것이다.

## 2) 인민의 삶과 괴리된 공식 언어의 생산·유통

탈북작가의 북한 재현 소설에서 장마당이 비공식 언어의 확산과 연대의 공간으로 재현되었다면, 당의 선전선동은 공식 언어의 생산과 유통 창구로 재현된다.

북한에서 선전선동부는 최고지도자의 선전 및 체제 선전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전담하는 노동당의 핵심 부서이다. ‘선전’과 ‘선동’의 두 단어가 복합된 것이 특이한데, “전체주의체제 또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선전과 선동에 대해 논의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주로 ‘선전선동’이라는 한 묶음으로 더 잘 쓰인다.”<sup>87)</sup>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핵심 양대 부서의 기능은 조직지도부가 “조밀하게 조직을 장악하여 전체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선전선동부는 “각종 조직 내의 선전선동부서를 통해 전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sup>88)</sup>하는 것으로서 두

86) “탈북자 디아스포라는 세 가지 점에서 ‘희생자 디아스포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탈북자들이 감행하는 탈북은 경제난의 가중과 함께 국가 배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발생했다. 둘째, 출신 성분에 따른 사회적 제약과 함께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만연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재 탈북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셋째, 재중 탈북자들은 중국의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체포·감금·강제송환되고 있다.” 장원석·고경민, 「탈북자 문제의 디아스포라적 접근」, 『평화학연구』, 제14권 제5호, 한국평화통일학회, 2013, 100쪽.

87) 이경직, 「북한의 체제유지와 선전선동의 역할」,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4, 179쪽.

88) 같은 논문, 180쪽.

부서는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 공식 언어는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는 지배층의 언어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공식 언어는 노동당의 핵심 부서를 통해 생산·유통되며,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나팔모양 고성기 네 개를 천장에 단 방송 선전차가 줄곧 영수네 중대 구간에서 소란을 피웠다. 영수는 따뜻한 차 안에서 “전투원 여러분! 항일혁명투사들처럼 흑한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훈을 새겨가는 여러분의 열정은.....”하고 마이크에 침을 튀기는 선전대원 처녀를 냉큼 끌어내 곡괭이를 쥐여주고 싶었다. (중략) 허리 좀 펴려면 “순간의 휴식도 없이 곡괭이를 휘두르는 이 미더운 동무들을.....”하고 꼼짝못하게 다그쳤다. (도명학, 『잔혹한 선물』, 169~170)

이 인용문은 ‘방송 선전차’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항일혁명투사’에 견주며 작업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에게 항일혁명에 임하는 투사처럼 정신력을 무장할 것을 요구한다. 육체노동을 정신력으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불평을 원천봉쇄한다. 하지만 영하 사십도의 흑한과 굶주림 속에서 노동하는 돌격대원들은 “선전대원 처녀를 냉큼 끌어내 곡괭이를 쥐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공감과 배려가 없는 공식 언어는 ‘소란’으로 인식되며, 인민들의 정서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재현된다. 공식 언어는 끊임없이 생산·유통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소비(수용)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은 단언할 수 없다.

이윽고 헬기가 떠나고 방송차는 “나랏일이 것처럼 바쁜 가운데서도 백두대지에 위훈을 새겨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어 몸소 직송기까지 띄워 싱싱한 과일을 보내주신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이 크나큰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 이 사랑의 힘으로 철길공사를 앞당기기 위하여 총돌격합시다”하고 떠들었다. (도명학, 『잔혹한 선물』, 177)

이 인용문에 의하면 최고사령관의 선물은 사랑의 행위다. 지도자의 사랑을 받은 노동자 인민들은 이제 ‘보답’으로 철길공사를 앞당겨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뒷받침하는 상호호혜 원리를 잘 보여준다. 상호호혜 원리는 “권력자는 선물을 통해 아래 인민들에게 충성과 노동의 자발성을 요구하고 지지자들은 선물의 보답으로 충성을 바친다”는 것으로 “인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 당, 국가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담론을 전파”<sup>89)</sup>하여 인민들

이 자발적으로 은혜에 보답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은정을 근면한 노동으로 보답하도록 노동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날이 어두워지고 건설장은 햇불, 모닥불, 자동차 전조등 불빛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 걸 찍어 신문에 낸다고 기자들이 설쳐댔다. 아마 신문 방송에 나가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충성심이 발동해 햇불까지 켜달고 일하는 줄 알 것이다. (도명학, 「잔혹한 선물」, 181)

선전선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최고지도자의 ‘은정깊은 선물’이란 3명당 사과 2개였다. 그 적은 양의 간식을 먹고 돌격대원들은 야간작업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받는다. 언론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돌격대원들이 최고 지도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충성심’이 발동해 자발적으로 야간작업에 돌입했다고 쓰기 위해 동원된다. 상호호혜의 원리가 언론을 통해 인민 대중들에게 조작되어 전파되는 과정이 형상화되고 있다.

방송 차에서 불어대는 방송원의 거센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동묘지 야산에까지 들려왔다.

“후손 만대가 김일성민족의 행운을 가슴 뿌듯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세대는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기어이 주체의 강성대국을 웅장하게 일떠세울 것이다.” ...(중략) 방송 소리에 도시도 잠에서 깨어나 굴뚝들에 연기를 피워 올렸다. (윤양길, 「꽃망울」, 50)

일명 ‘방송 차’, ‘방송 선전차’가 꽃제비 아이가 기거하는 공동묘지 야산에까지 전파되고 있다. 노동자의 사기 진작이나 특별한 훈육이 필요한 곳뿐 아니라 소외된 인민들의 일상적인 삶 안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전선동은 일상적·반복적·비예외적이다. 하지만 방송 차의 떠들썩한 선전 내용은 공동묘지 야산에서 기거하는 거지 아이들의 비참한 삶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아이들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소리가 그저 ‘들려’오는 것으로 그려진다.

‘당은 청년들을 천길 막장으로 부른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떨어진 때여서 그들은 귀국하자마자 여기 회창군 성흥광산에 배치되었다. (중략) 자신들도 마침내 당당하게 노동계급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도 낭만이라면 낭만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

89) 이성로, 같은 논문, 183쪽.

,179~180)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가는 초소를 가리지 말라고 하셨어. 정 떠나겠다면 할 수 없지. 넌 언젠가 꼭 오늘의 일을 후회 할 날이 올 거야.” (장해성, 「32년 전과 후」,188)

수령의 교시는 최고 지위의 공식 언어다. “북한의 조직생활 중에서 최소의 단위에서 모든 주민이 주기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행사가 생활총화”인데, 생활총화에서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에 비추어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반성”<sup>90)</sup> 한다는 점을 볼 때 수령의 교시는 북한에서 최고 경전의 지위를 갖는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당은 청년들을 천길 막장으로 부른다’, ‘혁명가는 초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수령의 교시는 소설 속 인물들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막장을 경험한 젊은이 중에는 “흥! 천길 막장 같은 소릴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당에서 여기 와서 죽도록 일을 해보라고 해.” 하면서 과감히 공식 언어의 수용을 거부하는 이도 있다. 공식 언어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로 공식 언어의 수용을 거부한다. 하지만 공식 언어의 신봉자(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는 또 다른 교시, ‘혁명가는 초소를 가리지 않는다’를 근거로 그러한 이탈을 원천봉쇄한다. 공식 언어의 모순을 깨달은 사람은 순환 논리의 오류를 포착하고 불신하지만 공식 언어의 신봉자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공식 언어는 체제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만 수용되는 언어이다.

혁명 영화에서 느끼는 희열과 만족을 아내가 이해 못하는 것을 그는 자못 안타깝게 여긴다. 특히 김일성 초기혁명 활동을 그린 영화 「조선의 별」을 제일 좋아한다. 지적이고 멋들어진 대사, 아슬아슬한 고비를 임기응변으로 넘기는 영화 주인공들의 매혹적인 모습들은 경수의 간절한 우상이다. (정선화, 「사생아」, 150~151)

공식 언어는 방송차, 방송 선전차, 수령의 교시 형태 외에 영화로 전파되기도 한다. 위 인용문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영화가 쓰인 예를 보여준다. “김일성은 인쇄물과 라디오 선전선동 세대”라면 “김정일은 영화 매체 선전선동 세대”<sup>91)</sup>라고 구분지을 수 있을 만큼 선전선동은 매체의 발달에 맞춰 변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90) 이우영·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8, 122~123쪽.

91) 이경직, 같은 논문, 183쪽.

는 대체로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이 주체사상과 주체 문예이론을 영화분야에 독특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시켰다고 평가하는데 이 영화예술론은 1973년에 발표되었다<sup>92)</sup>.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조선의 별>은 1983년에 1~6부, 1988년에 7~10부가 만들어진, 영화예술론에 기반한 선전선동 영화이다. 인용문을 통해 볼 때, <조선의 별>에 형상화된 수령은 지적이고 멋들어진 언변, 뛰어난 임기응변술을 지닌 매혹적인 인물이다. 이것이 바로 영화 매체에서의 수령 형상의 공식 언어인 셈이다.

선전선동은 은혜-보답의 담론을 전파하고 수령을 우상으로 형상화한다. 인민의 삶을 통제하고 선전선동하는 공식 언어는 일상적·반복적·비예외적으로 끊임없이 생산·유통된다. 하지만 공식 언어의 진정한 소비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 현실과 괴리된 언어에 대한 인민들의 반감, 피로감, 무관심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공식 언어는 객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되어 순환 논리의 오류를 보이기 때문에 체제의 신봉자로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공식 언어의 진정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 3) 권력의 하수인에 의한 인민의 이중고

지주보다 마름이 무섭다는 말은 호가호위(狐假虎威)와 함께 특히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이 백성 위에 군림하며 위세를 부리는 것을 뜻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가 속의 국가 없음’의 상황으로 재현되고 있다. 국가 속에 있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국가 없음’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상 작품에서는 이러한 때에 권력의 하수인이 특히 기승을 부리며 공권력을 악용해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국가’에 구속되어 있는 인민의 이중고 상황을 보여 준다.

성진이는 리에서 유명한 이씨 가문의 장손이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부유한 집 아들이었다. 선생님은 한때 성진이 어머니를 통해 외화벌이로 상당한 돈을 번 적도 있었다.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고, 숙제를 해오지 않더라도 성진의 말에는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을 정도였다. 물론 성적도 항상 우수했다. 성진이의 성적은 성진이 부모님으로 인해 부

92) 이경직, 같은 논문, 184쪽.

유해진 담임선생님이 늘 책임져 줬기 때문이다. (남정연, 「지영이」, 210)

이 인용문을 보면 교원이 학부모를 통해 불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 대가로 교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없이 그 아이를 편애할 뿐 아니라 아이 성적까지 책임져 주고 있다. 공부를 따로 가르치는 것도 부당한 일인데 아이 성적이 좋도록 조작을 해줬다는 뉘앙스로 들리기까지 한다.

반면 가난한 지영이에 대한 교원의 태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엄마는 방광염과 좌골신경통으로 앓아눕고, 아빠는 최고지도자의 특각 공사에 차출되어 먼 길을 떠나자, 열세 살 지영이는 남동생과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다 6개월 만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학교에 간다. 그동안 왜 학교에 못 나왔느냐는 선생님의 물음에 아파서 못 나왔다고 간신히 대답하지만, 반장인 성진이는 지영이가 아팠던 게 아니라 나물 캐고 이삭 줍고 약초 캐느라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고자질한다. 선생님은 지금의 세상살이가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른이고, 자기 자신도 학부모를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벌이까지 했으면서 그는 어린 지영이가 생계를 위해 산으로 들로 나물과 약초를 캐고 이삭을 주우러 다녔다는 말에 연민을 느끼기는커녕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

“네 입으로 말해 봐. 내가 몇 대를 맞아야 용서 받을 수 있는지.”

지영이 눈에는 벌써 맑고 투명한 어린아이의 한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선생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음 순간, 땡 하는 소리가 머릿속 깊숙이 울렸다. 선생님은 지시봉을 거꾸로 들고 두꺼운 부분으로 사정없이 지영이 머리를 후려쳤다. 아프고, 아프고, 아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영이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어린 잡초같이 휘청거렸다. 그리고 선생님은 마치 정신병 환자 같았다. (남정연, 「지영이」, 211)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용서를 모르는 집요함, 정신병 환자 같은 부조리함은 그렇지 않아도 굶주려 어린 잡초같이 휘청거리는 인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가혹한 현실이 된다. 공권력의 횡포에 신음하는 힘없는 인민의 모습이 어린 지영이를 통해 알레고리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보우. 정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저기 있는 감자 종자도 되요. 시장 값으로 계산해

서.....알겠소? 내달에 낸다니까 그때 감자 종자를 사서 심던가.”

(중략)

“세상에, 이게 무슨, 지금 강제로 빼앗겠다는 겁니까? 당비서가 이래도 됩니까? 당은 어머니라면서요. 무슨 왜정 때도 아니고.....제정신입니까 지금? 어머니라면서 그렇담 자식이 굶는데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종자를 빼앗아요?”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 284)

북한에서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직장 이탈이 심화되자 직장 이탈 현상에 대해 당국은 처음에는 엄중한 태도로 대응했지만 인민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정은 기업소의 간부들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난 이후 원자재·에너지 부족으로 공장·기업소가 가동되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일정한 돈을 기업소에 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실정이 됐다. 직장이 있는 인민들은 장사할 시간을 받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8.3액이라고 한다. 이들이 납부한 ‘8.3액’은 공장·기업소의 국가기업 이익금으로 국가에 납부된다.<sup>93)</sup>

그런데 위 소설에서 직장 비서는 경심네 네 가족의 마지막 양식인 감자 종자를 8.3액 명분으로 빼앗듯이 가져간다. 8.3액을 내놓지 않으면 남편을 위협하기로 소문난 낙산강도건설에 내보낸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경심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나마 그 감자 종자는 국가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 비서 개인이 장마당에서 술을 바꿔 마시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국가 기강의 문란함이 극대화된다.

고등중학교 교사인 봄이 어머니가 장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에게 건넨 뇌물을 마련할 길이 없어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학교에 나가곤 했는데 아주 자리에 눕고 말았다. (윤양길, 『꽃망울』, 40)

이 인용문은 북한의 무상 의료가 옛말임을 사회 전반에 퍼진 뇌물 문화와 함께 언급한다. 뇌물을 쓰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주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제시된다. 무상 급식, 무상 의료는 더 이상 북한 사회에서 인민들이 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니다. 학교, 당의 말단 관리뿐 아니라 의료

93) 8.3액에 대해서는 「북한 시장 경제의 확대는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가(6) 배급제에 의한 인민통제의 약화 -내부영상 자료로 고찰한다-」 ([www.asiapress.org/korean](http://www.asiapress.org/korean))와 『북한인권포탈』([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사이트 「주민생활의 변화」(2017년 3월 7일 작성. 경로는 북한인권정보>북한주민생활>사회통제)를 참고하였다. (검색일: 2018년 1월 18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뇌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만연해 있고 이것은 결국 가난한 인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니, 남조선 것도 판다고?”

(중략)

“단속해도 뇌물이면 다 해결되니까요. 선생님은 모르셨어요?” (도명학, 「책 도둑」, 174)

‘단속해도 뇌물이면 다 해결이 되는 현실’은 바꿔 말하면 ‘뇌물을 받기 위해 단속하는 현실’이 된다. 공권력이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단속원들의 (시장에서는 때뚜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예의도 인정도 없이 막돼먹어 최대한 천한 별명으로 모욕주기 위해 만들어진 별명) 오만함은 도를 넘어 장에 나온 여성들에게 뇌물 대신 성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자들에게 쫓겨 다녀야 하는 길바닥 또아리 장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남편의 걱정이었다.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238)

파배기를 더 줄까 망설이는 찰나 옆에서 누가 “저기 때뚜 온다.”하고 비명을 질렀다. “때뚜”란 시당이나 보안서가 주민 통제를 위해 노동자들 속에서 선발해 조직한 “노동자 규찰대”를 폄하해 부르는 별명이다. 장사꾼들이 음식합지를 안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빠져 달아난다. (윤양길, 「꽃망울」, 44~45)

매대를 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길바닥 또아리 장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단속원을 때뚜라고 부르는데 예의도 인정도 없이 막돼먹은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때뚜는 보안원은 아니고, 보안서(경찰서)가 심부름으로 쓰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오면 ‘비명’을 질러 신호하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도망친다. 그만큼 그들이 지독하게 괴롭히기 때문이다. 때뚜는 뇌물만이 아니라 성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악독한 존재로 묘사된다.

“비사그루빠? 흥 이름 참 좋지. 비사회주의를 하는 자가 누군데?! 적만하잖이지. 이견 말이다 지영아. 도적이 거꾸로 주인을 잡는 격이란다. 울지 마라. 넌 그래도 당하진 않았잖니”

“예? 그럼 당한 사람이 또 있다는 소리예요?”

“있어도 많지. 중이 고기 맛 들이면 중독이 된다고 그놈이 권세를 믿고 얼마나 사람들을

깔랐으면 대낮에도 미성년을 다치려 할까? 리당에 벌써 수습 건이나 되는 강간미수사건이 제기됐으니 그놈 무사치는 못할 게다. 내일이면 일이 터질 거라, 그러니 넌 어서 집에 들어가. 괜히 혼자 나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남정연, 「겨울약속」, 199)

비사그루빠란 비사회주의 검열 그룹의 약칭으로 비사회주의적인 요소의 척결을 내세우며 당과 국가보위부, 인민 보안부 요원들로 구성하여 만든 감찰조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직되는 감찰기구이며 상설기구는 아니다. 소설에서는 이 용어가 북한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인 점을 고려해 ‘비사그루빠란 주민들을 상대로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조사차로 위에서 파견한 검열 성원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열여섯 살 지영이는 비사그루빠에게 불려 가 엄마의 탈북 사실을 추궁당하고 하마터면 강간까지 당할 뻔한다. 다행히 지영이가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쳤지만 내일이면 비사그루빠가 처벌당하리라는 아주머니의 예상은 빗나간다. 그 일이 있고 ‘나흘이 지나도록 마을은 예전과 다름없이 한없이 조용했다’고 묘사하면서 그들의 횡포에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한 공권력 횡포가 계속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힘없고 가난한 인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착취, 억압, 폭력, 감시, 통제,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와 뇌물문화는 소설에서 일상화된 현실로 그려지면서 인민들의 이중고 상황을 보여준다.

### III.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

#### 1. 결핍의 현실에 대한 인물의 대응 양상

경제적 현실은 대량 아사 사태를 수반한 고난의 행군, 이를 계기로 등장한 ‘장마당’ 경제, 배금주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의 심화 양상으로 드러나면서 소설에서 삶과 죽음,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파괴, 생존 본능, 그리고 윤리의 문제를 포함하는 실존 위기의 상황으로 확장, 재현된다. 북한의 경제적 현실의 요체는 가난이지만 가난은 단지 부(富)나 식량의 부족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설에서 북한의 경제 현실은 물질적, 심리적, 윤리적 결핍 상황을 망라하는 ‘결핍의 현실’로 형상화되고 있다.

대상 작품 분석을 통해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인물의 대응 양상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의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 혹은 거기에서 파생된 각종 현상으로 몽땅그리기보다는 각 유형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소설로 재현된 북한 현실의 실체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각 유형이 대응하는 현실 상황은 직관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인물의 대응 양상을 통해 역으로 인물이 인식하는 현실을 유추해야 할 때도 있다. 각 유형이 마주한 혹은 인식하는 현실 상황은 구체적으로 식량, 인정(人情), 윤리, 희망의 결핍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 장에서는 ①식량의 결핍과 ‘생존 추구’형, ②인정의 결핍과 ‘모성 추구’형, ③윤리의 결핍과 ‘육망 추구’형, ④희망의 결핍과 ‘국경 넘기’형의 현실대응 유형을 네 개의 절을 통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 1) 식량의 결핍과 ‘생존 추구’

‘생존 추구’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초래된 식량의 부족 상황에서 강한 생존 의지로 응전하는 인물 유형이다.

「소원」의 박명선, 「책 도둑」의 위원장 아내, 「어떤 여인의 자화상」의 심일옥, 「사생아」의 순옥, 「오두막집 안주인」의 경심은 국가 배급이 끊기고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현실에 처한 여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남편들은 부재하거나 모두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소원」의 박명선은 남편 없이 홀로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거지 여인이고, 위원장 아내, 심일옥, 순옥, 경심은 모두 남편이 있긴 하지만 생활력이 없다. 위원장은 책밖에 모르는 샌님이고 심일옥의 남편 광호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다. 순옥의 남편 경수는 혁명영화 속으로 도피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수렁 숭배자이고, 경심의 남편은 당비서가 마지막 양식인 감자 종자를 빼앗듯이 가져갔다는 얘기에다 분개할 줄 모르는 남자로 그려진다.

이 남자들은 모두 한때는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역전된 신분, 계급, 남녀의 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책 도둑」의 도작가동맹위원장은 젊어서 국어 교사를 하다 결혼 후 점점 문운이 트여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소설이 줄줄이 나오고 표창과 훈장, 선물이 잇따랐다. 아파트, 김정일이 하사한 컬러텔레비전, ‘김일성’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본산 자전거를 비롯한 갖가지 선물을 받았고 높은 월급에 원고료에 의식주 걱정을 모르고 살았다. 도작가동맹위원장이면 급행열차에 전용침대까지 가진 직책으로, 도에 전용침대를 가진 간부가 다섯 손가락 안팎인 걸 감안하면 대단한 자리다. 그런데 식량배급이 딱 끊기고 급기야 ‘고난의 행군’이 선포되자 작가라는 직업이 참으로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어떤 여인의 자화상」의 광호는 군복무 기간 중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어 제대한 영예군인이다. 심일옥이 ‘사랑과 의리, 양심’을 지키며 광호와 결혼하였을 때, 두 사람의 결혼은 텔레비전 특보로 방영되고, 인민군신문, 노동신문, 청년전위신문이 각각 “전선에 찾아온 아름다운 꽃”, “우리 당의 효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보도하지만, 국가의 실질적 지원이 끊기고 살기가 각박해지자 영예군인이라는 위엄 대신 무능력한 신체불구의 한 남자로 존재 위상이 역전된다.

반면 여자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 방도를 찾아 일어나는, 강한 생존 본능을 가

진 존재로 형상화된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 수완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남을 앞지를 수 있는 우악스러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양식을 꿀 생각은 못하고 먼 거리의 장에 나가 양재기 하나를 팔 생각을 하고(「오두막집 안주인」), 기껏해야 남편의 책을 몰래 팔거나(「책 도둑」) 원수에게 몸을 내주고 그 집 부익살림을 하는 것을 소원(「소원」)하는 게 전부다. 이들은 순대 썰던 칼로 때뚜들의 배를 콕 찌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이 장마당 인심의 모범생이 되었다는 비판적 자의식을 가진(「어떤 여인의 자화상」) 선량한 사람들, 남에게 잘도 속아 넘어가는(「책 도둑」) 어수룩한 사람들, 가족의 마지막 양식인 감자 종자를 빼앗기는(「오두막집 안주인」)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생존 추구는 때로 자존심, 정조 관념, 체면치레의 도전을 받는다. 「어떤 여인의 자화상」의 심일옥은 중등 교원이었다는 자존심, 영예군인의 아내라는 자존심, 간부 가정의 외동딸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장마당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일옥은 한여름인데도 눈만 내놓고 온통 얼굴을 가린 채로 앉아서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녀 자신도 속으로는 빨리 자존심을 버리고 남들처럼 ‘생존 싸움’을 벌이길 원하면서도 일옥은 그것이 ‘계급사회의 어떤 주의에서 다른 주의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꽃제비 소년이 강정 소래를 발로 밟고는 땅에 떨어진 강정을 주워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일옥은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방식임을 깨닫는다. “항간에서 꽃제비라 불리는 열 살 남짓한, 때에 찌들고 햇볕에 타 흑인 같은 아이”의 시선은 “땅에 떨어진 것인데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느냐는 당돌함”<sup>94)</sup>을 담고 있었다. 먹고 사는 일 앞에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운 자신이 오히려 창피해지는 순간이다.

다음 날 나는 위선의 너울을 벗어던졌다. 장마당의 못 여인들처럼 머리를 번쩍 쳐들고 누구보다 높은 목소리로 외쳐댔다.

“강정 사시오. 꿀 강정입니다.”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55)

94)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54쪽.

체면과 자존심을 상징하던 위선의 너울을 벗어던지고 일욕은 ‘적자생존을 위한 필사의 생활 전선’의 진정한 일원으로 거듭난다.

「오두막집 안주인」의 네 가족은 낮에 당비서가 감자 종자를 가져간 날 저녁부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힘없이 구들에 눕는다. 9년, 5년을 키운 자식들을 다 죽이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욕이 터져 나온다.

나쁜 년, 정신 빠진 년, 죽일 년, 쌍년, 천하에 몹쓸 년. 네가 어미라고?! 자식이 굶어죽게 된 마당에 정조요, 절개요, 자존심이니. 너두 참 지랄을 떨었지. 결국 얻은 게 이거야? 그깟 몸뚱이가 뭐라고? 풀죽도 못 먹는 주제에 정질은 개뿔!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 289)

일주일 전 기차역 대합실에서 잘 차려입은 남자가 일주일 정도만 집에서 밥을 해주면 천 원을 주겠노라고 제안했다. 천 원이면 입쌀 20kg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솔깃했지만 남자를 더 추궁하자 남자는 동침을 원했다. 경심은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큰 후회로 남는다. 자식들과 함께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니 정조와 자존심을 앞세워 ‘그런 기회’를 차버린 자신이 너무 우습고 한심해진 것이다.

「소원」의 박명선은 장애아를 둔 거지 여인이다. 아버지 박용칠은 5년 전 소도독질을 했는데, 중학교 동창인 우진 영감이 고발하여 총살을 당했다. 그 일로 박용칠의 온 식구가 한지에 나앉아 방랑하다 하나둘 죽어 나갔다. 그런 사연이 있음에도 박명선은 우진영감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사이 가출한 아내의 빈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영감에게 매달린다.

“내가 지금부터 아바일 잘 모시겠습니다. 밥도 잘하구, 내 아들이 더 이상 바깥바람 맞으면 며칠 못 가 죽을 겐다. 사정 좀 봐 줘 안 됩니까? 아 글구 아바이, 잡아들여오는 고기도 내가 장애 나가 믿이지 않게 팔겠습니다. 우릴 제발 내쫓지 마시요 예?” (김정애, 「소원」, 301)

“노친 생각이 나서 그러지예? 원래 배꾼들은 며칠씩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문 안카이 옷부터 벗긴다고 내 들었습다. 어찌겠습까, 내가 대신해 주겠습다. 중간 문을 걸었으니까 빨리 어찌 줍서. 내 아까 함지에 물 떠놓고 목욕까지 깨끗이 했습다. 우리 모자 그저 쫓아내지만 맙서. 날 부엌에만 앉혀 줍서, 예?” (김정애, 「소원」, 304)

명선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주며 쫓아내

지만 말아 달라고 사정한다. 거처 없이 콘크리트 관에서 자면서 장애 아이와 결식하며 다니는 명선에게는 원수에게 으레 향하게 되는 복수심이나 분노도 사치다. 이 절인 여자는 국가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자유로워 먹을 게 많은 남조선으로 못 가는 게 머저리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원한, 자존심, 당성, 애국충정도 먹고 산 다음의 일이라는 걸 거지 여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여자들이 선량함과 어수룩함과 약함을 뛰어넘어 자존심과 이데올로기마저 무력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강한 모성애임이 드러난다. 심일옥은 남편 광호를, 경심은 자식들을, 명선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원장 아내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 정조 관념, 체면을 버린다.

「오두막집 안주인」의 경심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경심은 식구들, 특히 어린 자식들을 굶겨 죽일까봐 걱정이 되어 자신은 죽지도 못한다. 빈민과 걱정 속에서 마라초만 피워대거나 체념하여 누워있는 남편과 달리 경심은 시집을 때 지참품으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보물처럼 아끼던 알루미늄 양재기를 먹을 것과 바꿔야겠다는 일념으로 죽을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웃집 은심 할머니가 경심의 형색을 보고 놀라 우선 먹으라며 꾸어준 강냉이 15kg를 초인적인 힘으로 집까지 지고 가서 강냉이가 든 배낭을 내려놓았을 때 남편과 두 아이는 경심은 안중에도 없고 배낭에 달려들어 허겁지겁 강냉이를 씹어 먹는다.

경심은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땅 밑으로 잦아드는 것을 어렵듯이 느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도 안다. 어젯밤 분명 꺾어봤으니까, 그러나 엇저녁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만족감이 차분히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경심은 느꼈다. 어젯밤엔 슬펐지만 지금은 행복했다. 이렇게 가도 식구들은 사니까, 아니 살렸으니까, 엄마가 돼 애들을 굶주림에서 꺼내주고 죽음에서 살렸다는 만족감이 가슴 그득히 차오른다. 이걸 느낌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다.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 298~299)

경심은 가족을 살렸다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강냉이를 먹는 식구들 모습을 끝까지 보려는 듯 눈을 뜬 채로 숨을 거둔다. 남편과 아이들은 경심이 죽은 것도 모르고 강냉이 먹는 데 열중하고 있다. 경심이 ‘초인적인 힘으로’ 강냉이를 지고

집에 와서 내려놓았을 때 아이들과 함께 강냉이를 주워 먹는 데 열중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그 또한 아이들처럼 모성애로 길러지는 존재임이 드러난다.

「영원한 순간」의 정수 아내는 이 작품에서 회상이라는 짧은 삽입서사에만 존재하므로 처음에 ‘생존 추구’형의 인물 예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회상 속 정수의 죽은 아내는 이 유형의 인물로 추정된다. 정수의 아내는 식량을 구하러 먼 곳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옥수수배낭을 메고 돌아오는 길에 트럭 사고로 죽는다. 그녀는 사고현장에 도착한 보안기관원에게 꼭 끌어안은 옥수수 배낭을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집주소를 알려주고는 눈을 감는다.

「어떤 여인의 자화상」의 광호 역시 심일옥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다. ‘위선의 너울’을 벗어던진 이후 일옥은 콩나물, 야채 장사에 이어 밀천이 많이 드는 순대 장사까지 하며 광호를 부양한다.

어떤 날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늦은 밤거리를 혼자 지키다가 남은 순대를 가지고 들어가면 남편은 많지 않은 걸 불쌍한 애들에게 주고 오지 그랬냐고 말했다. 나는 그런 애들이 가깝게 없었다고 말하지만 설사 있었다 해도 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야박한 장마당 인심의 모범생이었다.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55~56)

아내가 만들고 지키는 울타리 안에서 지금의 진짜 세상을 모르고 살고 있는 광호는 거리의 아이들의 불쌍함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개 쫓기듯 때뚜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순대 썰던 칼로 때뚜들의 배를 콕 찌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일옥이 ‘장마당 인심의 모범생’이 되어 다른 불쌍한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게 된 것과 대조적이다. 살인 충동까지 느끼면서 그날그날의 양식을 마련하는 일옥의 모성애가 없었다면 남편 광호의 ‘선한 마음’을 지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책 도둑」의 위원장은 생명과도 같았던 책을 잃어버리고 보름이나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더니 급기야 몸져눕고 말았다. 부인과 두 딸이 눈물을 흘리며 그만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나’와 친구는 사범대 국문과를 다니는 잘 아는 청년에게 부탁해 수소문한 끝에 그 책이 장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아낸다. 하지만 책 도둑은 다름 아닌 위원장의 아내였음이 밝혀진다.

“남편이 밥도 안 먹지 잠도 못 자지 보름이나 그러니 죽을까 봐 겁나 자수 한 거지. 들

어보니 그 책들을 팔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다 굶어죽었을 뻔했더군. 세상이 완전 개판 됐어. 에에, 더러워서 원!” (도명학, 『책 도둑』, 178)

모성애는 위기의 순간에 발현하여 그들 품 안에 든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곧 이 모성애가 ‘생존 추구’형의 원동력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인물은 모두 여자이고 이들의 남편들은 부재하거나 무능력한 것이 특징이다. 모성애가 본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이므로 이 인물들의 자식을 향한 모성애는 특이할 것이 없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남자들이 모성애의 수혜자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두막집 안주인』의 남편, 『영원한 순간』의 정수, 『어떤 여인의 자화상』의 광호, 『책 도둑』의 위원장은 모두 모성애로 길러지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정수는 평양에서 대학 교원이었고, 광호는 영예군인으로 존경받았다. 도작가동맹위원장은 급행열차에 전용침대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특권을 가진 남자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 존경과 특권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무능’과 ‘불구’로 드러나며 가족을 부양하던 부양자의 지위에서 여성의 보호를 받는 피부양자의 지위로 역전된다.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현실을 미화해 찬양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충성분자의 전형을 창조하느라 꼴불견이다. ‘당사상전선 전초병’이니 ‘최고사령부 종군작가’니 뭐니 하는 거추장스러운 감투 때문에 자본주의 방식인 장사도 하지 못해, ‘토지법’을 어긴다고 빼기 밭 개간도 못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사람들은 작가를 돈키호테라고 비웃었다. (도명학, 『책 도둑』, 167)

비단 위원장뿐 아니라 사회적 특권을 누리던 남자들이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 위선에 갇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동안 여자들이 생계 책임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인물 유형은 실제 북한 사회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강』 편집인 최진이 쓰는 북한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 있는 이들은 남성보다 일찍 시장경제에 눈떠 경제적 자립을 성취해가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라고 말하면서 북한 여성들을 스칼렛 오히라에 비유했다.<sup>95)</sup>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생을 위한 개방과 개혁을 미뤄 미증유의 아사 사태를 낳은 북한 체제를 미국 남북전쟁 후 폐허가

된 타라 농장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북한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스칼렛 오하라의 그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 유형의 인물을 형상화한 작품에서는 생활력 면에서 무능하고 현실 감각이 뒤떨어지는 존재로 그려지는 돈키호테 같은 남성과 스칼렛 오하라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여성들의 대비, 실존 문제 앞에서 관념의 허위를 깨닫고 더욱 강해지는 여자들, 길러지는 존재로 묘사되는 남자들이 포착되고 있다.

## 2) 인정(人情)의 결핍과 ‘모성 추구’

‘모성 추구’형은 경제적 궁핍으로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인심이 각박해진 북한의 현실을 재현한다. ‘생존 추구’형을 배가 고플 때 밥을 찾는 아이에 비유한다면, ‘모성 추구’형은 밥이 아니라 엄마를 찾는 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 모두 배고픈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모성 추구’형은 배고픔, 고독, 무질서와 혼돈의 실존 위기 상황에서 포만과 따듯함과 질서의 원천으로서의 어머니(모성애)를 먼저 찾는다는 점에서 ‘모성 추구’형이 인식하는 세계는 단순한 물질의 결핍 상황이 아니라 심리적 결핍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꽃망울」의 철이, 「잔혹한 선물」의 용일이, 「금덩이 이야기」의 윤철보 노인, 영수, 「인간의 향기」의 김문성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면서 보살핌, 인간적 유대감, 사랑, 조화와 질서의 결핍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모성 추구’형은 네 작품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성 모방을 통한 모성 추구, 사랑을 통한 모성 추구, 고향 회귀를 통한 모성 추구의 세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앞의 두 유형은 간략하게 제시하고 마지막 유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이 유형의 특징을 소개하도록 한다.

「꽃망울」의 철이, 「잔혹한 선물」의 용일이는 모성애를 모방함으로써 결핍된 모성애를 충족하는 인물들이다. 「꽃망울」의 철이, 「잔혹한 선물」의 용일은 고난의 행군 때 고아가 된 아이들이다. 그들 자신이 돌봄이 결핍된 아이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타인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결핍된 모성을 충족하고 있다.

---

95) 최진이 씨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 시인이었다가 지난 1998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하였다. 최진이 씨는 '립진강출판사'를 설립한 뒤 『입진강』을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편집자로 직접 활동하고 있다. 「최진이 탈북 시인 “스칼렛 오하라” 같은 녀성들이 북한의 희망」, 『여성신문』, 2012년 11월 23일.

살던 고장에서 도둑놈, 쓰리꾼 아이로 알려져 더 버티기 어려워지자 철이는 사는 형편이 괜찮다고 소문이 난 국경도시로 간다. 하지만 꽃제비들 텃새때문에 그들이 먼저 차지한 쓰레기장에서는 잠자리를 얻지 못하고 ‘공동묘지 산’이라고 불리는 야산을 안식처로 정한다.

철이는 어느 날 장마당에서 우연히 고향 동생 봄이를 만난다. 봄이도 장마당을 전전하며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주워 먹는 꽃제비 처지였는데, 철이는 타향에서 고향 동생 봄이를 보자 몹시 반가워한다. 철이는 우선 시장 입구 단골집에서 외상으로 파배기 세 개를 사서 봄이에게 주고는 자기는 먹지 않는다. 굶주린 사람이 남의 손에 쥐어진 음식을 빼앗는 것이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면 내 손에 들린 음식을 또 다른 굶주린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 역시 인간의 본성이다.<sup>96)</sup> 고향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멸시를 피해 타향으로 온 철이는 이번에는 다른 꽃제비들의 텃새때문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 그럭저럭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해도 어린 철이가 마주한 내면의 현실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그런 철이에게 봄이는 고향이며, 가족이고, 인간적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이다.

철이는 봄이가 심심치 않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윤양길, 『꽃망울』, 48)

봄이에게 이 구수한 꿀꿀이죽(꽃제비들은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 쑨 죽을 그렇게 부른다)을 먹일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흥겨워졌다. (윤양길, 『꽃망울』, 51)

철이는 꽃을 꺾으며 다짐했다. 꽃을 팔면 봄이의 고운 머리띠와 신발을 사야겠다고, 봄이를 기쁘게 해줄 또 다른 일이 없을까 궁리했다. (윤양길, 『꽃망울』, 55)

철이는 봄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재밌는 얘기를 재잘거리고, 자기가 먹을 소중한 음식을 봄이에게 먹일 기쁨에 취해있다. 철이는 봄이에게 사줄 선물 목록을 생각하면서도 또 봄이를 기쁘게 해줄 일이 없을까 궁리한다. 이 일련의 인용문을 통해 철이가 마치 엄마처럼 봄이의 의식주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이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결핍감을 역설적이게도 봄이의 어머니가 되어줌으로써 해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성 결핍감을 모성 모방을 통해 충족하고 있

96) 스미스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ish)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감정”인 “연민(pity)과 동정심(compassion)”을 예로 들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이기적인 자애(自愛)의 감정’과 ‘이타적인 자애(慈愛)의 감정’이 공존함을 주장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 박세일·민경국 옮김,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3쪽.

다고 할 수 있다.

“봄이야, 아침 먹자.”

“난 안 먹겠어.”

귀찮다는 듯 철이가 덮어준 누더기 상의를 머리에 뒤집어쓴다.

“어 잠꾸러기 동생, 내가 일으켜 줘야겠구나”

철이가 머리에 뒤집어쓴 누더기를 젖히고 안아 들었으나 봄이는 그래도 자야겠다는 듯 철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봄이를 안고 있기가 힘에 부쳤으나 내려놓고 싶진 않았다.  
(윤양길, 『꽃망울』, 51~52)

이 인용문은 이 아이들이 마치 엄마 역할 놀이를 하는 것처럼 엄마와 어린 자식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자식의 밥을 준비해 그것을 먹이려는 어머니와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고 일으켜 자식을 품에 안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평화로운 시절이었다면 철이와 봄이는 아마 그러한 아이다운 투정을 부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철이는 봄이를 안고 있기가 힘들면서도 자기 품에서 봄이를 떼어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치 엄마 품을 영원히 박탈당한 자신의 상처를 봄이에게 투사하여 다시는 엄마 품에서 자식을 떼어내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병원 문을 나선 철이는 죽은 봄이를 업고 찢어진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웅달샘이 있는 공동묘지 야산으로, 그들의 ‘집’으로 걸어갔다. (윤양길, 『꽃망울』, 57)

모성 상실의 상처가 모성 모방으로 인해 치유되면서 처음에는 ‘잠자리’로 호명되던 공동묘지 야산은 비로소 ‘집’이 된다. 집은 모성과 돌봄이 있는 공간, 상처가 치유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동묘지든 폐허든 사랑이 있는 곳은 집이 될 수 있다. 작가가 집이라는 단어에 인용부호를 단 것은 이러한 집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며칠 후 사람들은 오누이로 보이는 꽃제비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윤양길, 『꽃망울』, 57)

그렇기 때문에 봄이가 김일성 생일에 팔 꽃을 꺾으러 산에 갔다가 미나리로 오인하고 독초를 잘못 먹고 죽었을 때, 철이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다. 돌봄의 행위가 가능한 공간은 그곳이 공동묘지라 하더라도 ‘집’이 될 수 있다. 철이에게

봄이의 죽음은 또 한 번의 집의 파괴이며, 또 한 번의 모성의 상실이다. 모진 기아와 가난, 장마당에서 당하는 매질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어린 소년은 집과 모성의 재(再)상실을 견디지 못하고 봄이의 시신 곁에서 함께 삶을 놓아 버린다.

「잔혹한 선물」의 용일이는 무리한 야간 공사 도중 사망한다. 그의 유품은 허름한 군대 배낭과 나무로 된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다. 배낭엔 그의 현실을 말해주는 세면도구와 허름한 옷가지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었던 트렁크 안에는 그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 삶의 의미가 숨어있었다. 그 안에는 얇은 핑크빛 나일론 천과 양복 천, 그리고 수첩이 들어있었는데, 맞춤법이 틀리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용일이의 일기가 그것을 말해준다.

돌격대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누나가 정말 보기 싶다. 누나는 평양 돌격대서 배글치 안는지 모르겠다. 나도 배고프지만 누나라도 잘먹어야 되는데 그래두 평양은 먹이기 조금 나찌 안으까. 나는 누나가 보기 시프면 이러케 글으 쓴다. (중략) 그래두 나는 누나 시집가는 거 봤으면 조켓다. 누나가 평양 남자 친해 시집가문 조켓다. 근데 시집 갈 준비 아무거두 못해서 어뜨까. 그래서 내 압만 배고파두 뭐 사먹지안코 이래저래 돈 멩글어 누나 시집갈 때 해입을 한복천도 샅고 매부될 남자 양복감 한개도 사났다. 이 돌격대가 끝날때까지 버텨서 큰 선물 받으면 그거두 팔아서 또 누나 시집갈 준비 보태야지. 나는 힘들때마다 트렁크 열고 누나 옷감 보면 힘이난다..... (도명학, 「잔혹한 선물」, 188, 밑줄은 연구자)

나도 배고프지만 누나의 배고픔을 더 걱정하는 마음, 누나 시집갈 때 해 입힐 옷감을 준비하기 위해 당장의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는 마음은 자식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딸의 혼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연상시킨다.

처음에 용일이의 트렁크 안에서 나온 얇은 핑크빛 나일론 천과 양복 천을 본 사람들은 이런 걸 왜 장마당에 내다 팔아 주린 배를 채우지 않았을까 의아해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용일이는 오히려 이 옷감들을 보며 배고픔과 고된 노동과 추위를 견뎠던 것이다. 용일이는 모성 상실의 상처를 누나를 돌보는 모성 모방 행위를 통해 극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용일이가 트렁크 안에 돈과 양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보며 힘을 내는 행위는 가난과 고독이라는 심리적 결핍 상황을 헤쳐나가는 용일이 나름의 삶의 응전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향기」의 김문성은 동시에 언급될 다른 인물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위에 열거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기희생적 사랑을 하는데 김문성은 타인의 희생이 치러지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한다. 그는 파괴된 가정, 가난과 무질서의 현실에서 도피하여 질서정연하고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여인과의 사랑을 추구한다. 김문성은 곱사등이 한유진의 집에서 정갈함과 질서정연한 생활을 발견한다. 한때 아내와의 행복한 삶 속에 있었던 것이기에 그 방에 아내가 있다는 착각을 한다. 그가 ‘못 견디게 가지고 싶은 생활’, 하지만 ‘다시 가져 볼 확률은 거의 없는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다. 철이와 용일이가 자신이 빼앗긴 어머니의 품을, 타인을 자기 품에 끌어안고 돌봄으로써 되찾는 데 반해, 김문성은 어머니의 품을 연상시키는 따뜻한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향 회귀를 통해 삶의 감각을 회복하는 유형을 위의 유형보다는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한다. 「금덩이 이야기」의 영수는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천애 고아가 되어버린 후 삶의 희로애락에 무감각해져 버린 인물이다.

수용소에 들어와 같은 방을 쓰게 된 윤 노인은 영수에게 자기 집 부엌 바닥에 금덩이를 묻어 놨으니 혹시라도 수용소를 나가게 된다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금덩이를 찾으라는 말을 하고 며칠 후 죽는다. 노인이 죽고 이틀 후 기적처럼 영수가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자 영수는 윤 노인이 하늘나라에서 배푼 은혜라 생각하고 노인의 집을 찾아갈 결심을 한다.

명칭히 그런 생각을 하노라니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다. 영수에게도 한때 집이 있었다. 아빠 엄마도 있었고 동생, 누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없다. 몸쓸 세월이 싹 다 쓸어갔다. 혼자 남았다. 노인의 말처럼 이렇게 풀려났지만 갈 집도 반겨 줄 사람도 없었다. 죽었다 해도 울어 줄 사람도 없었다. 노인처럼 애태우며 기다려 줄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다. 근데 그것이 영수에겐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랐다. 가슴이 텅 아프니까. 어데 가서 활 죽어버려도 다른 사람의 눈물샘을 터트릴 일도 없으니까.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15~116)

영수는 노인의 고향집을 찾아가는 중에 생각에 잠긴다. 노인이 생전에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식구들을 애타게 그리워했는지, 그런 노인이 객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객사한 사람의 시신은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의 집과 식구들을 그리워하

기에 이른다. 마비되었던 삶의 감각 가운데 ‘그리움’이 제일 처음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기다려 줄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는 것이 다행한 일이라는 마음속 생각은 여전히 그의 생의 감각이 무뎠던 있음을 대변한다.

뼈가 앙상한 검정개 한 마리가 길 옆 썩은 거름더미에 코를 대고 쿵쿵 냄새를 맡다가 마을을 둘러보는 영수를 멍히 쳐다보았다. 질편한 눈곱이 더덕더덕 앉은 검정개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영수는 소스라쳤다. 비로소 그 여자, 은혜가 생각나서였다. 졸졸 강아지처럼 어디든 따라다니던 은혜였다. 노인 앞에서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다 했던 그 여자의 표상이 왜 지금 가슴 몽클하게 떠오르는지.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16)

영수가 검정개를 보고 은혜를 생각한 것은 은혜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 누렁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영수는 은혜가 지금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없어진 자신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지는 않는지 걱정한다. 그러면서 ‘난 생처음’ ‘타인의 안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영수는 쳐다보는 검정개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개가 꼬리를 흔든다. 피골이 상접했다. 혹, 불면 쓰러질 것 같이 앙상하기 그지없다. 대체 어디에 꼬리를 흔들 힘이 남아 있는지. 영수는 손을 내밀어 검정개의 이마를 쓸어주었다. 혀를 너털너털하며 개는 꼬리뿐이 아닌 소뿔처럼 뼈만 우뚝 솟은 엉덩이까지 마구 흔들었다. 검정개의 눈곱 낀 눈이 좁혀지며 환히 웃었다. 먹을 것보다 인정이 더 그리웠던 개냐? 영수는 개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두 손을 마주 비볐다.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18~119)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이 존중되었을 리 만무하다. 피골이 상접한 개의 몸골을 통해 고난의 행군 시기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수난 시대였음을 보여준다. 공동체의 의미를 인간 사회뿐 아니라 자연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영수는 ‘타인’을 걱정하고, 짐승을 공황히 여기는 감각을 회복하면서 존재하는 것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만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걸 깨닫는다.

마침내 영수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집의 형상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노인의 아내 한상녀의 괴이한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논판에 세운 오랜 허수아비”, “빈 허울뿐인 사람 아닌 사람”, “움푹 들어간 눈”, “자글자글한 주름을 뚫고 솟아오른 검은 흙빛의 광대뼈”, “깊고 덧기운 남루한 옷”, “이가 다 빠져버린 홀쭉한 볼”, “사람 얼굴이 아닌 어떤 초상” 같은 존재 앞에서 영수는 큰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은 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으

로 들어갔을 때 심화된다. 산 사람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없는 노파가 거주하는 곳은 바로 ‘저승’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칙칙한 방 안이 영수의 눈길을 단번에 집어삼켰다.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비릿한 냄새까지 섞여 숨쉬기도 괴로웠다. 마치 세상을 벗어난 저승같이 음침했다.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21)

영수는 남편의 소식을 묻는 여자의 물음에 대답 대신 눈물만 쏟는다. “이때껏 어떤 슬픔 앞에서도 눈물을 몰랐”던 그다. 그동안 “괴이하고 슬픈 죽음들을 많이 보았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한다. 영수는 남편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서 산 채로 죽어있는 존재자의 신비한 현존을 경험하고 드디어 그 존재의 울림에 공명하는 것이다. 고난의 시대가 닥쳐와 식구와 집을 다 잃고 홀로 세계에 내던져져 삶에 무감각해진 채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았던 그는 드디어 삶의 감각을 완전히 회복한다.

영수는 검은 띠를 두른 사진 속의 네 사람 가운데서 뜻밖에도 은혜를 발견한다. 은혜의 죽음을 확인한 영수는 짙은 눈물을 쏟는다. “달랠 수 없는 아픔이 온 육신을 감”싸는 걸 느낀다. 윤철보 노인에게는 따라다닌 여자는 있었지만 좋은 추억은 없었다고 심드렁하게 말했지만 이제 그 여자의 죽음을 직접 확인한 순간 영수는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통증이 육신 전체를 감싸는 고통을 느낀다. 영수는 그리움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인의 안부에 신경쓰고, 타인의 존재에 감동하면서 완전히 삶의 감각을 회복한 후에야 사랑을 깨닫고, 타인의 부재에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거듭난다. 삶의 감각을 회복하면서 생존만이 최고 관심사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영수는 마침내 한상녀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기를 원한다.

영수가 찾아온 집이 바로 은혜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영수는 “제상 앞에 엎드린 앙상한 검불 같은” 노파를 일으키며 죽지 말라고, 밥을 빌어서라도 굶기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치며, 급한 마음에 윤철보 노인이 부엌 바닥에 금덩이를 물어 왔다 했으니 살 방도가 있을 거라고 부르짖는다. 영수의 관심은 더이상 금덩이에 있지 않았고 오직 노파를 살리려는 급한 마음에 금덩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금덩이 이야기를 듣고 노파가 살 희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노파는 이미 금덩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다.

노파의 얼굴이 환하게 퍼졌다. 행복한 모습이였다. 그때만큼은 고목 같은 모습이 새순을 뽑아내는 거목같이 우아하게 보였다. 말을 잇는 입술까지 붉게 상기된다.

“이보우 젊은이, 그 부엌 바닥에 있다는 금덩이가 바로 나라네. 알겠수? 저녁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면 영감은 늘 날 보고 금덩이라 추어줬거든. 으으윽.”

(중략)

“그, 그으때가 지 진짜루 좋았는데, 저, 저영말 그, 그으때가 그, 그림네, 이.”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24)

윤철보 노인이 죽기 사흘 전 자신의 집을 찾아가 보라고 하면서 그는 특히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때 노인이 부엌이라는 장소와 관련하여 했던 말은 가마와 불 지피기이다. 가마는 부뚜막에 걸린 솥이고, 불 지피기는 아궁이의 기능이다. 부뚜막은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쌓아 만든 곳이고 그 위에 가마를 걸게 되어 있으므로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낱말은 아궁이다.

“(전략) 손 씻고 상에 앉으면 신문질 내리고 가마에서 김이 문문 나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잡아 꺼내고는 아 따가, 하고 덴집해 컷불을 쥐면서도 마누라는 날 보고 활짝 웃었어. 허허허.”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09)

“(전략) 마누라와 사는 내내 난 한 번도 부엌에 내려가 불을 지피 본 적이 없었다네. 마누라가 다 했으니까, 마누라가 덤혀준 따뜻한 온돌에 등을 대고 난 장밤 달게 잤지. 아침에 일 나갈 때면 온몸이 날아갈 듯 거뜬했어. 아참, 좋은 때였어. (후략)”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10)

하이데거에 의하면 아궁이는 고향적 존재의 장소들이다. 아궁이는 불을 통해 향존하는 근거이며, 규정하는 중심이다. 그것은 모든 장소들의 장소이고, 전적으로 고향의 장소이며, 이 안에서 모든 것은 나란히, 함께 현존한다.<sup>97)</sup>

노인에게 아궁이는 고향의 장소, 전 존재의 중심이고 대지였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아내의 상징인 부엌 바닥 역시 고향적 존재이고, 모성이며 거주지 터전이었다. 노인에게 부엌 바닥(혹은 아궁이)은 김이 문문 나는 국, 따뜻한 온돌, 만족과 단잠의 원천이며, 살점 같은 두 딸을 잉태하고 길러낸 자궁이고, 집을 지

97) Martin Heidegger, 『Hölderlins Hyme 'Der Ister'(SS, 1942)』, Frankfurt a.M., 1983, 130쪽. ; 강학순, 『존재와 공간-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한길사, 2011, 419쪽에서 재인용.

탱하는 기둥, 안식할 수 있는 어머니의 품이었다. 윤철보 노인이 풍요롭고 질서 정연했던 과거의 행복이 깃든 고향 집과 ‘모성애’의 근원으로 상징되는 아내를 동일시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집을 떠나있는 노인도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노파도 부엌 바닥을 애기할 때 모두 ‘그때’, 즉 아궁이에서 불이 꺼지지 않던 때를 떠올리며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궁이를 포함한 부엌 바닥이라는 장소는 ‘김이 문문 나는 국그릇을 받던 때’, ‘마누라가 덥혀준 따뜻한 온돌에 등을 대고 장밤 달게 자던 때’, ‘마누라가 부엌에서 불을 지피던 때’,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면 영감이 나에게 금덩이라고 주어주던 때’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단단히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친숙한 세계, 즉 특정한 ‘어디’라는 공간적 장소 안에 그리고 시간 내적으로 ‘언제’ 머문다는 것을 의미<sup>98)</sup>하기 때문에 아궁이(혹은 부엌 바닥)의 장소성 안에는 그 장소가 품는 시간적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뜻함, 풍요, 만족, 안식을 느끼던 장소의 시간적 의미는 고향, 대지, 존재의 중심, 어머니라는 장소성을 함께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종합하면 철이, 용일이, 윤 노인, 영수, 김문성은 각각 봄이, 누나, 아내, 은혜, 곱사등이 한유진을 돌보거나 그들에게 돌봄을 받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모성 추구형이 모두 남성 인물로 그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작품이 모두 남성 작가에 의해 창작된 것도 단순한 우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생존 추구’형에서 남성은 모성애로 길러지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바로 그 존재들이 배고픔의 상황에서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원천으로서 어머니를 찾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 3) 윤리의 결핍과 ‘욕망 추구’

‘욕망 추구’형 인물은 고난의 행군, 기아와 탈북사태, 장마당의 등장 등 일련의 극적인 경제적 격변을 거치면서 북한 사회에 만연하게 된 배금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기존 가치관의 전복 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은 실존 불안 속에서의 강박적인 생존 욕망이다. 이들은 생명 유지 이상

98) 강학순, 앞의 책, 32쪽.

의 생존 욕망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며, 이 욕망의 실현을 위해 윤리적 가치들을 기꺼이 희생시킨다.

욕망 추구형 인물은 장마당 세대의 극단적 전형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 등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들을 혁명 1세대”로 칭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후 세대 구분에 2세대, 3세대 등을 붙이고 있다. “2세대는 전후 북구와 천리마 운동을 주도하며 성장한 세대”이며, “3세대는 1970~1980년대 김정일이 주도한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주도”한 세대이다. “4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뒷받침하는 세대”<sup>99)</sup>로서 ‘장마당 세대’라고도 불린다. ‘장마당 세대’라는 명칭은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한국의 학자, 언론인들이 북한의 두드러진 사회 변화를 반영해 만든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기아를 체험하고,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자기 생활을 책임지게 된 이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이다. 장마당 세대는 대체로 1990년대에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로서 이전 세대가 경험한 사회주의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배급제 등에 대한 경험이 희박하거나 없고,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를 직접 겪고 목격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최악의 식량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 생존에 대한 집착과 불안 심리,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염세적 감정, 생존 앞에서 급격한 가치 변화에 대한 혼돈감으로 구성된 독특한 세대적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sup>100)</sup> 이것은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장마당 세대 자체가 북한의 특수한 경제 현실, ‘최악의 식량난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으로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욕망 추구’형은 생존의 불안 속에서 탄생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설송아는 「진육이」와 「제대군인」 두 편에서 이러한 장마당 세대의 극단적 전

99) 정창현은 “통상 ‘30년=한 세대’라는 기준으로 세대가 나뉘기보다는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변화에 따라 나누는 게 북의 세대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하였다.(572쪽) 4세대는 “‘고난의 행군 세대’, ‘피눈물의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574쪽)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북한의 당·국가기구·군』,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7, 인용 쪽수는 괄호 참조.

100) 김성경은 감정과 의지의 영역의 총체로서의 ‘마음’이라는 김홍중의 개념을 차용하며 세대만이 공유하는 특정한 정체성을 세대적 ‘마음’이라는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5, 12~13쪽.

형을 창조하고 있다. 스토리 상에서 「진옥이」의 진옥이는 29세, 「제대군인」의 철혁은 28세이다. 노동자의 딸인 진옥은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어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반면 철혁은 출신성분과 수완이 좋은 아버지 덕에 사회주의 지주라고 불릴 만큼 부잣집에서 살았고 아버지 뇌물 덕에 군대 10년 복무 기간 중에도 굶주림이나 추위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굶주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의 유무는 이들의 현실대응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제대군인」의 철혁은 막 제대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사리원-나진 완행열차에 탄다. 그는 ‘보름 만에’ 열차가 역 구내로 들어섰을 때 ‘최악의 극치’라 할 수 있는 혼란을 목격한다. 사람 떼가 달려들어 열차에 타려고 하면서 서로 밀치고 험악한 고성이가 오간다. 어떤 ‘센스 있는’ 여자는 간부용 침대칸 창문을 두드리며 담배로 유혹하여 열차를 타는 데 성공한다. 그 와중에 사람이 깔려 밟혀 죽을 판인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 이러한 아수라장의 상황을 보면서 철혁은 ‘이것들이 인간인가?’ 하고 반문한다. 철혁은 깔려있는 여자를 구해주고, 그러는 중에 여자의 돈 전대도 철혁의 가방도 소매치기당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철혁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생소한 광경’이었다.

집에 가서야 철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죽음의 전말을 듣게 된다. 아버지는 초겨울 밤에 자전거를 타고 철교 밑을 지나가다 철교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크게 다쳤다. 철교 위에 잠복해 있다가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나가면 돌을 떨어뜨려 죽이고 자전거를 뺏는 일이 빈번했는데, 철혁의 아버지가 그렇게 당한 것이다. 이후 병원비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자고 결심해 아버지는 쥐약을 먹고 혼자 고통스럽게 죽었다.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시집간 누이들까지 온 식구가 매달려 두부를 만들어 팔아보지만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고 급기야 어머니의 아사(餓死) 후 처음 열차에서 보였던 철혁의 청년다운 정의감과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돌변한다.

‘돈.....돈.....’ 갑자기 돈이라는 악에 반친 말이 나왔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중략) 그 무엇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는데 그것을 잡았다가 거진 놓칠까 싶으면 그는 다시 돈이라고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돈벌이가 무엇인지 안타깝게 궁리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강도라도 되고 싶다. 어떻게..... (설송아, 「제대군인」, 355)

‘지금 같은 세상에 굶어 죽으면 벌레인 거야.’ (설송아, 『제대군인』, 358)

기껏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 성(性)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이 밟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험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며 ‘이것들이 인간인가?’하고 반문하던 철혁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강도라도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아버규환의 열차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인간이라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평남도 건설건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화학공장 설계실 사도공으로 일을 시작한 진옥이를 간부 과장이 범하고 내연관계를 가지면서 노동자인 진옥이 아버지를 경리과 창고장으로 조동할 때가 1990년대 말이다. 밥 한 번 실컷 먹는 게 소원인 사람들은 쉬쉬하며 뒷말을 하면서도 살림이 펴기 시작하는 진옥이네 집을 부러워했다.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던 철혁과 달리 노동자의 딸로 1990년대의 굶주림을 체험한 진옥은 훨씬 자연스럽게 권력과 돈의 힘에 기댈 줄 알았다. 스물네 살이 되었을 때 진옥이는 얌전하고 소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세련되고 요염하게 변해 있었다. 그런 진옥이를 ‘전망 있는 발판’으로 여긴, 역시 장마당 세대임이 분명한 총각들이 줄을 섰다.<sup>101)</sup> 하지만 간부 과장은 진옥이를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며 이제는 며느리가 된 진옥이와의 내연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

진옥이의 행위가 간부라는 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이유도 없지 않았겠지만 간부 과장과의 내연 관계의 지속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일종의 거래로서 설명될 수 있다.<sup>102)</sup>

“시집에 매달리지 마라. 이젠 네 살 구멍 찾아야지.....시아버지도 내년이면 퇴직이야.”

“퇴직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옥이는 퇴직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이제는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돼. 시아버지 퇴직하면 뭐 먹고 살겠어?”

그제야 퇴직하면 돈줄이 끊긴다는 것을 진옥이 깨달았다. 퇴직한 시아버지가 무슨 필요

101) 철혁 역시 누이들이 착한 중학교 교사와 선 한 번 보라는 말에 “누이. 착한 게 밥 벌어 먹이겠어요. 능력이 있어야지.....”라고 응수하고 있다. 설송아, 『제대군인』, 359쪽.

102) 「어떤 여인의 자화상」에서 심일옥은 리 당 비서와 내연 관계를 갖는다. 처음에는 당 비서의 강간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심일옥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경제적 필요에 의해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가 있는지 처음 직감하게 됐다. 뭔가 허무해지는 감정이다. (설송아, 「진옥이」, 227)

위 인용문을 통해 진옥이에게 시아버지는 ‘돈줄’ 이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돈을 벌지 못하는 시아버지는 진옥이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돈줄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생각하게 된 진옥이는 친정아버지가 장사 밑천으로 준 쌀 한 톤 살 수 있는 돈<sup>103)</sup>을 갖고 어떤 장사를 해야 큰돈을 벌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한다.

강도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다지는 철혁의 비양심적 결단과 시아버지와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경제적 원조를 받는 진옥이의 패륜적 행위는 이미 이들이 윤리와 도덕과는 거리가 먼 삶의 길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도덕, 규범, 이념 등 사회적 삶이 거세된 채 생물학적 생존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sup>104)</sup> 장마당 세대의 극단적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옥은 처음에 약장사를 하였다. 집에서 알약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도 괜찮은 돈벌이였다. 약장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씩 ‘가짜 약’이라는 시비가 붙어 뭉텅이 돈이 날아가기도 했다는 것을 볼 때, 합법한 장사는 아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장마당에서 기름 장사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진옥은 강한 ‘질투’를 느낀다.

알지도 못하는 기름장사꾼에게 갑자기 질투가 났다. 자기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아줌마가 때 묻은 빨간 돈 가방을 배꼽 아래 차고는 돈뭉치를 계속 밀어 넣는다. 도적맞은 기분이 들었다. (설송아, 「진옥이」, 230)

진옥이가 알지도 못하는 기름장사꾼에게 느낀 질투는 철혁이 과부 화순의 집에서 느끼는 질투와 성질이 비슷하다.

부자 같은 마나님 집을 누이들이 구경하고 있을 때 철혁의 마음 구석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무엇이려고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불공평한 시대가 누구에게는 행운을 준다는 사실과 그것을 잡지 못한 질투 같은 감정이었다. (설송아, 「제대군인」, 363)

남이 나보다 더 벌고 있다는 데서 오는 질투심, 내 것이되었을 수도 있는 돈을

103) 이 소설에 나오는 쌀 1kg의 금전 가치는 5,000원이다. “진옥의 태아는 여덟 달이니 쌀 이십 킬로그램 가격 십만 원과 태아 물어주는 가격 삼만 원이면 십삼만 원이다.”(250쪽)에서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환산하며 쌀 1톤이면 북한 돈으로 5백 만원의 가치이다.

104) 김성경, 같은 논문, 14쪽.

남한테 도적맞았다는 분함, 불공평한 시대에 남한테 행운을 빼앗겼다는 열패감, 그 행운을 잡고 싶다는 욕망이 이들의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이 포착된다.

진옥이가 기름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자 그렇지않아도 약장사도 집어치우고 집에서 재봉틀을 돌리거나 그것도 싫으면 장마당 매대에서 공업품 장사를 하라던 남편은 여자가 무슨 기름 장사냐고 성을 낸다. 생활에 보탬도 안 되면서 ‘공장출근은 만가동’인 남편은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고지식한 사람이다. 이미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진옥이에게 그러한 남편의 의견이 먹힐 리 없다.

비법만이 돈이 된다는 세상 묘리부터 머리가 튼 여자에게 남편의 말은 무식한 자의 언어로 들렸다. (설송아, 「진옥이」, 232)

진옥은 연유공급소에서 몰래 기름을 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이곳에서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 과감하게도 시아버지를 이용한다. 돈을 벌고부터는 시아버지의 일방적인 성관계를 거절하였던 진옥이다. 이제 보기만 해도 싫은 ‘늙은 남자’지만 연유공급소 소장에게 접근해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늙은 남자’의 인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옥은 늙은 남자와 오늘 멋있게 섹스를 해야 한다고 타산했다. 섹스가 돈과 권력보다 힘이 있다는 원리를 터득했고, 실제로 그 능력에 스스로도 놀랄 뿐이다. (설송아, 「진옥이」, 234)

한편 「제대군인」 철혁의 큰돈 사업은 배터리 절도부터 시작된다. 열차 안에서 군복 입은 자신을 무서워하던 승객들을 떠올리며 철혁은 이 세월에는 군복이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것이라 믿고 군복을 입고는 과감하게 정차해있는 트럭에서 배터리를 훔친다. 자신이 차 수리공으로 배치된 운수 직장에는 배터리를 외상을 주고 사 왔다고 속이고 배터리 가격으로 백 킬로그램의 쌀을 받는다. 도둑질로 쌀을 얻은 철혁은 죄의식은커녕 승리감에 도취된다.

철혁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훔겨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새로운 삶이었다. 죄의식보다는 떳떳함이라는 버젓함이 삶의 가치를 만들고 있었다. (설송아, 「제대군인」, 358~359)

이러한 둔감한 죄의식은 진옥이에게서도 발견된다. 진옥은 시아버지뿐 아니라 여러 남자와 필요에 의해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성이 가지

는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남편에게 죄의식 같은 건 없었다. 점차 장사 발판이 넓어질수록 진옥은 성이 가지는 힘을 발견하며 세상 이치를 배워갈 뿐이다. 필요한 남자에게 한 번쯤 미소를 던지면 누구든 걸려들어 진옥이 손발이 되어주었다. 기름장사가 비사회주의라는 항목에 단속되어 보안서에 가서도 섹스 한 번을 봉사해주었더니 보안원도 기름장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설송아, 「제대군인」, 237)

「진옥이」에는 이 세월을 이용해 비법(非法) 낙태 수술로 ‘황금의 소나기’를 맞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정임 선생이 등장한다. 산부인과 의사 30년 경력의 정임 선생은 퇴근 후 병원 바로 옆의 자기 집에서 낙태수술을 하며 돈을 번다. 그런데 그녀가 집으로 찾아오는 여자들의 피임, 중절, 낙태 수술을 해주면서도 그녀는 자신들의 행위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진옥이, 철혁과는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약간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정책의 모순 속에 정의를 따지려면 정임 선생 역시 굶어죽기는 시간문제다. 이렇게 애원하는 환자들 덕에 돈벌이가 되고 현대판 부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중략) 세월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불합리한 연결고리에 의사인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 약간 심기가 불편하였다. (설송아, 「진옥이」, 243)

정임 선생이 의사 경력 30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그녀가 50대 중후반의 혁명 3세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법(非法)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완가라는 점에서는 외형상 같다 할지라도 장마당 세대의 전 세대인 정임 선생의 ‘불편한’ 자의식은 장마당 세대의 극단적 전형인 진옥이, 철혁이의 ‘떳떳한’ 자의식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철혁은 친구들 중 군에서 최상의 훈련을 받은 경보 출신 두 명을 선발해 군복을 입고 열차 화통이나 자동차 물품을 도난하는 등 조직적으로 좀더 과감한 절도를 벌이기 시작한다. 선군시대<sup>105)</sup>를 이용하여 철혁은 일 년 동안 막대한 돈을 모은다.

진옥이 역시 집 앞 창고를 개조해 기름장사를 시작한 지 일 년 만에 ‘놀랄 정

105) 선군정치는 1995년 초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과 함께 북한의 핵심적 통치방식으로 정착하였다. 선군정치는 군의 영향력을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 투영시키고 있다. 「선군정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검색일: 2018년 4월 30일)

도'의 돈을 번다. 「진옥이」의 시간적 배경이 2000년대 중반 즈음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가 들어선 지 겨우 10여 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장마당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옥이가 점차 '야성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옥은 점점 야성적으로 변했다. 기름이 잘 팔리지 않을 때는 작달뱅이 아줌마 탓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덤벼들어 머리칼 한 줌을 뽑아놓고야 분을 삭혔다. 악발이로 변한 진옥에게 작달뱅이 아줌마는 더 이상 덤비지 않았다. (설송아, 「진옥이」, 235~236)

먼저 기름장사를 하던 아줌마가 가끔 시비를 걸면 진옥이도 지지 않고 같이 머리끄덩이를 쥐고 싸움을 한다.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그 아줌마 탓이라고 생각해 먼저 덤벼들어 머리칼 한 줌을 뽑아야 분이 삭는다. 판 기름집에서 담배 한 갑을 서비스하면 진옥은 한 수 더 떠 본가 집을 냉면집으로 만들어 대접하기 시작한다. 남자를 자극하는 살짝 패인 옷을 입어 동업자들의 험담에도 오르지만 진옥은 개의치 않는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장마당에 이식된 시장경제의 치열한 경쟁 원리는 진옥이의 '야성화'를 통해 적나라하게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한창 돈벌이가 잘 될 때 진옥은 '재수 없이' 임신을 한다.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도 강박적으로 피임을 해오던 진옥은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암에 걸린 환자보다 더' 화가 난다. 낙태를 하러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태아가 팔 주가 넘어 소파 수술 시기가 지났다. 누구의 아이일까,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임신 팔 개월 되었을 때 진옥은 낙태를 결심하고 정임 선생을 찾아간다.

“장마당에 터를 좀 잡은 다음 아이를 낳고 싶어요. 기름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창 잘 되고 있어요. 터를 잡기도 전에 아일 낳으면 그 장사 누가 해요. 아이 낳느라구 선수 다 놓치면 꽃제비가 따로 있나요. (생략)” (설송아, 「진옥이」, 242)

위 인용문은 진옥이가 시장경제의 생태를 얼마나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치열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장마당에서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은 적자생존의 야생 상태와 비견될 수 있고, 진옥의 야성화가 정당화된다. 진옥의 야성은 낙태 장면에서 다시 화두가 된다. 진옥은 정임 선생 집에서 산대(産臺)로 쓰는 큼직한 밥상에 올라갔다가 태아가 발을 차는 것을 느끼고는 '그만둘까'하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다가 삼십 분 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밥상에 오른다.

엄마가 되려는 본능을 죽이고 돈을 번다고 자기를 영웅화시키지만 뱃속의 태아를 죽이는 산대에 올라서는 다시 인간 본능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다시 깨닫는 순간 북한 여성들은 다시 야성으로 변한다. 오직 돈을 벌어야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설송아, 「진옥이」, 244)

자유간접문체를 이용해 정임선생의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이다.<sup>106)</sup> 정임 선생은 진옥이의 낙태를 ‘돈을 벌어야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임 선생은 진옥이가 모성 본능, 도덕적 본성,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생존 본능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진옥이의 야성화를 치열한 경쟁 원리가 들어선 북한사회의 생태적 모순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하였듯이 서술자는 정임 선생의 목소리를 빌려 생존본능이 모성본능이나 윤리 본성보다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북한 여성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진옥이가 단지 생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치부(致富)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이 서술이 타당한 가라는 의문이 제시되는 지점이다.

II장 1절 3항 ‘적자생존의 실존 불안’에서, 식량부족 문제로 야기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사회 혼란이 장마당의 확대와 더불어 배금주의 가치관의 우세화로 이어지고 이로써 성과 사랑, 생명이 돈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연쇄적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소설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타락마저 생존 본능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진옥이의 야성화에 대한 합리화는 바로 이러한 문제적인 지점에 있다. 결국 이 문제의 지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행군은 끝났지만 그 기억이 각인된 세대는 여전히 실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안은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생존 욕망’의 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욕망 추구’형 인물이 진옥, 철혁, 화순, 정임 등 ‘현대판 부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루별이 인생’의 욕망추구는 승자의 그것보다 훨씬 소박하지만

106) “문법적 3인칭을 유지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복화술처럼 말하는 서술자 목소리의 유동적인 적용”을 자유간접문체 또는 자유간접담화라고 부른다. (H. 포터 에벗, 같은 책, 153~155쪽.) 「진옥이」는 3인칭 외부 서술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작품이지만, 위 인용문은 정임 선생의 생각을 인용부호나 “그녀는 생각하였다”라는 지시문 없이 서술하고 있다. 만약 위 인용문이 서술자의 목소리로 서술되었다면 ‘북한 여성들은 다시 야성으로 변한다’라는 서술이 되어 너무 주관적이고 웅변적으로 들릴 수 있다. 많은 북한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해온 정임 선생 목소리로 진술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름의 진지함을 갖는다. 그 진지함 때문에 이야기는 풍자와 해학이 된다. 도명학은 「재수 없는 날」에서 장마당의 하류 인생들의 삶을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가진 게 힘밖에 없는 창수는 아무거나 배만 채워주면 소처럼 일한다. 중학교밖에 안 나온 창수와 달리 과부 금옥은 한때는 연구소에 다녔던 엘리트다. 엘리트 지식인답게 금옥은 자본(구루마)을 대고 창수의 노동을 이용해 계산역에서 구루마꾼일을 시작한다. 금옥은 역에서 손님을 잡고, 창수는 소처럼 구루마를 끄는 분업 체계이다. 금옥은 여자라서 힘의 경쟁에서 밀리고, 창수는 구루마를 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맺어진 계약이다. 역시 노동보다 자본의 힘이 세다. 번 돈을 금옥이 7할, 창수는 3할을 갖는 ‘불평등 조약’을 창수는 ‘무산 계급의 설움’이러니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옥이 구루마는 ‘7대 3 구루마’라는 별명이 붙는다. 불평등 조약에 대한 야유다. 그래도 창수는 이 구루마 덕에 자기와 가족의 국숫값을 벌 수 있어 ‘피착취계급의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금옥이 역시 자기의 ‘노동력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자기 덕에 창수가 먹고 산다고 생각했다. 대학시절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잉여가치법칙’을 시험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 거야, 뭐 날더러 ‘7대 3 과부’라고? 웃기지들 마라, 금옥은 사회주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만큼 멀리 지나간 것만 같았다. (도명학, 「재수 없는 날」, 181)

엄연한 사회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자력으로 생계를 이어야 하는 북한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는 자본주의의 그것이다. 금옥 역시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자본주의 세월을 이용해 ‘피착취 계급’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생계를 잇는다는 점에서 진옥이의 현실대응과 비슷하다. 하지만 금옥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사회의 강자로 부상하기에는 영악함이 부족하다. 금옥은 구루마꾼들의 손님 잡기 경쟁에서 밀린다. 남자 구루마꾼의 한 짐 분량의 일을 가로챘다가 주먹으로 맞아 눈두덩이가 멍들어 며칠 장사를 못하게 된다.

창수는 창수대로 ‘둔한 머리’를 굴린다. 금옥이 없는 동안 꼼짝없이 굶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금옥이가 창수 혼자 벌어들여 구루마를 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밤새 고민한 끝에 창수는 구루마만 빌려주면 자기가 벌어들여 5대 5로 나누자

고 제안할 결심을 하고 금옥을 찾아간다.

나 혼자 얼마 벌었는지 알 게 뭐야. 벌면 적당히 뜯어먹고 확실히 아지미가 없으니 짐  
붙들기 어렵더라, 아지미가 빨리 나아야 나도 많이 벌지, 하면서 나머지 돈을 반씩 나누  
는 거다. 얼굴 문지를 생달갈도 한 알 사다주면서 말이야. (도명학, 「재수 없는 날」, 184)

창수 판에는 영악한 꿈수를 부린다고 밤새 고민한 결과가 고작 국수 몇 타래  
값 슬쩍하는 것이다. 진옥이와 철혁의 과감한 패륜 행위, 비법 행위에 비하면 아  
이들의 귀여운 장난 수준이다. 그나마도 창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져 전전긍긍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금옥은 두 집 다 굶게 생겼으니 구루마를 갖고 가서 혼자 장  
사하고 자기한테 강냉이 국수 한 사리만 달라고 먼저 제안한다. 창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국수 한 사리면 거저라고 좋아한다.

창수는 역에 나가 제일 많은 짐을 붙잡고는 ‘금옥이 제발 낫지 말고 오래오래  
얹아라. 어쨌건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라며 신나한다. 하지만 하루별이 인생의  
재수 좋은 날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재수 없는 날로  
끝나고 만다. 하필이면 이날 보안원이 짐 단속을 핑계로 구루마꾼들을 있는 대로  
불러모아 보안서 뒷마당에 쌓아놓은 수십 구의 행려자 시신을 산으로 실어 날라  
땅을 파 처리하는 일을 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수는 술에 취해 역전에서 자  
다가 제 것도 아닌 금옥의 구루마를 도난당하기까지 한다.

「재수 없는 날」의 창수, 금옥이는 「진옥이」에서 진옥이의 낙태된 태아를 산에  
묻어주며 돈을 버는 ‘돈벌이 할 줄 모르는 남자들’처럼 장마당의 하류 인생들이  
다. 이들은 힘, 자본, 인맥, 지력 경쟁에서 밀리고 운을 잡지 못한 인물들로서 제  
판에는 영악하게 머리를 굴린다고 하지만,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사회의 강자로  
부상하기에는 턱없이 힘이 달린다. 이들은 현대판 부자로 부상한 진옥이, 철혁,  
정임 선생, 화순보다 훨씬 대중적인 인민 삶의 재현으로 보인다. 북한 속 시장경  
제인 ‘장마당’의 활성화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출신성분도 나쁘고 수  
완도 없는 북한 인민의 상당수는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 4) 희망의 결핍과 ‘국경 넘기’

‘국경 넘기’형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절망(희망의 결핍) 때문에 국경을 넘는 인물 유형이다. ‘생존 추구’형이 어떻게든 삶의 터전에서 강하게 뿌리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국경 넘기’형은 국경 밖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더 절박한 처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국경 넘기’를 ‘탈북’이나 ‘월경(越境)’으로 단정하지 않은 이유는 탈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식량을 구해 ‘돌아올’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인물까지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밥」의 선옥, 「지영이」의 지영 엄마, 「꽃망울」의 철이 엄마, 「소원」에 나오는 우진 영감의 아내와 딸은 탈북한 여자들이다. 「아버지의 다이어리」의 민수 아버지는 아내와 남매 온 가족이 두만강을 건넌다. 「영원한 순간」의 정수는 북한에서 아내를 잃고 혼자 먼저 탈북한 뒤 아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탈북한 주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밥」, 「아버지의 다이어리」, 「영원한 순간」이고, 나머지 소설에서는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시선으로 부재하는 어머니 혹은 아내로서 언급되고 있다.

이 유형의 인물은 ‘가족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된다.

「밥」의 선옥은 월남자 가족으로 북한 사회에서 경원시하는 출신성분이다. ‘철저한 빨간 당원’인 시골 총각 상철에게 감지덕지 시집을 온 어린 선옥은 농사꾼과는 거리가 멀어 상철이 늘 머저리라고 놀렸다. 그래도 열심히 농사일과 가정을 배워나가던 강인한 여자였다. 그런데 선옥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아 배급을 받지 못해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편이 당성이 강한 탓에 돈 될만한 장사에도 손을 대지 못하니 다른 집에 비해 유난히 생활이 더 어려웠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딸 향이가 어느 날 무밥 말고 쌀밥을 달라고 투정을 부리자 선옥은 ‘품에 파고 든 딸애를 악착스런 가난을 털어내듯’ 힘껏 밀쳐내고는 빗자루를 쳐들어 아이를 때린다.

작가 김정애는 이 소설 「밥」으로 한국소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제41회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11월 24일 VOA(Voice of America)에서 한 작가 인터뷰<sup>107)</sup>에서 그는 영양실조에 걸린 딸 아이가 딱 한 번만 이밥을 실컷 먹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말 한 마디에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소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엄마, 딱 한 번만 쌀밥을 실컷 먹고 싶어.” (김정애, 「밥」, 233)

향이의 영양실조가 악화되어 귀가 안 들리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게 되자 선옥은 딸 아이를 영 잃을 것 같아 두려워서 ‘밤마다 향이의 코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확인해야 하는 불안’에 시달린다.

「아버지의 다이어리」의 아버지는 온 가족이 탈북했으나 중국에서 아내와 딸이 납치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고, 아들 민수만 데리고 한국에 입국한다. 평소 말이 없고 표현에 서툰 그의 내면은 일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원래 아들 민수와 딸 민정이 외에 막내 아들 민철이까지 자식이 셋이었는데, 막내 민철이 열한 살 때 잡병에 걸려 죽는다. 민철이는 쌀죽이 먹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자식 하나를 잃어버린 후 아버지는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난다.

「영원한 순간」의 정수는 평양에서 대학 교원이었다. 사랑했던 아내가 먼 친척 집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옥수수 배낭을 갖고 오던 중 타고 있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로 죽는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일이다.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 꼭 끌어안고 있던 옥수수 배낭을 집에 전해달라고 하면서 사고 현장에 갔던 보안 기관 사람에게 집주소를 알려주고 죽었다고 한다. 아내 대신 옥수수 배낭 한 개가 돌아왔을 때 정수는 ‘억이 막히고 원통해서’ 배낭을 집어 던진다.

“저, 전에 국경 너머에 가면 굶주릴 일이 절대 없다고 했죠?”

“그렇소. 세상 밖에 나가면 더는 배고프지 않은 또 다른 세상이 있소. 굶을 염려는 전혀 없소.”

“도와주세요. 더는 안 되겠어요. 우리 집에 무슨 번이 날 것 같아요.”(김정애, 「밥」, 239)

그래. 가자. 더는 배고프지 않다는 곳으로 가자.(김정애, 「밥」, 243)

아사(餓死)에 가까운, 오사리처럼 말라버린 민철이를 묻고 넷이서 미련 없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은철, 「아버지의 다이어리」, 349)

107) [인터뷰: 김정애 작가] 「탈북 소설가, 한국 신인문학상 당선」, 2014년 11월 24일, (<https://www.voakorea.com/a/2531994.html>)

딸을 잃을까봐 불안과 공포감 속에 사는 선옥, 쌀죽 한 그릇을 먹여보지 못하고 막내를 떠나보낸 민수 아버지, 옥수수 배낭 한 개와 맞바뀌진 아내의 운명을 목격한 정수는 비로소 월경(越境)을 결심한다. ‘탈북’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단적 선택임에도 이를 결행하는 것은 더는 북한의 현실에 희망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식량난으로 인한 가족 상실에 대한 공포 혹은 이미 가족을 상실한 데 대한 분노와 절망이 이들의 탈북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된다.

초기 ‘탈북’ 과정의 험난한 여정은 그동안 탈북 문학에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다. 대상 작품들에서 ‘탈북’의 현실대응은 극히 일부로서 형상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탈북 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모티프다.

「꽃망울」의 철이 엄마는 ‘식량을 얻어온다며 어디론가 떠났다’고만 언급되는데, 그 이후 ‘어찌된 일인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그녀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그녀에게 닥쳤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지영이」의 지영 엄마는 열세 살 지영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였다.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생활 총화에 간다고 하고는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도 지영 엄마가 탈북했다고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가 지영이에게 남긴 메모를 통해 엄마가 단순히 가출한 것이 아닐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지영인 엄마를 알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동생을 부탁한다.

엄마가. (남정연, 「지영이」, 216)

같은 작가의 또다른 작품 「겨울약속」에도 똑같이 지영이와 지성이가 등장한다. 또한 두 소설 속 아이들이 엄마의 스카프로 엄마가 없는 허전함을 달랜다는 점에서 「겨울약속」은 「지영이」의 연작소설로 볼 수 있다. 「지영이」에서 9세, 13세였던 남매의 나이가 「겨울약속」에서는 12세, 16세로 나온다. 하지만 「겨울약속」의 서사에서 엄마가 ‘행방불명’된 지가 3년이 아니라 3개월째라고 나온다. 아이들은 행방불명된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소설에서는 엄마의 탈북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집에서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고생 못지않게 국경을 넘는 순간 지영 엄마가 겪게 될 폭력과 고난의 여정을 독자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sup>108)</sup>

「아버지의 다이어리」에서는 민수 아버지와 민수가 보는 앞에서 민수의 엄마와 여동생이 중국 사내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서술됨으로써 탈북 여성들의 수난이 보다 직접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인신매매의 유형에 따라 탈북자의 이동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 있다.<sup>109)</sup> 그 첫째 유형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도강 전문 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난 젊고 외모가 고운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의 생계도 지원할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러한 인신매매 유형은 한국 작가 정도상의 『절레꽃』<sup>110)</sup>에서 재현되고 있다. 주인공 충심은 탈북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인신매매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강제로 도강을 하게 되고 인신매매단에 넘겨져 중국 농촌 남자에게 매매되어 강제결혼까지 한다. 이 유형의 탈북은 탈북자 자신이 전혀 탈북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북한내 인신매매 관련자들의 유인, 사기, 협박 등으로 인해 국경을 넘게 되는 경우이다.<sup>111)</sup>

인신매매의 두 번째 유형은 탈북한 북한 주민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이 인신매매에 나서는 경우이다. 인신매매 조직은 여성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여성을 납치하여 거래한다.<sup>112)</sup> 이러한 유형의 인신매매는 본 연구의 대상 작품 중 「아버지의 다이어리」에서 재현되고 있다. 민수네는 일가족이 탈북하였지만, 중국에서 민수의 엄마와 여동생 민정이가 ‘중국 사내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을 당한다. 아버지는 민수를 데리고 아내와 딸을 찾아 거리를 헤매다녀 보지만 불법 신분이라는 약점과 말이 통

108)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탈북 이주의 변화를 제1기에서 제5기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제2기에 해당하는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의 탈북은 ‘생계형 탈북이주’ 시기로서 북한내 식량난이 절정에 달하자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친척 방문의 경우 다른 친척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아서 곧바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국경 밖에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탈북한 사람만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여 돌아올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던 인물까지를 포함한다.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46쪽.

109) 특히 여성 탈북자의 이동 양상을 분석하고 있지만, 남성들도 노동력이 귀한 오지 지역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박명규 외, 같은 책, 126~127쪽.

110) 정도상, 『절레꽃』, 창비, 2009.

111) 이러한 북한내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해서 본 연구 대상 작품에 언급된 대목이 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졌는지 모른다. 사람 잡아 먹는 일도 있고 중국에 납치해 팔아먹고, 한 달 전에 동네 은실 엄마가 국경에 갔다 왔다 하는 말이 젊은 여자를 납치해 생채로 피를 뿜아 죽였다고 했다.”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 291)

112) 박명규 외, 같은 책, 127쪽.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끝내 이들을 찾지 못한다. 뻔히 남편과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자들만 납치해간 것으로 이는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중대 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할 수조차 없는 것이 이들 비법월경자의 신분적 한계이며 현실로 형상화된다.

세 번째 인신매매 유형은 인신매매가 강제결혼 및 동거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중국의 산업화로 농촌 여성들이 도시로 혹은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되면서 중국 농촌사회에는 결혼 대상자 혹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잠재해 있다. 인신매매 조직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국경을 넘는 북한 여성들을 중국 농촌사회에 거래하는 것이다.<sup>113)</sup> 이러한 유형의 인신매매는 탈북작가 김유경의 『청춘연가』에서 재현되고 있다. 정선화와 복녀 모두 인신매매 조직단에 의해 중국 한족 농촌 남자에게 팔려가 동거하며 아이를 낳는다. 복녀는 중국을 탈출할 때 아이를 데리고 오지만 그렇지 못하고 혼자 탈출한 선화는 두고 온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모성애 때문에 괴로워한다. 첫 번째 인신매매 유형에서 언급했던 정도상의 『찹레꽃』도 결국 중심이 농촌으로 거래되면서 강제결혼까지 하게 되므로 세 번째 인신매매 유형까지 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애의 「밥」과 「소원」은 둘 다 당성이 강한 남편 몰래 아내가 탈북하는 모티프로 쓰인 소설인데, 전자는 떠난 자(아내)의 입장에서 후자는 남겨진 자(남편)의 입장에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실에 직면하여서도 부부의 현실대응이 이처럼 갈리는 것은 ‘당성’이라는 변수 때문이다.

남편에게는 내 결심을 알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게 탈북을 하자고 말한다면 어떤 변이 닥칠지 모른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남편의 확고부동한 당성 앞에서는 한갓 배신자에 불과할 뿐이다. (김정애, 「밥」, 242)

선옥은 당성이 강한 남편에게 자신의 탈북 결심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작가의 소설 「소원」에서도 역시 남편의 당성이 강해 아내가 몰래 탈북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밥」의 선옥이 남편 모르게 탈북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위 인용문과 같다면, 「소원」의 우진 영감이 자기 모르게 탈북을 한 아내를

113) 박명규 외, 같은 책, 127쪽.

향해 가지는 생각은 아래와 같다.

빌어먹을 노친, 말이라도 해보지, 세월이 변하는데 나라고 그냥 막대기만 고집할까? 이런 나쁜 노친 같으니라구..... 아니, 아니 그때는 아니 되지, 그랬지, 그래 이제는 되구 말구, 이제 너희들 몽땅 그리 도망간 마당에 여기에 내가 설 자리가 어데 있단 말이고.....  
(김정애, 「소원」, 299)

선옥이 떠나온 지 십 년 만에 브로커를 통해 북에 있는 남편 상철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남편 상철이 끄끙 흐느끼는 소리를 듣는다. 무뚝뚝한 남편 상철의 흐느낌에서 아내와 딸에 대한 그동안의 그리움과 전화를 통한 재회의 반가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탈북을 권유하는 선옥에게 상철은 “머저리”라는 단마디를 뱉으며 전화를 끊는다. 머저리는 힘세고 일 잘하는 농사꾼과 거리가 먼, 갓 시집 온 어린 아내에게 상철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런 별명을 지어주면서도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보며 각별히 위해주던 남편이었다. 그래서 그의 머저리 소리는 선옥에게 정감 있게 들리던 말이었다. 남편 상철의 이러한 마지막 행동은 「소원」의 우진 영감과 달리 그의 당성에 변함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지속되는 분단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 이산의 슬픔은 반복될 것이며 그 해결 또한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다이어리」의 민수 아버지, 「영원한 순간」의 정수는 각각 쾌장암 말기, 폐암 말기의 환자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병은 인간 조건의 한 근본적인 불안 내용으로서, 또한 시대와 사회, 문명, 문화 공동체 및 도덕성의 환부나 사회 병리학의 표상으로서 뚜렷한 문학적 상징이 되고 있다<sup>114)</sup>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탈북 남성들이 공통으로 치유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언젠가 당신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포탄이 언제 날아와 터질지 모르는 전쟁 통에도, 전쟁이 끝난 폐허 속에서도 나와 너희 어미는 너들 오남매를 잘 키웠다, 라고요. 하지만 그 슬하에서 자란 저는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은철, 「아버지의 다이어리」, 349)

11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2000, 200쪽.

아버지는 복 받은 삶을 사셨습니다. 살아생전 가정이 무탈했으니 말입니다. (중략) 아버지도 가정을 위해 모진 애를 쓰셨으니 온 가족이 무탈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몹시 그립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겠지요. (이은철, 「아버지의 다이어리」, 350)

유실된 식구 없이 온전한 가족이 모여 부족하지만 나누며 살았을 때가 많이 그립구려. (이은철, 「아버지의 다이어리」, 357)

위 인용문들을 통해서 민수 아버지의 고통의 근원은 가족을 유실하고 이산한 데 따른 슬픔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아내를 향해 부족하더라도 함께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족의 유실과 이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길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그의 치유 불가능한 몸의 질병 상태는 이러한 회복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갈망의 상태에 대한 문학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순간」의 정수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아내를 잃고 아들 성민이를 북에 두고 먼저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다. 브로커를 통해 북에 있는 성민이를 탈출시키기로 하지만 워낙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 지난한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 드디어 성민이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지만 그 소식을 전하려 해도 정수의 병세는 악화되어 의식이 없다. 아들의 탈북과 한국 입국은 수순을 밟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것을 고대하던 정수의 발병과 병세의 악화로 둘의 상봉은 불발로 끝난다. 정수의 치유 불가능한 질병 역시 가족 이산의 비극을 극대화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가족 이산의 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문학적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꽃망울」과 「지영이」·「겨울약속」에서 철이 어머니나 지영이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었을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 작품들은 남겨진 자(아이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시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찌된 일인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장마당에 나가 걸식을 한다. 철이는 영 집을 떠나 떠도는 꽃제비가 되고 말았고 지영이는 집에서 엄마를 기다린

다. 그래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돌아올 줄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다 앉아서 굶어 죽게 생긴 철이는 시장에서 빌어먹기 시작했고, 나중엔 이곳 국경에까지 굴러왔는데, (생략) (윤양길, 「꽃망울」, 41)

엄마 없어진 다음 조금 남겨 놓은 강냉이 쌀로 지금껏 아빠 몰래 숨겨 놓고 지성이와 연명해 왔다. 어떤 날은 꽃제비가 돼 먹을 것을 구하러 나다니기도 했다.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중략) 겨울이어서 산을 뜯어 먹을 것도 없고 구걸밖에 할 것이 없었다. (남정연, 「겨울약속」, 189)

이 작품들은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는 어머니들과 뒤에 남겨진 아이들이 겪게 되는 수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 자신의 탈북 과정 혹은 탈북 이후의 수난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탈북 서사에서 벗어나 남겨진 자의 수난과 삶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재현 소설의 ‘국경 넘기’ 유형은 기존의 탈북 재현 소설과 차별점을 갖는다.

이 유형 역시 ‘생존 추구’형 못지않게 여자들의 탈북이 많이 재현되고 있다. 예외적인 작품에서도 정수는 이미 아내가 죽은 뒤에 탈북하고 있고, 민수네는 일가 죽이 탈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생계형 탈북은 여자의 탈북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소설에서 이를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억압의 현실에 대한 인물의 대응 양상

억압의 현실은 선진선동 행위,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출신성분, 연좌제, 추상적인 공권력처럼 존재 자체만으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가시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이것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억압의 현실에 대한 대응은 체제에 대한 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장에서는 ①자발적 체제 몰입과 ‘충성’형, ②비자발적 체제 몰입과 ‘순응’형, ③위장된 체제 몰입과 ‘내적 저항’형, ④체제 이탈과 ‘외적 저항’형의 현실대응 유

형을 네 개의 절을 통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①~③ 유형은 체제 몰입형이지만 체제 몰입의 태도에 따라 구분되고, ④는 체제 이탈형이다. 체제 몰입의 태도가 ‘자발적’, ‘비자발적’, ‘위장’으로 세분된다는 점, 체제 몰입과 체제 이탈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다는 점이 북한 사회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1) 자발적 체제 몰입과 ‘충성’

‘충성’형은 자발적 체제 몰입형으로 체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거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신이 속한 체제를 불가항력의 숙명으로 여기는 ‘순응’ 유형의 수동적인 태도나 ‘내적 저항’형의 위장된 순응과는 구별된다.

충성형 인물은 애국심이 강한 유형이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애국심은 근대적 의미의 애국심<sup>115)</sup>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의 절대주의 정부, 나치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전체주의 국가가 의무교육을 통하여 전파하고자 했던 애국심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일본의 절대주의 정부는 국민의 애국심을 충국(忠國)에 종속시키는 한편, 가부장제(家父長制) 가족주의에 기초하는 사회유기체설(社會有機體說)에 기반한 가족국가관을 형성시켰”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가족국가관을 통해 국가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수령을 아버지로 형상화함으로써 국가 우월, 독재 권력과 수령의 이상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나치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전체주의 국가는 국민교육을 통하여 또는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의 기구(機構)를 이용하여 애국심을 조작”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sup>116)</sup>하였는데, 북한 역시 선전선동을 통해 애국심을 조작하고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증오의 반대급부로 조국에 대한 충성과 수령 숭배를 정당화한다는 면에서 이와 유사하다.

충성형은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민화 교육을 통해 형성된 충성심 유형, 기회주의적인 충성 유형,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순교적 헌신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체제에 자발적으로 완전 몰입 상태에 있는 절대 충성 유형

115) “참다운 조국은 서로 대항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가족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근대적 의미의 애국심이다. 『애국심,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18년 2월 20일)

116) 같은 사진.

이라 할 수 있다. 앞의 두 유형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세 번째 유형의 충성 유형을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우민화 교육을 통해 형성된 충성심은 「꽃망울」의 봄이, 「겨울약속」의 지영이와 같은 10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거지 아이들인 철이와 봄이는 김일성 탄생일에 산에서 꽃을 꺾어 팔기로 하고 깊은 산중에서 마침내 야생 꽃 군락지를 발견한다. 신이 난 봄이는 꽃들 가운데 가장 예쁜 꽃을 김일성에게 바치자고 하면서 김일성 노래를 흥얼거린다. 이를 통해 봄이에게 충성심은 자연스러운 생활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진 기아와 멸시’로 인해 ‘사는 요령’을 일찍 터득한 철이와 달리 같은 ‘기아와 멸시’의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봄이는 여전히 흠치거나 구걸하는 일을 시도하지 않거나 그러한 일에 서툴다. 이러한 봄이의 고지식하고 순진한 면모는 듣고 배운 대로 의심 없이 믿는 우민(愚民)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제일 고운 꽃을 김일성에게 헌화하는가, 아니면 식량과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봄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자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봄이의 대응은 “후손 만대가 김일성민족의 행운을 가슴 뿌듯이 느낄 수 있도록” 언젠가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웅장하게 일떠세울” 것이라는, 공동묘지 야산에까지 들려오는 방송 차의 목소리와 오버랩되면서, 교육과 선전선동에 의한 주입임을 암시한다.

봄이의 미국과 ‘남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체제의 선전과 교육에 의한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남조선’은 ‘미국놈’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나쁜 세상’이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나라로 아이들에게 교육·선전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유치원 다닐 때 미국놈 때리기 경기’를 오락으로 즐기도록 교육받는 현실이 재현되고 있다.

「지영이」의 지영이에게서는 아버지가 당원이라는 것에서 느끼는 자부심, 국경을 넘는 행위는 배신행위이며 나쁜 행위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인민들에게 심어놓은 전체주의 국가관, 가족주의 국가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우민화 교육을 통해 형성된 충성심은 「사생아」의 경수, 「소원」의 우진영감 등 성인이 된 인물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인물들은 친구, 아내 등 주변의 가까운 인물을 당국에 고발하는 행위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을 드러낸

다는 공통점이 있다. 맹목적인 충성심에 경도되어 인륜을 저버리고 결국 자신의 삶까지 파괴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봄이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 뒤에는 미국과 남조선에 대한 증오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충성을 추동하는 힘이 증오인 것이다. 경수와 우진 영감 역시 누구보다 수령을 숭배하고 당을 믿고 의지하지만, 평화와 사랑이 결여된 충성은 위험한 무기가 되어 자신의 신체를 불구로 만들고, 아내를 고발하고,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한다. 이러한 왜곡되고 맹목적인 충성심은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으로 그려진다.

「죄」의 지순영, 「단군릉과 노교수」의 최동식, 「충신과 지도자」의 김정호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기회주의적인 충성 양상을 보인다. 특히 뒤의 두 인물은 출세를 위해 거짓 충성을 하는 간신(奸臣)의 전형이다. 이때의 ‘거짓 충성’은 충성심이 없는데 충성심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저버리게 되더라도 잘 보이기 위해 윗사람의 뜻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의미로의 거짓이다. 이 유형의 인물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주변에는 거짓된 충성심을 가진 간신(奸臣)만 득세하는 북한의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순교적 헌신 유형은 충성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유형이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인물들이 이기심 혹은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 충성심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여인의 자화상」의 심일옥, 「32년 전과 후」의 최호, 「밥」의 상철은 체제에 완전히 매몰되어 자기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어떤 여인의 자화상」의 심일옥은 관점에 따라 지고지순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일 수도 있으나 그 사랑을 지키는 힘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성’의 대응 양상으로 분류하였다.

일옥이 간부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나 고향 마을 중학교 음악 교원이 되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전도유망한 남자와 결혼시킬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일옥은 학생들을 인솔하여 농촌 지원을 나갔다가 군인인 광호를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농촌 지원이 끝나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광호는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다.

영예 군인이 된 광호와 결혼하기 위해 일옥은 광호, 부모님, 주변 사람들 모두를 설득해야 했다. 아버지는 영예 군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딸이 것처럼 당에 헌신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정작 자신의 딸이 그 영예 군인과 결혼하려 하자 반대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당사자인 광호 역시 일옥을 밀어내려 하지만 일옥은 ‘사랑과 의리, 양심을 저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그와의 결혼 약속을 지키려 한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은 그러했다. 충각들은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말했고, 처녀들은 사내라면 응당히 당과 조국을 위해 공을 세워야 진정 사내답다고 여겼다. 당과 조국에 가진 열정을 깡그리 바칠 줄 아는 세계관을 척도로 사랑이 꾸며지던 시기였다. 그것이 그때 우리의 사랑 철학이었다.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48)

결혼 후 얼마 안 있어 97년 고난의 행군이 닥친다는 것으로 보아 일옥이 결혼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다. 당시 북한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사랑 철학에서도 ‘당과 조국’이 우선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심일옥의 현실대응 양상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일옥이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전하는 것은 심일옥 자신이다. 같은 또래의 동료 교사들이나 동창들은 일옥이 영예군인과 결혼한다고 할 때 ‘난감해하기도 하고 측은’해하기도 한다. 일옥의 부모님만 해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예 군인의 이야기에는 존경과 찬사를 표하면서도 그를 사위로 맞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비록 겉으로는 ‘당과 조국’을 개인의 행복이나 감정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라 하더라도 실제 자신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심일옥처럼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자기 신념화하여 그 신념대로 용단을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심일옥의 대응은 체제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과 애국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자기 신념화한 심일옥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데 꼭 맞는 모델이 된다. 이들의 결혼식은 텔레비전 특보로 방영되고 신문들에는 ‘전선에 찾아온 아름다운 꽃’, ‘우리 당의 효녀’, ‘행복’이라는 갖가지 제목을 달고 대서특필로 보도된다. 당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남자와 그를 위해 자기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여자는 당과 조국이 바라

는 이상적인 인민의 전형이며 국가의 영웅으로 선전된다.

떠들썩한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에 부부는 성적 욕망의 결핍이 그들 결혼 생활의 숙명임을 알고 괴로워한다. 일옥은 그때마다 ‘남편은 청춘을 조국에 바친 영웅’이며, ‘영예 군인인 이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자신의 ‘당적 과업’임을 상기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다. 일옥은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남편의 취향대로’ 모든 걸 맞춰가면서 헌신한다. 나라에 고난의 행군이 닥쳤지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울타리 안의 평온을 지키려 애썼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되자 장마당 노점 장사로 남편을 부양한다.

남편의 제안으로 시댁이 있는 농촌으로 내려간 일옥은 김정일화 온실 관리를 맡게 된다. 바쁠 때는 온실에서 숙식하며 정성껏 꽃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일옥은 어느 날 리 당 비서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후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평소 일옥의 가정 형편을 돌보아주던 리 당 비서는 온실에 다녀간 뒤에는 마치 그것이 전표이거나 하듯 일옥의 집에 남편의 이름으로 ‘많은 생활 필수품들’을 보내주었다.

이 과정에서 일옥은 임신을 하고 아내의 불러오는 배를 보며 괴로워하던 광호는 자살을 한다. 남편의 무덤에서 일옥을 위로하던 당 비서는 광호의 죽음은 일옥을 위해 너무 늦은 선택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때 일옥은 다시 한번 그녀의 현실 응전 방식을 분명히 드러낸다.

“저의 남편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비서 동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중략)

문득 배에서 아기가 꿈틀했다. 나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벽에 걸려 있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여보, 이 애를 당신의 성을 가진 애로 잘 키울게요. 당신처럼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칠 영웅으로 만들게요.” (윤양길, 「어떤 여인의 자화상」, 69)

남편 광호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이라는 자부심, 불륜으로 낳게 될 아이 또한 남편의 뒤를 이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으로 키워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마치 투사를 연상시킨다. 일옥은 애인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나 남편이 죽었을 때, 체제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앞세워 자기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 체제 안에서 그녀는 영웅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32년 전과 후」는 박경선과 최호 두 인물의 현실대응 양상을 선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준다. 32년 전, 경선과 최호는 전쟁 고아로서 ‘당은 청년들을 천길 막장으로 부른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던 때, 회창군 성흥광산에서 만나 친구가 된다.

당당하게 노동계급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낭만도 잠시,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에 시달린다. 그러던 어느 날 생산계획에 쫓겨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화근이 되어 가깝게 지내던 친구 명수가 바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다. 갱장과 세포위원장은 명수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명수 하반신에 떨어진 큰 바위를 착암하고 발파하여 생산 지연을 최소화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경선은 당이 생명을 경시하고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광산을 떠난다. 하지만 최호는 그런 경선의 행동이 경솔하다고 비판한다.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가는 초소를 가리지 말라고 하셨어. 정 떠나겠다면 할 수 없지. 넌 언젠가 꼭 오늘의 일을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장해성, 「32년 전과 후」, 188)

똑같은 사건에 직면해서 박경선은 당에 실망하고 자신들이 체제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간파하는 반면, 최호는 명수가 착암과 발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명수의 시신이라도 꺼내기 위해 착암하고 발파했다는 갱장과 세포위원장의 말을 믿으며 끝까지 광산에 남기로 한다. 소설은 이를 통해 최호가 체제의 선전과 선동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절대 신뢰, 절대복종의 자세를 드러내며 이변이 없는 한 그런 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32년 후 중앙텔레비전 정치부 기자가 된 박경선은 투쟁하는 노동계급을 취재하기 위해 회창 광산에 갔다가 최호를 만나서 32년 전 최호의 당에 대한 절대복종, 절대 신뢰의 자세가 여전히 한치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는 아래 인용문 ①~③에서 최호의 행색과 사는 형편에 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난다.

① 머리가 정수리까지 벗어진 노인이 꾸부정한 자세로 나왔다. 그가 겪은 고난의 역사가 그대로 새겨진 듯한 깊은 주름이 얼굴에 가득했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191)

② 두세 군데 꿰맨 바가지 한 개가 쇠술 위에 얹어있고, 그 위 덕대 위에는 비닐버치와 사발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물독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그제 부엌 살림의 전부였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192)

③ 가운데 놓인 사발에 담긴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 어찌 보면 버섯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냄새를 맡아봐도 알 수 없었다. 경선이 최호에게 물었더니 이런 기막힌 일이라고야. 그날 아침에 최호네가 기르던 새끼 돼지가 굶어 죽었다고 했다. 그 고기였다. 김치는 영 맛이 나지 않았다. 희미한 간드레 불빛 밑이라도 색깔은 분명 붉은색이었다. 경선이 다시 물었더니 고춧가루가 없어서 빨간 물감을 풀어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의 아내는 그래도 자기네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웃집들은 아예 소금조차 없어 김치를 담지 못했다고 했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193, 밑줄은 연구자)

북한에서는 ‘토끼는 굶어 죽고, 노루는 도망치고, 조선 땅에는 승냥이와 여우만이 살아남아 물고 뜯는다.’는 말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빗댄다. 당성이 강하고 체제에 충성하는 최호의 얼굴에는 ‘고난의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 인용문 ②와 ③에서는 빈궁의 극치에 있는 그의 가세(家勢)를 묘사한다. 그럼에도 최호는 도망치기는커녕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수난의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토끼와 같은 인민의 전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우린 비록 이렇게 살지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는 한 언젠가는 꼭 잘 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194)

토끼가 도망치지도 못하는 이유는 ‘당은 청년들을 천길 막장으로 부른다’, ‘혁명은 초소를 가리지 않는다’와 같은 체제의 선전선동에 완전히 길들였기 때문이다.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체제의 선전에 의심을 품고 떠났던 박경선과 달리 최호는 오히려 의심을 품는 친구에게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체제가 정해준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 그것이 곧 체제가 원하는 영웅의 면모이기 때문이다.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믿고 따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최호의 모습은 순교자를 연상케한다.

「밥」의 상철은 ‘당성 하나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소문난 시골 총각이었다. 나라에서 식량을 줄 때만 해도 월남자 가족인 선옥이 ‘감지덕지’ 시집와야 하는 남자였지만 국가 배급이 끊기고 제각기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와선 무능

력한 가장일 뿐이다. 당성이 강해 돈 될 만한 장사에 손을 댈 수도 없어 다른 집보다 생활이 더 어렵기만 하다.

딸이 굶어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던 선옥이 남편 몰래 딸만 데리고 탈북을 한 것도 남편의 강한 당성 때문이었다.

남편에게는 내 결심을 알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게 탈북을 하자고 말한다면 어떤 변이 닥칠지 모른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남편의 확고부동한 당성 앞에서는 한갓 배신자에 불과할 뿐이다. (김정애, 「밥」, 242)

「소원」의 우진 영감이 같이 떠나자는 말도 없이 몰래 탈북한 아내를 원망하며 당적 양심에 변화를 보이는 것과 달리 상철은 선옥이 탈북 후 십 년 만에 연결된 전화에서 비감(悲感)에 사로잡혀 흐느끼면서도 탈북을 권유하는 선옥의 말에 ‘머저리’라고 응수하며 전화를 끊는다.

체제에 길든 토끼와 같은 상철에게 탈북을 한 아내는 배신자, 머저리다. 하지만 체제의 모순을 깨달은 자의 시선에서는 반대로 상철이 머저리다. 「소원」에서 장애인 아들과 노숙하는 거지 여인 박명선은 “먹을 게 많은 데로 가는 게야 당연한 게지, 못 가는 게 머저럽지 뭐.”<sup>117)</sup>라고 말한다. 같은 작가의 다른 두 작품 「소원」과 「밥」에서 ‘머저리’는 탈북자를 호명하기도 하고, 충성형 인물을 호명하기도 한다.

## 2) 비자발적 체제 몰입과 ‘순응’

‘순응’형은 자신이 속한 체제를 불가항력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다는 점에서 ‘비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자발적 체제 몰입이라는 점에서 ‘내적 저항’형과 같지만 ‘순응’형은 ‘내적 저항’형처럼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순응’형은 자신이 속한 체제를 객관적·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충성’형과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체제를 위해 타인이든 자기든 ‘기꺼이’ 희생시키는 능동태의 주체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체제에 희생‘당하는’ 쪽이며 이러한 피동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인다.

---

117) 김정애, 「소원」, 291쪽.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나 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충성’ 유형과 ‘외적 저항’ 유형보다는 ‘순응’형과 ‘내적 저항’ 유형이 인민들의 보편적인 현실대응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외형상 체제에 순응하며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 사는 보통 인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충성’ 유형 가운데 특히 ‘순교적 헌신’을 통해 드러나는 ‘충성’ 유형은 ‘순응’ 유형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자기희생 행위는 ‘타인의 희생을 불사하는 충성’ 양상의 고발 행위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 혹은 견디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희생을 통해 드러나는 충성 양상은 비록 내면의 힘으로 견디는 행위이긴 해도 체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내면의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체제에 대한 신뢰의 표명 없이 체제를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응 유형과 구분된다.

‘순응’의 현실대응 양상은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나 신뢰를 표명하지도 비판하지도 않는다. 적극적인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언행이나 그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서술이 없는 한 ‘충성’형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역시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체제의 허위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는 언행이나 서술이 없다면 ‘내적 저항’ 유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아, 불쌍한 용일이. 사과 몇 조각 뜯어먹고 입맛을 다시던 꼬맹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뭇을 줄 걸. 그놈의 선물인지 뭔지 그게 원수다. (도명학, 『잔혹한 선물』, 188~189)

이 인용문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제대로 된 안전 장비 없이 고된 노동을 하다 사고로 죽은 『잔혹한 선물』의 용일리와 무리한 야간작업을 감행하도록 부추긴 최고지도자의 ‘잔혹한 선물’에 대해 ‘내적 저항’ 유형인 영수의 초점으로 논평하는 부분이다. 3명당 2개의 사과를 최고지도자의 ‘사랑의 선물’ 명목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강행된 야간작업을 수행하던 중 어린 용일리는 사고로 끔찍하게 죽는다. ‘내적 저항’ 유형인 영수와 진호는 소설 내내 방송 차의 선전선동을 냉소하고 심지어 선물의 대가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호는 피병을 부려 선물을 아예 받지 않음으로써 야간작업에서도 열외 된다. 반면 용일리는 소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서 비참한 처지에 놓인 고아 소년 정도로 언급되어 소설의 분량 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잔혹한 선물’의 가시적 희생자가

됨으로써 비극을 극대화한다.

‘순응’형은 ‘충성’형보다도 ‘내적 저항’ 유형과의 구별이 더 어렵다. ‘내적 저항’ 유형이 체제를 비판하는 내면 의식을 보이면서도 체제 몰입형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외형상 비자발적 체제 몰입 상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두 유형의 구분은 체제의 허위에 대한 자각, 문제의식의 여부에 달렸다. 그런데 한두 번 체제 비판적인 언행을 했다고 ‘내적 저항’형으로 분류한다면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분류가 될 수 있다.

“내 이놈의 세상이 이리도 각박한 줄 몰랐구나.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옥수수 한 되 내주지 못한다는 게냐, 무어 군대? 그놈의 군대가 백성을 말려죽이는구나. 어허.”  
(중략) 정말이지 고지식한 순둥이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수격수격 일만 해왔다. 남들처럼 밭에서 달구지로 낱알을 실어들이면서도 강냉이 이삭하나 제집으로 슬쩍 묻혀올 줄도 몰랐다.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05)

굶주린 가족을 위해 강냉이 몇 이삭 훔쳤다가 적법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금덩이 이야기」의 윤철보 노인을 위 인용문만으로 ‘내적 저항’형 인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 인용문에서 그가 나라와 군대를 원망한 것만 본다면 ‘내적 저항’형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평생을 고지식한 순둥이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윤 노인을 일회적인 체제 비판 발언만으로 ‘내적 저항’형으로 규정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영수가 수용소에 들어와 들은 것에 의하면 처음 노인은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울며 지냈다고 했다. 울어도 소리가 없는 울음이었다. 그저 눈물만 양 불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당장 눈물을 거두라고 채찍에 후려 맞을 때면 제발 우리 마누라에게 내가 여기에 잡혀왔다는 소식만이라도 전해달라고 손을 비비며 사정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매를 맞았다. 아무도 그러마고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뼈를 파고드는 채찍 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해도 노인은 감각 없는 고목처럼 빌고 빌며 눈물만 뚝뚝 옷섶에 떨어뜨렸다. (이지명, 「금덩이 이야기」, 107)

수용소에서 윤 노인은 체제를 비판하거나 거리 두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눈물만 흘린다. 자신을 가둔 것에 대한 원망도 없다. 오직 한 가지 그가 소원하는 것은 가족의 안부를 듣고, 자신의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세상에, 이게 무슨. 지금 강제로 빼앗겠다는 겁니까? 당비서가 이래도 됩니까? 당은 어머니라면서요. 무슨 왜정 때도 아니고.....제정신입니까 지금? 어머니라면서 그렇담 자식이 굶는데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종자를 빼앗아요?”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 284)

경심은 가족의 마지막 양식으로 남겨둔 감자 종자마저 당비서가 빼앗듯 가져가려 하자 위 인용문처럼 항변한다. 감자 종자를 내주지 않으면 남편을 위협한 노동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당 비서 앞에서 경심은 바로 눈길을 떨어뜨린다. 당비서가 감자 종자를 거둬간 뒤 경심은 혼자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린다. 이런 전체적인 서술 맥락을 통해 경심의 일회적인 항변을 근거로 그녀를 ‘내적 저항’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회적인 발언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서술 맥락으로 형상화된 인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금덩이 이야기』의 윤철보 노인, 『오두막집 안주인』의 경심은 ‘내적 저항’형이 아니라 ‘순응’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근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찌 보면 등신이 아닌가 싶다. 창 쪽에 굶은 등을 지대고 앉아 아무 말 없이 풀 풀 마라초만 태운다. 8.3이나 창수에 대한 어떤 원망도 없는 것 같다. 아내인 경심이란 억울해 밤새 뜯눈으로 뒤척였다.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 286, 밑줄은 연구자)

② 한데 아빠가 얘기를 다 듣고도 한숨만 푸욱 쉬고는 구들에 올라앉아 마라초를 말아 입에 문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고는 또 푸우...하고 연기를 내뿜을 뿐 내색조차 없다.

“아부지. 내가 그 나쁜 사람한테 하마터면 당할 뻔했다고요.”

지영이 말엔 분함이 가득 서렸다.

“그게 다 네 어미 때문이야. 집만 안 나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남정연, 『겨울약속』, 197, 밑줄은 연구자)

위 인용문 ①, ②는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 발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혹은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①에서 당비서가 감자 종자까지 빼앗아갔고 그 종자를 시장에서 술과 바꿔먹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은 말없이 마라초만 태운다. ②에서 딸이 보안원에게 취조를 당하면서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마라초만 태운다. 아내와 딸이

부패한 공권력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가장으로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데 대한 무력감과 자조, 체념의 정서가 이들의 한숨과 마라초 태우는 행위를 통해 포착된다.

이상 살펴본 윤철보 노인이나 경심, 경심의 남편, 지영이 아버지는 자신이 속한 나라를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사는 평범한 인민들이다. 그들은 당과 조국에 충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그렇다고 체제를 비판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직 가족의 안전과 오늘 먹을 양식이다. 「금덩이 이야기」의 윤노인이나 「오두막집 안주인」의 경심이 하는 항변은 화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때뿐일 일회성 항변일 뿐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신세 한탄, 낫두리, 애걸과 같은 성질의 행위이며 인간으로서 보이는 최소한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경심의 남편과 지영이 아버지에게서는 국가라는 거대한 체제에 맞설 수 없는 자신들의 왜소함에 대한 자조의 정서가 있다. 이들은 모두 ‘순응’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지러진 달」은 권력의 위계에 억눌린 주체인 선영을 순응형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소설은 각각 배우자를 잃은 선영과 보안서 간부부장의 사랑이 시택과 처가의 방해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외사부에 근무하는 간부부장의 처남과 도당 위원회 간부인 선영의 시아버지는 이들의 사랑을 반대하여 결국 남자를 간부부장 자리에서 해임시켜 탄광 노동자로 가게 만든다. 며느리와 사위의 재혼을 반대하는 시택과 처가의 이야기는 하위 주체를 억압하는 상위 권력에 대한 알레고리로도 읽힌다.

국가의 최고 권력인 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도 당위원회. 한낱 지역 보안서는 그 기관들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송시연, 「이지러진 달」, 202)

지역 보안서로 대변되는 남자와 여자는 처남으로 대변되는 당 중앙위원회와 시아버지로 대변되는 도당위원회의 권력 앞에서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다. 같은 상황에 있지만 남자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결심을 하는 반면 선영은 서로를 위해 또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남자와 이별하기를 원한다. ‘내적 저항’형 남자와 ‘순응’형 선영의 현실대응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아버지의 권위에 한 번도 대항하지 못했던 선영이 딱 한 번 시아버지에게 작은 항변을 한다. 선영이 간부부장과 연애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보안서에 찾아 온 시아버지가 다른 직원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며느리의 부덕을 탓하며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으름장을 놓자, 선영은 울면서 간신히 “애 아빠가 먼저 간 게 제 탓이나요?”라고 말한다. 항상 순종하던 며느리의 항변에 놀란 시아버지는 두고 보라는 말을 남기고 간다.

창창한 인생을 저들의 각본대로 살아야 하는 속박감이 가슴을 옥죄어 왔다. (송시연, 「이지러진 달」, 201)

위 인용문은 시아버지에게 느끼는 선영의 속박감이다. 시아버지는 도당 위원회와 알레고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영의 이러한 좌절감과 무력감은 북한 체제에 대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체제에 속박되어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속박감과 그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무력감이 순응형 인물에게서 발견된다.

「산 넘어 산」의 연희, 「칠보산」의 연희, 「안개」의 하진은 모두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개인들이다. 국가의 폭력에 무방비로 당하고 구제의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말 그대로 무너진다. 「산 넘어 산」의 연희는 미쳐버리고, 「칠보산」의 연희, 「안개」의 하진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체념을 표출한다.

「산 넘어 산」의 연희는 연좌제로 남편과 아이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이후 아이들에 대한 환각과 환청에 사로잡혀 날마다 산에 오른다. 9개월 전 남편과 두 아이가 연행된 후부터 연희는 미쳐 거리를 질주했는데, 3개월 전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은 뒤로는 산을 타기 시작한다. 군 보위부장인 친정아버지가 사위가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리라는 정보를 듣고 미리 외동딸 연희를 이혼시켜 가까스로 연희만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게 되었으나 혼자 남은 연희가 이렇게 미쳐버린 것이다.

그런데 연희는 남편 친척이 지은 죄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까지 수용소에 가야 한다는 연좌제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아이들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한 아버지를 원망한다. 연좌제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이들에게는 주어진 운명과도 같다. 이것을 어찌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 대신 자신을 아이들과 갈라놓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다.

“날 또 묶어봐! 이 날강도야. 네가 내 남편, 내 아기들을 다 내쫓은 거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날 말릴 생각일랑 아예 말아. 이 나쁜 놈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벼락같이 밀쳐냈다. 아버지는 밀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채 주저앉았다. 정신없는 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다. 연희는 거기까지 말짱 기억이 났다.  
(김수진, 「산 넘어 산」, 266)

딸이 산에 가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어 놓으려는 아버지를 향해 연희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흉이 아버지라고 소리친다. 남편과 아이들이 수용소로 연행된 것도 아버지 탓으로 돌린다.

연희는 낮에 정신이 나가 아버지가 묶어 놓은 끈을 풀고 산에 올라갔다가 깊은 산중에 이르러서야 정신이 돌아오곤 한다.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는 항상 아버지가 뒤를 밟아 따라온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폐렴에 걸려 뒤따라 오지 못한 어느 날 연희는 깊은 산 속에서 정신이 돌아오긴 했지만 하산하는 길을 잃고 얼어 죽는다.

「칠보산」의 연희, 「안개」의 하진은 기쁨조에 발탁되어 독재자와 그 측근들에게 유린당하고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에도 안착하지 못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인물들이다. 현대판 궁녀<sup>118)</sup>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기쁨조를 소재로 1인 독재자를 위한 인력, 물자의 낭비와 독재 권력의 학정(虐政)을 고발하는 소설이지만 정작 희생하는 인민들인 연희와 하진은 저항 없이 체념하고 순응하는 인물들이기에 그 비극성이 심화된다.

「산 넘어 산」의 연희가 남편과 아이들이 수용소에 가게 된 일이나 그곳에서 아이들이 죽게 된 일 등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지 않는 것처럼 「칠보산」의 연희, 「안개」의 하진 역시 자신들 삶이 유린당하고 철저히 짓밟혔음에도 의식이 체제 비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속한 체제를 자기 운명과 동일시하며 체념하고 순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리 당 비서의 추천으로 5과<sup>119)</sup>에 뽑히게 된 연희는

118) 유현주, 「선전선동의 북한 문화예술(5) - 북한의 기쁨조, 현대판 궁녀들」, 『월간북한』, 통권 517호, 북한연구소, 2015년 1월, 92~97쪽.

119) 이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5과에 선발되었다고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산하에 있는 하나의 부서인 5과에서 기쁨조 선발 및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연희도 5과에 의해 선발되고 관

출세의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안개」의 하진 역시 5과에 발탁되어 평양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성공과 출세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평양에 배치된 하진은 대동강 악단에서 지도자를 대동한 연회에서 일개 향락의 노리개로 사는 삶을 반복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사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삶은 변함없이 반복되어 흘러갔지만,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와는 무언가 많이 달라졌다. 무엇을 잃고 무엇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냥 허탈했고 또 공허했다. 하지만 삶은 삶이지만 계속해야 했다. (이지명, 「안개」, 212)

연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연회가 배치된 ‘특각’은 최고 지도자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 한가한 곳이다. 연회처럼 5과에서 선발된 6명의 여자들은 매일 피부와 몸매를 관리하며 단조로운 일과를 반복하며 지낸다. 제대할 때가 다가오자 연회는 애초에 가졌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곳에 온 후 연회는 언젠가는 김정일을 모실 수도 있다는 한 가닥 기대와 희망으로 살았다. 그런데 저번 처음 있던 김정일 방문 때 인원을 모두 철수시키라는 호위성원들의 요구로 별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있었다.

그동안 김정일을 한번이라도 만나면 접견자가 되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순간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제대할 때가 됐다.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고 가난한 본가로 돌아가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연회는 요사이 마음이 복잡하여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송시연, 「철보산」, 208)

5과에 뽑힌 여자들은 8~9년 정도 초대소(특각)나 호위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거나 간호사, 기술서기로 일하게 된다. 26살 정도가 되면 제대를 하게 되는데, 제대를 하여 고향을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 부서에서 작은 간부로 일하는 총각들과 혼인을 시킨다.<sup>120)</sup> 이때

---

리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과에서는 예쁜 여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9~10살쯤 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발을 하고, 그아이가 18살이 되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해마다 키는 몇cm 컸으며 얼굴 형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체크한다.” 유현주, 위 기고문, 94쪽.

남자쪽 의사나 5과 출신 여성의 의사와는 무관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개」의 하진은 바로 이러한 혼인을 했다가 파국을 맞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진은 중앙당 국제부 간부인 오진규 며느리로 거의 배당되다시피 하여 철혁과 결혼을 하는데 철혁이 하진의 과거를 눈치채고 괴로워하면서 부부는 불화를 겪는다. 이들의 불화로 인해 ‘윗분’들의 비행이 밖으로 폭로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앙당 5과의 감시가 심해지고 하진은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없는 존재라고 단정하며 자살을 감행한다.

「칠보산」의 연희 역시 제대 후 삶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쯤 평소 연희를 잘 대해주던 참모장에게 강간당하고 낙태 수술까지 받게 된다. 연희는 뒷산에 불이 났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불을 끄는 데 합류한다. 그리고 결국 불길 가까스로 흠을 던지다가 불길 쪽으로 고꾸라지며 화염에 휩싸인다.

처음 이들이 가졌던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제대 즈음 혹은 제대 후 이들은 절망을 경험한다.

지나온 생이 저주스럽습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내 삶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 그리되었다고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나라에 사는 우리 여성들이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운명이 아니었나 하는 말을 감히 드러봅니다. (이지명, 「안개」, 215)

치욕스러웠던 그 날이 잊히지 않고 새록새록 떠오르며 분노가 일었다.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희망마저 한낱 꿈으로 날아가 버린 지금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화를 어딘가에 퍼붓고 싶었다.

자신의 방심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중략)

불길 가까스로 흠을 던지며 그녀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껏 꿈꿔온 미래가 어둠 속에 묻히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송시연, 「칠보산」, 219)

위의 인용문에서 「안개」의 하진은 기쁨조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누가 강요했다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운명이었다고 말한다. 「칠보산」의 연희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자조와 체념의 정서는 강하고,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하진과 연희는 ‘순응’ 유형이

---

120) 유현주. 위 기고문. 95~96쪽.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파괴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체제 몰입 상태에 있고, 체제의 모순과 폭력성을 비판하거나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내적 저항’ 유형과 다르다. 가난한 집 딸이 권력자의 눈에 들어 공주가 되기를 꿈꾸는 신데렐라 모티프나 여자의 문란한 과거에 괴로워하고 불화를 겪는 가정, 권력자에게 강간당하고 자살하는 이야기는 다소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체제 순응형 인물 자체가 진부한 유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부한 인물 유형이 탈북작가의 북한 재현 소설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 사회의 진부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부한 인물을 창조하는 작가의 진부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기도 한다.

### 3) 위장된 체제 몰입과 ‘내적 저항’

‘내적 저항’ 유형은 비로소 체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체제 몰입에서 빠져나온 상태이지만 ‘어쩔 수 없이’ 체제 몰입형으로 위장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내적 저항’ 유형은 「사생아」의 순옥, 「32년 전과 후」의 박경선, 「수재」의 허수혁, 「이지러진 달」의 남자, 「꽃망울」의 철이, 「잔혹한 선물」의 진호와 영수 등에게서 발견된다. 한편 「재수 없는 날」의 창수에게서는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체제에의 ‘무관심’이라는 특징이 발견되어 ‘내적 저항’ 유형의 확대가 포착된다.

「사생아」는 제목에서 체제의 모순을 자각하고 내적으로 체제에 대한 반항과 저항의 감정을 갖고 있는 인민에 대한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sup>121)</sup> 소설은 외양상으로는 체제가 선전하고 길들이는 대로 순종하는 국가의 적자(嫡子)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사회 모순에 대한 통찰과 반항심을 지닌 사생아(私生兒)와 같은 인민의 유형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 유형에 속하는 남편 경수와 내

121)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 ‘사생아’는 결핵스트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장의 제목, 난외(欄外), 표제, 목차, 서문, 후기, 삽화, (선전 문구가 동반된) 표지 등 시작 단계부터 서사와 함께 동반되는 자료들을 제라르 주네트는 결핵스트라고 하였다.” (H, 포터 애벗, 같은 책, 69~72쪽.) 제목 없는 작품이 없었지만 「사생아」는 특히 서사가 완결된 후에도 제목 ‘사생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은 강항 상징성과 의도적인 유추 방해 때문인데, 작품 안에서 사생아 혹은 적자를 언급하는 대목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 역시 상징적인 제목을 갖는 「용서」에서는 서사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언급함으로써 제목의 상징성이 쉽게 유추되어 서사가 완결된 이후 계속해서 제목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적 저항 유형에 속하는 아내 순옥의 불편한 동거는 북한 사회의 적자와 사생아의 공존 양상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경수가 김일성의 초기혁명 활동을 그린 영화 <조선의 별><sup>122)</sup>을 CD로 복사해서 거듭 돌려보고 정전이 되면 배터리를 켜서라도 영화 삼매경에 빠질 만큼 북한 체제에 완전한 몰입도를 보인다면, 순옥은 남조선 라디오 방송 애청자다. 순옥은 김일성의 역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도 찬란한 혁명역사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도 인지할 만큼 체제 몰입에서 상당히 빠져나와 있다.

‘빠져나왔다’는 말은 처음에는 순옥도 체제의 선전을 곧이곧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혁명역사 강사(도 사적관 해설사)로 일했던 순옥 역시 누구보다 나라의 혁명역사를 훤히 꿰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먹고살기 위해 시장에서 잡화점을 하면서 당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라디오를 몰래 청취하기 시작했고 체제의 선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라디오 속 세상을 동경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생계 책임의 주체가 된 북한 여성들이 장마당 활동을 하면서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바깥 소식을 먼저 듣고 생각이 깨이게 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경수의 속임수와 순옥의 허영심으로 인해 성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수는 이미 난치병으로 제대한 상태였음에도 평양 호위국 군관이라고 속여 순옥의 환심을 샀고, 순옥은 경수가 호위군관이어서 평양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허영심에 눈이 멀어 사기 결혼을 당했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은 두 남녀의 결합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순옥이 남편과의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음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수는 자기가 근 한 달을 큰 아버지네 숨어 지내며 순옥에게 애원의 편지를 거듭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순옥은 남편이 난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편의 예정된 죽음이 순옥에게는 희망인 것이다. 경수와 순옥의 불안한 결혼을 북한 사회 적자와 사생아의 공존이라는 알레고리로

122) <조선의 별>은 장편 영화문학 작품으로서 1983년에 평양의 문예출판사에서 그 전반부(1~6부)가 간행되었고, 1988년에 역시 문예출판사에서 그 후반부(7~10부)가 출판되었다. 작가 리중순이 쓴 이 작품은 1920년대말~1930년대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주)의 혁명적 투쟁 모습을 그려냈다. 『조선의 별』,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 문학사전, 국학자료원. (검색일: 2018년 3월 21일.)

과약할 수 있다면, 경수의 시한부 인생은 맹목적 체제 몰입형 인민과 그들 덕에 지탱되는 체제의 예정된 운명으로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시어머니가 풍을 만나기 전에 집을 확 나가버리지 못한 것이 천만 번 후회됐다. 무슨 미련과 정이 있다고 이토록 발목이 잡혀 있는지 자신이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였다. (정선화, 「사생아」, 153)

시어머니까지 풍을 맞아 환자가 되자 도의적 책임이 더 무거워진 순옥은 다시 남편을 더 빨리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순옥이 자신의 결혼을 일생 최대의 과오로 여기고 끝없이 후회하면서도 막상 떠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모습은 체제의 허위와 모순을 알게 되었다 해도 체제 이탈과 같은 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인민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두 인물의 불편하고 불안한 동거는 경수(嫡子)가 아내(私生兒)를 고발함으로써 종식된다. 경수는 충성 유형 가운데서도 우민의 애국심을 보이는 충성 유형이다. 그는 항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아내를 길들여보려는 얄은 수작으로 보위부에 신고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보호자이며 경제적 가장인 아내를 영영 잃게 된다. 체제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비롭지 않으며 끊임없이 국가의 사생아를 사회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는 속성을 갖는다.

아침 햇빛이 만들어 낸 경수의 길다란 그림자가 땅에 내쳐진 커다란 물고기마냥 처절하게 꿈틀거린다. 영혼도 생명도 없는 검은 그림자가 심하게 뒤틀리는 모양은 소름끼치게 을씨년스럽다. 순옥은 자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다가오려는 그림자를 피해 한걸음 물러서며 고드름 같은 눈빛으로 경수를 쏘아본다. (정선화, 「사생아」, 161, 밑줄은 연구자)

일견 체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체제의 허위와 모순을 자각하고 있는 순옥의 눈에 체제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수는 ‘영혼도 생명도 없는 검은 그림자’로 보인다. 순옥은 그런 그를 ‘머저리’<sup>123)</sup>라 부르며 ‘고드름’처럼 차가운 멸시를 던진다.

「사생아」에서 충성 유형과 내적 저항 유형의 두 인물이 현실에서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면, 「32년 전과 후」에서는 두 유형의 인물이 각자의 현실 응전 방식대로 살다가 32년 후 재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123) 정선화, 「사생아」, 160쪽.

32년 전 ‘당은 청년들을 천길 막장으로 부른다’는 김일성 교시가 있던 때 박경선과 최호는 회창군에 있는 광산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 어느 날 안전사고로 또 다른 친구 명수가 광산에서 죽는데 이 죽음을 계기로 명선과 호의 운명이 갈린다. 경선은 이 사고가 사람 목숨보다 생산과제 달성에 급급한 당의 정책 때문이라고 여기고 광산을 떠나지만 호는 떠나는 경선에게 혁명가는 초소를 가리지 말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상기시키며 그곳에 남는다.

“거짓말. 너도 그때 보지 않았어? 그 인간들이 저쪽에서 오랫동안 쭉덕거리던 걸 말야. 그들한테는 우리 같은 노동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어. 그저 어떻게든 생산계획만 빨리 끝내야겠기에 산 사람의 몸을 짓누르는 바위를 착암해서 밟아냈던 거야. 난 더는 못 있겠어. 당장 내일 아침 여길 떠나겠어.” (장해성, 「32년 전과 후」, 188)

명수가 죽은 후 책임자들은 명수가 이미 죽어서 그의 시신이라도 꺼내기 위해 착암하고 밟아냈다고 변명한다. 최호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만 박경선은 그 말이 거짓 핑계임을 간파한다. 「사생아」의 경수가 김일성의 혁명 초기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 청년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할 때마다 순욱이 그 영화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체제의 선전선동을 믿느냐, 의심하느냐 하는 것은 인물의 체제 몰입도에 달렸다. 애초에 고지식한<sup>124)</sup> 사람은 이쪽과 저쪽을 비교한 뒤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쪽만 본다. 대부분의 충성 유형의 인물들이 고지식한 면모가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체제 몰입도가 높은 호가 눈앞에서 명수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책임자들의 변명을 믿는 것에서 그의 맹목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경선은 「사생아」의 순욱처럼 이미 체제 밖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판<sup>125)</sup>할 수 있는 인물, 체제와 거리 두기가 가능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24) “경선은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에둘러가는 성격이었다. 최호는 모든 면에서 고지식하여 어떤 때는 안타깝기까지 했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180)

125) 고아인 줄 알았던 명수의 어머니가 생존해있음을 알았을 때, 경선은 명수에게 어머니가 오면 광산을 떠날 수 있어 좋겠다고 하자 명수는 따라가고 싶은데 광산에서 놔주겠는지 걱정한다. 경선은 당연히 놔주지 않겠냐고 하지만 호는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냐며 전적으로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를 보인다. 세 친구의 이 대화 장면은 명수의 소심한 성격, 호의 고지식함, 경선의 자기주도적 태도와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181~182)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목적하였던 것을 거의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과연 옳은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나 얼굴 뜨거운 것도 억척같이 참아왔던 그였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189)

그런데 광산을 떠난 경선은 아이러니하게도 당 선전부문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중앙텔레비전 기자가 된다. 열심히 일한 덕에 부유하게 살게 된 경선은 불현듯 자신이 옳은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그사이 나라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는데 그럼에도 체제 선전에 열을 올려왔던 자신에 대한 회의였다.

‘내적 저항’ 유형은 체제의 선전에 압도당하지 않고 체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허락하는 대로 자유롭고 독자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 유형은 체제의 모순을 자각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특징인데, 체제에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내적 저항’ 유형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유형의 인물은 반드시 ‘순응’형 혹은 ‘충성’형으로 위장하며 살 수밖에 없다. 위장하지 않고 체제에 저항한다면 「복귀」의 서장우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생일」의 박 영감처럼 강제수용소에 보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은 철저히 숨긴다.

누구를 탓하라. 경선이 자신이 이제까지 썼던 글이 바로 이런 말들이 아니었던가?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리 인민이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공화국을 봉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친애하는 지도자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이고, 그러면 고난의 행군도 낙원의 행군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시도 때도 없이 써대지 않았던가? (장해성, 「32년 전과 후」, 194)

다만 박경선이 체제의 모순을 자각하는 ‘내적 저항’형이면서도 당의 핵심 조직인 선전선동부에 속하는 중앙텔레비전 기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순응’형으로도 부족하고 ‘충성’형으로 위장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체제 몰입도의 갭(GAP)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모순에 대한 자의식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위 인용문에서 그러한 박경선의 고뇌가 나타난다. 빈궁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당과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친구 최호를 보며, 경선은 체제 선전자로서의 자기 회의의 실체를 마주한다.

「32년 전과 후」에서는 체제 선전의 허위에 분노하던 경선이 체제 선전을 직업으로 삼게 된 아이러니, 체제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경선은 오히려 체제의 혜택을 누리며 잘 사는데, 체제를 종교처럼 믿는 호는 오히려 체제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포착할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 선전선동을 끊임없이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이것이 ‘충성’ 유형, ‘순응’ 유형과 같은 체제 몰입형 인물들에 의해 주로 소비되고 있고, 체제 몰입에서 빠져나온 인물들은 선전선동을 소비(수용)하는 대신 내적으로 저항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꽃망울」과 「잔혹한 선물」에도 방송 차(방송 선전차)가 등장하여 북한 사회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전선동이 유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민들은 이를 소비(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역시 선전선동의 소비(수용)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인물의 체제 몰입도를 판단할 수 있다.

「잔혹한 선물」은 체제 선전을 소비(수용)하는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32년 전과 후」만큼 보여주는 소설이다.

방송차는 시종일관 돌격대원들의 노동을 독려하는데, 결국 잔혹한 대가를 치른 건 ‘순응’ 유형에 속하는 용일이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선전선동의 생산이 반드시 자발적 체제 몰입 상태인 ‘충성’ 유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소비는 ‘충성’ 혹은 ‘순응’형 인물들이 담당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잔혹한 대가를 치르는 것 또한 이들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수재」의 허수혁, 「이지러진 달」의 남자는 체제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한 이후 그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기를 거부한다. ‘그 이전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수혁에게는 물리학자의 꿈을 꾸던 삶, 남자에게는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 체제 안에 살지만, 이전에 자신들이 누리던 혜택과 체제에 헌신하는 삶으로 복귀하는 대신 자신의 독자적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32년 전과 후」의 박경선이 체제 선전의 허위와 모순을 깨닫고 바로 광산을 떠나는 것 역시 독자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저항’ 유형의 인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당히 체제가

시키는 대로 순응하는 척하면서 독자적 삶을 추구한다. 외양상 ‘순응’ 유형과 구분은 어려운 이유다. 기본적으로 두 유형의 구분 기준은 체제에 비판적인 내면 의식의 유무에 있다. 이들이 체제 안에서 사는 한, 그리고 체제에 반기를 들 수 없는 한, 이들은 어떻게든 무슨 일인가는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을 유형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수혁은 젊은 시절 해외 유학을 가서 물리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수재였으나 할머니가 출신성분을 숙였던 것이 들통나 어머니와 단둘이 산골 농장으로 추방당한다. 개성 지주에 월남자 가족이지만 할머니가 피난민 가족으로 출신성분 세탁을 하고 살았던 것이 누군가의 신고로 탄로난 것이다. 수혁은 추방당할 때만 해도 살림살이 하나를 포기하면서까지 물리학 책 한 권을 챙겨 나올 정도로 그 꿈에 미련이 있었다.

어느 날인가 나는 그가 책을 찢어 담배를 말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그의 손에서 책을 빼앗았다. 이제는 여기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며 이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남편이다. 이전에 내가 반했고 동경했던 문명세계의 말끔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략)

남편은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책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요. 담배를 말아 피우니 맛이 기막히군.”

남편은 그 책을 쪼개어 동네 남정네들에게 담배종이로 나누어 주었고 자신도 일 년 넘게 담배종이로 사용했다. (정선화, 「수재」, 135)

「수재」의 수혁은 그를 짝사랑하던 산골 토박이 ‘나’와 결혼한 후 물리학자로서의 미련을 버리고 철저한 농군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위 인용문은 수혁의 변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희망이고 분신이고 사랑이었던 물리학책을 찢어 담배를 말아 피우는 것에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삶에 대한 애착과 그러한 애착에 대한 자조, 그리고 과거의 삶에 대해 완전히 미련을 버리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의 체념과 자조는 언뜻 ‘순응’형 인물과 같다.

그런데 수혁이 추방당한 지 30여 년 후 당에서 그를 다시 물리학자로서 헌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중앙당 지도원의 말에도 수혁은 기뻐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시큰둥하다 결국은 고사(苦辭)한다.

가까이 가보니 남편은 놀이에 빠진 소년처럼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별레를 잡고 있다.

끝이 뭉툭하고 투박한 남편의 손이 유능한 외과의사 집게처럼 정확하고 재빨리 벌레를 잡아내는 양이 신기하다. (정선화, 「수재」, 129)

위 인용문은 당에서 복직시키기 위해 소환한다는 소식에도 시큰둥해하며 천진하게 벌레를 잡고 있는 수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산골로 추방되어 완전한 농군으로 변모되어 그 삶을 즐기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에서 그를 찾는 진짜 이유는 돈이었다. 수혁에게 월남한 큰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동생인 수혁의 아버지를 찾고 있으며 동생이나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면 북한에 막대한 현금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수혁은 당의 소환장에 끝내 불응하지만 대신 큰아버지와 상봉할 때 지금껏 과학자로 행복한 생활을 했다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 것을 당 조직에 다짐해야 했다. 당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내적 저항의 표출이고, 당 조직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저항심을 감추고 체제 순응적인 태도로 위장하는 모습의 발현이다.

「이지러진 달」의 남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보안서 간부부장이다. 상처(喪妻) 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과부 선영을 사랑하게 되지만 선영의 시택과 남자가 처가의 방해로 직위 해임되어 광산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지러진 달」의 남자는 체제로부터 버림을 받은 뒤 독자적인 삶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체제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체제와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독자적 삶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체제 몰입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요. 누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는 없소. 설사 그것이 부모라 해도 말이오.” (송시연, 「이지러진 달」, 189)

② “나 때문에 당신 앞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앞길을 막는 거야. 둘이 함께 있는데. 난 하나도 두렵지 않소.” (송시연, 「이지러진 달」, 202)

위 인용문은 남자의 자율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선영이 창창한 인생을 시부모의 각본대로 살아야 한다는 속박감을 느끼는 것과 달리 남자는 자기 삶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남자는 권력의 위계를 이용해 자신의 자율적인 삶을 방해하려는 처가(妻家)에 굴복하지 않는 길을 택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당

위원회에 한낱 지역 보안서가 대치하거나 반기를 들 수는 없다. 그것은 그가 속한 체제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남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굴복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대신 독자적인 삶을 포기하든가, 굴복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독자적인 삶을 지키든가 둘 중 하나뿐이다. 남자는 후자의 길을 택하고 이것이 그를 ‘내적 저항’형 인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진옥이」의 진옥이, 「제대군인」의 철혁이, 「재수 없는 날」의 금옥이와 창수 등 장마당 세대 인물들에게서는 정치 현실에 대한 ‘무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① 구루마꾼들은 보안서 주변을 벗어나자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구루마를 둘러 세우고 걸터앉아 투덜거렸다.

“에이 재수 없는 새끼들,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콧 싸 버렸으면 좋겠다.”

“뭐, 내일부터 우릴 직장 나가라고? 병신 같은 새끼, 직장 나가면 돈 주나, 쌀 주나.”

“그러게 말아야. 미친 새끼들, 우리절로 벌어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나저나 장마당에 가서 이 담배 팔아야겠다. 우리 처지에 비싼 담배 피면 입술이 부르튼다.”

“근데 이 담배는 아까 울상 짓고 나가던 그 여자한테 뺏은 것 같아. 우릴 주자고 장마당에 나가 단속해 잡아 왔겠지. 좃같은 새끼들, 주겠으면 제 주머니 털어 줄 게지.”

“어어, 그 새끼들이 뭐가 안타까워서, 해가 서쪽에 뜰 소리지. 보안원 자리가 좋긴 좋다.”

“좋으면 너두 좀 돼봐라.”

“인마, 성분이 나쁜데 어떻게 되니? 우리 할아버지 월남자란 말야. 헤헤” (도명학, 「재수 없는 날」, 190)

② 창수는 무리가 주절대는 소리를 멍하니 듣다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배속이 계속 난동을 부린다. 얼른 장마당부터 가야지. 구루마가 덜컹대는 소리와 배속의 우레 소리가 뒤섞여 분간이 안 된다. 우선은 뭘 먹어야 재네 말마따나 사회주의든 구루마든 지키지. (도명학, 「재수 없는 날」, 190~191)

「재수 없는 날」의 창수는 남의 구루마로 하루 벌이를 나갔다가 재수 없게도 다른 구루마꾼 무리와 함께 시체 치우는 일에 강제 동원된다. 강제 동원에서 해제된 이후 ‘내적 저항’형과 ‘욕망 추구’형 인물의 사회 비판 인식은 차이를 보인다. 인용문 ①의 구루마꾼들은 위장된 체제 몰입형인 ‘내적 저항’형일 것으로 추

측된다. 일이 끝나고 구루마꾼들은 보안원을 뒤에서 욕하고 출신성분제를 비꼬며 농담을 한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인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공연하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은 일견 의미있는 포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장된 체제 몰입이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 단위로 체제 위장의 단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욕망 추구’형인 창수는 무리에 끼어 얘기를 나누지 않고 끼니를 해결할 일이 더 급하다. “뭘 먹어야 사회주의든 구루마든 지키지.” 하면서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는 창수의 의식은 민생고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들이 정치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내적 저항 유형의 확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 4) 체제 이탈과 ‘외적 저항’

‘외적 저항’형은 체제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으로 ‘탈북’ 혹은 ‘국경 넘기’의 현실 대응을 보이는 유형이다.

「인간의 향기」의 김문성, 「죄와 벌」의 지순영, 「용서」의 진철 부부, 「칠보산」의 승우네 가족, 「생일」의 박 영감네 가족, 「복귀」의 서장우 가족, 「코 빨 소년」의 상철네 가족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복귀」의 서장우는 자신은 포박된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국경 넘기를 감행하지는 못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친구를 시켜 아내와 딸을 탈북시킨 것을 볼 때 포박된 상태만 아니었다면 자신 역시 탈북을 감행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탈북이라는 용어 대신 ‘외적 저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서장우처럼 실질적으로 국경을 넘지는 않지만 체제에 저항을 표출하는 인물까지 포괄하기 위해서이다.

‘외적 저항’을 추동하는 요인은 자비 없는 국가에 대한 공포와 배신감, 해외 경험과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자각, 자식의 장래 문제로 형상화되고 있다.

자비 없는 국가에 대한 공포와 배신감이 외적 저항 요인으로 작용하는 인물은 「인간의 향기」의 김문성, 「죄와 벌」의 지순영, 「용서」의 진철 부부, 「칠보산」의 승우네 가족, 「생일」의 박 영감, 「복귀」의 서장우이다. 이들은 모두 죄와 연루되어 있다. 특히 김문성만 자신의 죄와 관련되고, 나머지 인물들은 연좌제에 대한 두려움이 체제 이탈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생각해보면 평생을 한 순간도 국가를 위한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이익보다 원칙과 규범을 지키려 했고 삶의 첫 자리에 맡겨진 일을 놓았다. 어떤 사리사욕도 부정도 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인정받았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가 바란 건 만년을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는 것이었다. (송시연, 「칠보산」, 223)

「칠보산」의 승우는 그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특각(별장) 뒷산에 불이 난 책임을 지고 해임철직 되는데 자신 때문에 보위부에 갓 입사한 아들까지 해임되는 등 일가족이 북한 사회에서 더는 희망을 바랄 수 없게 되자 조국에 대한 배신감, 억울함을 느낀다.

① “(전략) 남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여 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수금하곤 했지. 잠도 못 자며 아내와 딸에게 색다른 음식과 좋은 옷도 못 입히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여 당에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었소. 지난 10여 년간 내가 바친 외화만 해도 실히 수백만 달러는 넘었을 거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차례진 것은 차디찬 수갑뿐이었소. 이국의 하늘 아래 휘 뿌려진 내 충성스런 땀이 결국 반역이라는 철퇴로 변해 나를 사정없이 쳐 갈겼단 말이요. 배신은 한 번이면 족하오.” (이지명, 「복귀」, 237~238)

② “그런 복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복귀를 원했던 거요?”

“부디 복귀를 원했다면 그건 아마 인간 복귀겠지요.” (이지명, 「복귀」, 239)

「복귀」의 서장우는 무역일꾼으로 당의 외화벌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남측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강제수용소에 가게 된다. 위 인용문 ①은 국가에 대해 느끼는 서장우의 배신감과 억울함을 보여주고, ②에서는 이전 직업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체제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공표하고 있다. ‘내적 저항’ 유형의 인물들이 ‘순응’ 유형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소설에서 알 수 있는데, ‘순응’ 유형으로 위장하지 않고 서장우처럼 체제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밖으로 천명하는 순간 사형이 예정되기 때문이다.

「용서」의 진철은 외교관인 아버지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송환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효영은 조국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순진한 면모를 보이지만 이들의 바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효영의 친정에서 혹시라도 딸이 시아버지 일로 수용소에 가게 될까 봐 미리 이혼을 시킨 것도 연좌에 걸릴 위험 때문이다. 조국의 단죄에 대한 인민들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죄와 벌」의 지순영은 재중 북한영사관 총영사인 남편이 장성택 처형 이후 장성택 라인으로 지

목되어 북한에서 처형당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탈북한다. 「생일」의 박 영감은 전쟁 때 국군에 끌려가 피살된 줄 알았던 형이 한국에서 큰 부자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 장래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출신성분이 월남자 가족인 것이 탄로나면 자식들의 사회적 입지가 매우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향기」의 김문성은 보안원으로서 범죄인 신분이었던 한유진을 범망에서 피해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범죄인과 살림을 차린 이유로 단죄받을 위기에 처한다.

그런데 이들의 외적 저항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진철 부부는 도강 중 총살당하고, 박 영감네 일가족은 수용소에 갇혀 짐승 취급을 받는다. 서장우는 사형이 예정되어 있다. 「용서」는 그 제목에서부터 경제적 요인 이외에 북한 인민들의 탈북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한번 죄를 지으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연좌제로 가문이 함께 단죄받고, 출신성분 때문에 그 이력이 후대에까지 낙인으로 남기 때문이다. 자비 없는 국가는 인민들의 체제 이탈을 막는 동시에, 체제 이탈의 추동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유형의 인물들이 북한 사회의 수혜 계층으로서 해외 경험을 통해 다른 세상의 존재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죄와 벌」의 지순영, 「복귀」의 서장우, 「코 빨 소년」의 상철은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고, 「칠보산」의 승우, 「용서」의 진철은 중국, 유럽 등에서 잠깐이나마 지내본 경험이 있다.

이러한 해외 경험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나라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자각으로 이어지며 이들의 체제 이탈을 추동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물론 이러한 자각만으로 체제 이탈을 결행하지는 않는다. 「코 빨 소년」의 상철의 경우에는 이것이 가장 큰 체제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나머지 인물들에게서는 부차적인 요인, 이를테면 일종의 자신감 정도로 작용하고 있다.

(전략) 차라리 북한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빠 엄마가 저를 외국이란 세상 밖으로 데려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던 조선의 모든 것이 세상 전 부라고 느끼고 살았더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중략) 아빠 엄마를 따라 이곳에 온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도 넓고,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도 희망찬 세상들이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하략) (곽문안, 「코 빨 소년」, 305~307)

위 인용문은 상철이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 전에 부모님께 쓴 편지의 일부다. 상철은 조국을 세상 전부로 알았더라면 몰랐을 고통을 외국에 나와 겪게 된다. 북한에만 있었다면 머지않아 장군님의 영도하에 강성대국을 이루리라는 체제의 선전을 믿으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타국에서 가난한 나라, 독재 국가에서 온 아이라는 멸시를 받으며 세계 속에 조국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부상한 걸 보면서 조국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결심도 해보지만, 인질 제도나 다른 없는 조국의 해외 공관 자녀 귀국 지시를 듣고 그러한 결심은 절망으로 바뀐다.

해외 체류 경험을 한 상철은 폐쇄적인 환경에 놓인 보통의 인민들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조국의 위상, 지도자의 리더십, 정부 정책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세계 인식에 기반한 상철의 체제 이탈은 자신의 죄 혹은 연좌로 인해 국가로부터 단죄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체제를 이탈하는 다른 인물들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상철 만큼은 아니지만 「칠보산」의 승우는 북한 밖의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잠깐의 경험을 내면의식에 깊게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가 체제를 비판하는 언행을 한 일로 연좌되어 부하 직원 남호가 어느 깊은 산골로 추방되는데, 승우는 이 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남호의 아버지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연좌제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외사대표단으로 다녀왔던 중국을 떠올린다.

풍요로웠다. 기실 천국이였다. 다양한 먹을거리들과 자유로운 사람들, 가지각색 옷차림들,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마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을 것이다. 승우는 본부로 나갈 때마다 초라해지고 말라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기아로 숨겨진 주검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송시연, 「칠보산」, 212)

흥미로운 점은 승우가 체제 비판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중국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이 다른 나라의 자유로움, 풍요로움과 자연스럽게 대비되면서 다른 사회 체제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우의 아들이 먼저 탈북을 한 뒤 부모에게 탈북을 권유하는데, 아들 역시 아

버지 일로 보위부에서 해임되고 시작한 장사 때문에 ‘이국을 넘나들더니’ 탈북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자각이 체제 이탈을 추동한 것이다.

-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메모를 읽은 승우는 눈물이 났다.

‘그래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야. 내가 십 년 전에 보았던 그곳, 그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거야.’ 승우는 온몸에 힘을 모아 걸음을 내짚었다.

그토록 아름답던 칠보산이 더는 아름답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승우는 깊은 그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송시연, 「칠보산」, 224~225)

이 소설의 도입은 특각이 위치한 칠보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국 북한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던 칠보산이 이제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는 길에는 더 이상 아름답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곳이 더는 아름답지 않다는 자각과 동시에 깊은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모습은 체제 몰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를 연상케 한다. ‘온몸에 힘을 모아’ 내짚는 걸음은 실제로 그러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sup>126)</sup>

「용서」의 진철 역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한다. 그 역시 어릴 때 외교관인 아버지 덕에 북유럽에서 휴양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진짜 좋았다’고 추억한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너무 좁다며 넓은 바깥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해외 경험과 그로 인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체제 이탈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경험 주체의 나이 또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철네 가족이 모두 에티오피아에서 6년을 살았지만 10대인 상철은 바깥세상의 정보를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상철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조국이 가난한 독재 국가라는 말을 듣고 자신 또한 멸시받았던 경험을 엄마인 보경에게 털어놓았을 때, 보경은 ‘우리나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을 이룩하면 머지않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sup>127)</sup>’ 것이라고 말한다.

126) ‘내적 저항’ 유형인 「사생아」의 순옥은 라디오를 통해 김일성의 역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지만, ‘라디오 속 세상’을 상상으로만 엿볼 뿐이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보통인 민인 순옥에게 그 세상은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다른 행성과 같은 신비한 세상’ 같아서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대조된다.

127) 광문안, 「코 빨 소년」, 286쪽.

이러한 판에 박힌 말은 충성 유형인 「32년 전과 후」의 최호도 했다.<sup>128)</sup> 또한 상철이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탈북을 선언하였을 때, 상철의 아버지 윤식은 조국을 배신하겠냐고 아들을 나무란다. 세계 속의 조국의 위상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10대 상철과 달리 그의 부모는 기성세대답게 여전히 순응 혹은 충성의 유형으로 위장하며 조심스럽게 살기를 바란다.

「칠보산」의 승우 역시 북한을 떠나면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뜻 체제를 이탈할 생각은 못한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자유로운 세상의 존재를 안 뒤 체제 이탈을 결행하고 부모에게도 그러한 세상으로 떠나올 것을 종용한다.

이상의 작품 분석을 통해 수혜 계층의 해외 경험이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면서 체제 이탈의 직·간접적인 추동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아울러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에 비해 이러한 해외 경험에 더욱 민감하게 자극 받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경제적 요인으로 탈북하는 경우 자식은 먹여 살려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이러한 자식의 존재는 국경 넘기를 추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억압의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으로서의 외적 저항 역시 자식이 추동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자식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장래나 신변 안전 등을 위해 체제를 이탈한다는 점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 일정 부분 연좌제와 관련이 있다.

경제 외적 요인으로 체제를 이탈하는 인물들은 대개 북한 사회의 수혜 계층들이기 때문에 생계 문제의 절박함은 훨씬 덜 하다. 권력 기관 고위층에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자식의 장래다.

형님은 남쪽에 와 살자고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형님이 살아있는 사실이 언제 알려질지 모른다. 박영감은 간부만 해먹다 정년을 맞았으니 더 출세할 일도 없지만 자식들 장래가 걱정이었다. 언제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처지에 그냥 살 수는 없었다. (도명학, 「생일」, 218)

박 영감 자신은 직원 3천명을 거느린 기계공장의 지배인으로 정년을 맞았지만

128) “우린 비록 이렇게 살지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는 한 언젠가는 꼭 잘 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장해성, 「32년 전과 후」, 194쪽.

월남자 가족이 있다는 것이 탄로나 출신성분이 바뀐다면 자식들의 장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위 인용문에서 자식의 장래 문제가 박 영감이 체제 이탈을 결행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복귀」의 서장우, 「칠보산」의 승우도 제일 먼저 자식의 장래를 걱정한다. 또 다른 세상,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의 존재를 알면서도 선뜻 체제 이탈을 결행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사회에서 아직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남아있었다는 점도 주요했을 것이다. 기득권의 대물림이 좌절된 상황에서 아들이 먼저 안전하게 체제 이탈을 감행한 이상 승우 내외가 아들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국에서 보낸 자녀 귀국 지시를 듣고 실망했습니다. 아니 절망했어요. 결국 내 나라라고 여겼던 곳은 제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뛰어도 모자랄 판에 탈북을 막기 위한 인질확보차원에서 내려진 지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미래가 없다고요. 더 이상 그곳은 희망을 싹틔울 곳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가난 속에 기죽고 살긴 싫어요. 더 이상 세상의 왕따가 되기는 싫어요. (중략) 부디 아빠 엄마도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저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아빠 엄마도 제 결심을 지지해주시고 따라주세요. 제가 죽고 사는 것은 이제.....아빠 엄마의 결심에 달려있습니다. (곽문안, 「코 빨 소년」, 307, 밑줄은 연구자)

「코 빨 소년」의 상철이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 탈북하겠다고 했을 때, 윤식은 처음에 아들을 나무라고 협박하면서 말린다. 하지만 아들이 써둔 편지를 통해 아들의 탈북 결심이 충동적 행위가 아니라 사려 깊은 세계 인식에 기반한다는 것을 깨닫고 윤식은 가족이 함께 탈북할 결심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들이 북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자식만 떠나 보낼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윤식의 체제 이탈 결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신성분과 연좌제는 다른 추동 요인보다도 강한 불만 요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탈북을 추동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탈북자의 귀향을 막는 제도로써 탈북작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연관되기 때문에 소설에서 강력한 비판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V. 결론

문학에서 ‘탈북자’는 1990년대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 혹은 궁핍한 경제 상황(역사성)의 북한(공간성)이라는 크로노토프<sup>129)</sup>를 함의한 존재이면서, 그들이 실존했던 그리고 현재 실존하는 공간의 역사성까지 함의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탈북자가 갖는 이러한 복합적 시공성이야말로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의 집약체이다. 어쩌면 디아스포라는 장소적 이산성(離散性)이 아닌 복합적 시공성의 관점에서 재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디아스포라 정의에서는 그들의 이산(離散)의 단서인 시간성(역사성)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탈북자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탈북작가가 월경(越境) 전 그들이 체험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보이며, 이것이 그들 문학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이들 작품에 형상화된 인물은 저마다 크로노토프적 전형성을 갖는다. “인간 형상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크로노토프적”<sup>130)</sup>인데, 특히 역사성을 강조하는 문학에서의 인간 형상은 그 시대의 전형으로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들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이해하기 위해 II장에서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작중인물이 처한 현실은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이라는 현실의 두 층위로 구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경제적 현실은 대량 아사 사태를 수반한 고난의 행군, 이를 계기로 등장한 사회주의 속 ‘장마당’ 경제, 자본주의 풍조 속에서 심화되는 경쟁과 적자생존 인식에서 오는 실존의 불안, 빈부 격차의 문제 등이 주요 모티프로 등장한다. 탈북작가들이 증언하는 경제적 현실의 요체는 가난이지만 가난은 단지 부(富)나 식량의 결핍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난은 인심과 인정의 결핍 상태를 초래했으며, 가난의 극복을 위해 등장한 장마당 경제는 배금(拜金)의 가치관과 함께 실존

129) 바흐젠은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에 불가분의 내적 연관을 크로노토프(Chronotope)라고 불렀다. 크로노토프는 문자 그대로 ‘시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크로노토프는 문학의 형식적 구성범주로서 문학예술 속의 크로노토프에서는 공간적 지표와 시간적 지표가 용의주도하게 짜여진 구체적 전체로서 융합된다. 미하일 바흐젠, 같은 책, 260~261쪽.

130) 같은 책, 261쪽.

의 불안으로 인한 윤리의 결핍 상태를 야기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은 대상 작품에서 ‘결핍의 현실’로 재현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시간성)과 사회성(공간성) 지표의 결합으로 창조된 인물 형상이 바로 ‘생존 추구’형, ‘모성 추구’형, ‘욕망 추구’형, ‘국경 넘기’형이다.

정치적 현실은 경제적 요인 이외의 정치, 사회 등 체제 전반의 요인을 폭넓게 포괄하여 ‘억압의 현실’로 규정하였다. 소설에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개 처형, 강제수용소(감옥), 추방, 출신성분, 연좌제, 선전선동, 공권력과 같은 각종 법과 제도 및 부정부패 등의 상황 일체는 인민을 억압하는 폭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억압의 현실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물의 언행과 내면의식에 영향을 주는 관념의 영역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억압의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은 인물의 체제 몰입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과 사회성의 결합으로 창조된 인물 형상이 ‘충성’형, ‘순응’형, ‘내적 저항’형, ‘외적 저항’형이다.

각 인물 유형이 소설에서 재현된 고유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함의할 뿐 아니라 그 크로노토프적 전형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존재라면, 공존하는 여덟 개의 인물 유형의 종합적인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물 유형간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첫째, 경제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은 여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정치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은 남자들이 우세한 것으로 재현되었다. 엄밀히 말해서 경제 현실의 대응 중 ‘모성 추구’형만 남자들이 우세하였고, 정치 현실의 대응 중 ‘순응’형만 여자들이 우세하였다.

둘째, 경제 요인에 의한 탈북은 여성 주도적으로 재현되었고, 정치 현실에 의한 탈북은 남성 주도적으로 재현되었다.

셋째, 여성의 경우에는 체제 몰입도에 상관없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충성’형이나 ‘외적 저항’형보다는 ‘순응’이나 ‘내적 저항’형으로 훨씬 많이 형상화되고 있다.

넷째, 정치 현실에 대한 충성 대응형 인물들은 대개 경제 현실에 무능한 남자들로 재현되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국가 배급이 중단되면서 경제 활동에 무력해진 남자들을

대신해 여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발 벗고 나서게 된 현상과 많은 부분 관련이 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여자들의 강한 생존 본능과 모성애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은 여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정치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은 남자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한 현실의 배경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부장적 국가관, 전체주의적 인간관은 어버이로 호명되는 국가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희생하는 인민상을 구축한다. 이러한 국가관과 인간관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어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모성애가 강조되고 여성들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미지로 고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모성 추구’형 인물들이 모두 남성 작가에 의해 창조되고 있는 것은 남성 탈북작가들 역시 북한에서의 가부장적 세계관, 전체주의적 인간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욕망 추구’형은 북한 사회의 눈에 띄는 변화상을 보여준다. 이 유형의 인물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여성 작가에 의해 창조된 점도 주목된다. 특히 진옥이의 성적 패륜, 강박적인 피임, 충격적인 낙태 장면의 형상화는 여성을 모성애와 여성성의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더 이상 북한 여성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혁은 이 유형에 속하는 유일한 남성 인물로서 연상의 과부 화순의 막대한 재력에 감탄하며 그를 신처럼 여기기까지 한다. 이것은 장마당 세대의 극단적 배금(拜金)의 내면의식을 형상화한 것이지만, 경제적 고난을 계기로 생계 책임의 주체로 나서게 된 여성들이 새로운 계급 주체로 부상하여 오히려 낡은 계급이 되어버린 남성들의 우위에 서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념적 계급 질서의 와해와 부(富)에 의한 계급 재편을 형상화하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욕망 추구’형은 ‘장마당’ 경제가 부상한 이후 북한 사회에 만연한 경쟁주의 원리, 이기심과 개인주의, 拜金의 가치관 등 자본주의 풍조, 뇌물 문화로 대변되는 부정부패, 북한의 계급 질서 와해 분위기 등 북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유형이다.

정치 현실의 대응 유형 중에서는 ‘내적 저항’ 유형이 주목된다. 그 이유로 체제 몰입 위장(偽裝) 단위와 내적 저항 성격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감

시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인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공연하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단위의 위장(偽裝)된 체제 몰입’에서 ‘연대를 형성한 사람들끼리의 위장(偽裝)된 체제 몰입’으로 체제 몰입의 위장(偽裝) 단위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체제의 모순에 대한 자각과 비판의식이 ‘내적 저항’형의 주요 특징이었다면, ‘욕망 추구’형에게서 포착되는 체제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의 경향 역시 ‘내적 저항’ 유형의 새로운 성격으로 이해된다. 무관심의 경향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기 아닌 다른 곳이어도 상관없다는 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같이 내적 저항 유형은 선전선동의 수용자가 아니고 체제와 거리 두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확대는 북한 사회의 유의미한 인식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출된 인물 유형을 종합해보면 ‘전체주의 인간’에서 ‘개인’으로의 변화로 요약된다. ‘생존 추구’와 ‘모성 추구’형, ‘충성’과 ‘순응’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 희생과 순종의 성향이 강하다. 앞의 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성’나 뒤의 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부장적 세계관’은 각각 희생과 순종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개인을 전체주의 안에 함몰시킨다. 그런데 ‘욕망 추구’와 ‘국경 넘기’형, ‘내적 저항’과 ‘외적 저항’형에 오면 비로소 전체주의에서 이탈하는 ‘개인’이 나타난다. 이들 유형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삶의 추구 현상이야말로 운명 공동체라는 관념에서 이탈하는 ‘개인 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설에서 재현된 ‘개인’은 사회 개혁 주체로서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전의 전체주의적 인간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욕망 추구’형에서 보이는 속물성과 무비판성, ‘내적 저항’형의 소극성은 사회 변혁의 주체로 부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내적 저항 유형의 체제 몰입 위장(偽裝) 단위의 확대가 유의미한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여전히 집단 간 연대의 결속이 약하다.

탈북작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체주의적 인간’의 형상에서 ‘개인’의 형상으로 인간 형상에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후자의 인간 형상도 결국 “뭘 먹어야 사회주의든 구루마든 지킬”<sup>131)</sup> 것 아니겠냐는 생활인으로서

131) 이것은 구루마꾼 창수의 내적 독백이다. (도명학, 「채수 없는 날」, 190쪽) 창수는 III장 1절 3항 ‘욕망

의 감각만 기형적으로 발달했을 뿐 체제 순응의 구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남녘땅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북녘땅 사람들에게도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sup>132)</sup>을 갖고 적극적인 고발과 증언 의식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작품에 배어있는 무력감과 구태의연함은 일종의 모순이며 한계로 남는다. 탈북작가들은 이것이 사실주의의 결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현된 세계는 아무리 사실적이고 진실에 충실하다고 해도” “재현하는 실제 세계와 크로노토프상으로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133)</sup> 그럼에도 탈북작가들은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 오히려 문학적 상상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지금의 북한 문학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탈북작가의 문제의식에 의한 반동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학적 상상력이 결핍된 소설보다 차라리 “가냘프지만 절절한 ‘항거의 정신’을 담고 있는 ‘판타지’문학”<sup>134)</sup>이 어쩌면 더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질지도 모른다. 탈북작가 소설에서 보이는 ‘무력감’이 사실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권력자에 의해 오랜 시간 “박탈당한 상상력”<sup>135)</sup>의 결과는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 작품들은 북한에서의 부정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증언하기 위해 문학을 수단으로 삼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학이 도구화될 때 어용(御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탈북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조직적 연대 안에서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지게 된 것은 겨우 최근의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 문학의 한계

---

추구’형에서 다른 인물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내적 저항’형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양적 확대가 사회 변혁의 주체 탄생이라는 질적 확대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132) 장해성, 위 ‘권두 칼럼’.

133) 바흐찐, 같은 책, 466쪽.

134) 현인애, 『수령형상문학과 판타지』, 95~107쪽.

135) 제일 조선인 서경식은 다수자가 만든 ‘비폭력주의’의 위선을 꼬집으며, 다수자가 권 ‘비폭력주의’의 해머가 소설에서조차 복수를 꿈꾸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 소수자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소수자의 최후의 상상력마저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서경식은 이것을 소수자의 ‘박탈당한 상상력’이라고 하였다. 소설의 세계에서 ‘가장 저열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비폭력주의’의 해머에 대항하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 문학의 힘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다수자에 의한 박탈이 아니라 권력자에 의한 피지배자의 상상력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박탈당한 상상력’을 썼다. 상상력도 서경식이 말한 비폭력주의를 전복할 상상력에 국한하지 않고 훨씬 광범위하게 문학적 상상력을 염두에 두었다.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14, 59~65쪽.

를 지적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다만 북한 사회의 어두운 면만 부각하고 비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가, 절대 권력의 억압적인 정치 아래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 사회 고발의 첫 과업이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탈북자 현인애의 지적처럼 “과도한 사명감이 오히려 사명감을 다할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학적 상상력 안에 사명감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작가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덧붙임으로써 이 연구의 의의를 대신하려고 한다. 그동안 탈북작가 문학의 의의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주제의식, 고향과 가족을 떠난 탈북자의 슬픔과 소외 상황, ‘세련된 리얼리즘’이라는 한국 문학사의 전통”<sup>136)</sup>에서 찾거나 “분단문학의 경계 작품, 월남 작가와의 연계성, 이주자 문학으로서의 보편성”<sup>137)</sup>에서 찾는 관점이 있었다.

탈북작가 문학의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한편 여기에서는 문학의 정체성 측면에서 탈북작가 문학의 의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탈북작가의 문학은 북한 문학의 특이한 한 양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망명북한작가센터가 국제 PEN 회원으로 승인되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별도로 국제펜 망명북한작가센터를 결성하고 승인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들을 북한작가로, 이들의 문학을 북한 문학으로 암묵적으로 공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방민호는 탈북작가를 “북한을 탈출해서 여기서 북한 출신의 작가라는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북한문제를 말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한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탈북작가”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sup>138)</sup> 하지만 문학의 존재 양상과 가치는 다양하므로 북한에서 창작되는 문학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탈북작가의 문학이 북한 문학을 대표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해도 탈북작가의 문학을 ‘북한 문학의 특이한 한 양상’ 정도로는 이해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종합하면 ‘망명북한작가센터’라는 명칭에서 엿볼 수 있는 ‘북한 작가’로서의 자의식<sup>139)</sup>과 공인성

136) 박덕규는 1995~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탈북작가 작품은 “북한의 독재 권력의 횡포와 이에 대한 주민의 피해 상황을 고발하거나, 분단의 심화로 이질화된 남북한 상황을 드러내는 기능”을 해온 데 비해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본문에서 인용한 것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박덕규, 같은 논문, 107쪽.

137)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2쪽, 166~170쪽.

138) 「방민호 교수와의 일문일답」, 41쪽.

139) 연구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PEN 문학지 한 권을 구하는 과정에서 망명북한작가센터에 도움을 요

(公認性), 이들 작품에서 발견되는 북한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강한 고발정신, 그리고 이들의 창작이 북한의 관치 문학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탈북작가의 문학을 북한 문학의 한 양상으로 보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서도 ‘특이한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들이 한국 국민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창작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탈북작가의 문학은 북한 문학과 남한 문학의 혼종성을 보이며 북한에서 창작되는 북한 문학과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sup>140)</sup> 그동안 이들의 문학을 한국문학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고민하면서 ‘탈북 문학’으로 규정하고, 이들 작가를 ‘탈북작가’로 호명해왔다. 실제로 북한 문학의 ‘특이한 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이들 작가군과 문학은 분명히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군, 작품과 구별될 필요 또한 있다. 현재의 ‘탈북 문학’ 개념이 한국 작가의 탈북 문학을 의미하는지, 탈북작가의 탈북 문학을 의미하는지, 탈북을 소재로 하지 않아도 탈북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호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탈북작가의 소설을 ‘탈북작가’ 혹은 ‘망명북한작가’의 ‘북한 문학’으로 호명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작가의 문학이 북한 문학의 특이한 한 양상으로 존재한다면, 북한 문학의 또 다른 양상으로 ‘저항문학’의 존재 가능성도 있다. 반디의 단편 소설집 『고발』의 존재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디는 필명으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조선작가 동맹 중앙위원회 소속 작가이며 1950년생이라고 알려져 있다. 7편의 단편소설 원고를 탈북한 친척의 인편에 내보낸 것이 『고발』<sup>141)</sup>이라는 소설집으로 출판되었

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탈북 작가 한 분이 문학지를 보내주면서 “북한 문학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고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탈북작가들의 북한인, 북한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이들의 창작이 북한 문학의 정체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규정보다 이들의 자기 정체성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140) 「단군릉과 노 교수」는 다른 작품들이 ‘단편소설’이라는 이름 아래 실린 것과 달리 ‘년픽션 소설’이라는 이름 아래 실림으로써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영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해당 작품이 단편소설인지 중편소설인지 장편소설인지 방문기인지 수기인지 오체르크인지 정론인지 평론인지 서정시인지 서사시인지 가사인지 등을 그 작품의 서두에 명기하여 제시하는 문학예술적 전통이 있다”(231쪽)고 한다. ‘년픽션 소설’임을 명기한 것은 북한 문학의 전통에서 온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남한에서 받아들여지는 허구, 즉 소설로 치부되는 것에 저항”(232쪽)하는 것 혹은 기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창간호 이후에는 모두 단편소설로 통일하고 있고, 년픽션 소설이라는 장르 명칭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탈북작가들의 “내면에서부터의 변동, 문화적 갈등, 그리고 나아가 한국문학의 장르로서 문화적으로 동화하려는 형식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233~234쪽)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인용 쪽수는 괄호 참조) 탈북작가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북한 문학적 특성과 혼종성, 시간에 따른 한국문학에로의 양식적 동화 현상은 탈북작가 문학의 특이한 존재 양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독일에서 “국가의 통제를 피하면서도 나치 체제를 비판하고자 한 저항문학”이 실제로는 “‘서랍 속의 문학’에 머물거나, 자아 세계나 자연으로 후퇴하여 저항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로부터 문학의 영역 안으로 물러서는 개인주의적 형식”<sup>142)</sup>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서랍 속의 문학’의 형태로, ‘개인주의적 형식’으로, 혹은 현인애의 말처럼 ‘판타지 문학’ 형태로 작가의 저항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에 반영되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이러한 가능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현 북한 작가가 쓴 『고발』의 존재를 통해 북한에 또 다른 형태의 저항문학의 존재 가능성까지도 짐작해보게 된다.

북한의 문제가 탈북작가에 의해서든 북한에 현존하는 작가에 의해서든 북한인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의 문학을 통해 이야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기 운명에 대처하는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학, 남한 문학이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이라는 큰 틀 안에 포섭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탈북작가의 문학이 북한 문학의 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결국 한국문학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는 일이다. 아직은 요원해 보이지만 한국 작가들의 탈북 문학, 남북공동소설 집,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등 의미 있는 시도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전망이 아주 어둡지만은 않아 보인다.

---

141) 이 책은 2014년 조갑제닷컴에서 출판되었고 다시 2017년에 다산책방에서 출판되었다. 연구자는 2017년에 출판된 책을 참조하였다. 반디, 『고발』, 다산책방, 2017.

142) Vgl. Wolfgang Beutin (Mitverf.):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vo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Stuttgart 1989, S. 396: "Der Rückzug der Autoren auf sich selbst und die Natur war [...] keine Widerstandshandlung, sondern eine individualistische Form des Rückzugs aus der Gegenwart in das Reich der Poesie." ; 조영준, 『퀸터 그라스의 「양철북」 - 독일 소시민사회의 해부 -』, 한국학술정보(주), 2004, 42쪽에서 재인용.

## 【 참고 문헌 】

### 1. 텍스트

#### 1) 대상 텍스트

- 윤후명 외, 『국경을 넘는 그림자』, 예옥, 2015.  
이경자 외, 『금덩이 이야기』, 예옥, 2017.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창간호, 등대지기, 2013.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2호, 등대지기, 2014..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3호, 등대지기, 2015.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4호, 등대지기, 2016.

#### 2) 참고 텍스트

##### ① 탈북작가의 탈북 문학

-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Aquarium of Pyongyang)』, 시대정신, 2005.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웅진닷컴, 2012.  
이향구, 『소설 김일성』 1~3권, 신태양사, 1993.  
조영호 증언, 이철원 기록, 『평꼬』, 금문서관, 1995.

##### ② 한국작가의 탈북 문학

- 정도상, 『찢레꽃』, 창비, 2009.  
황석영, 『바리테기』, 창비, 2007.

##### ③ 익명의 북한작가의 작품 (북한의 검열을 받지 않은 작품)

- 반디, 『고발』, 다산책방, 2017.

### 2. 참고 논저

#### 1) 국내 논저

강학순, 『존재와 공간-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한길사, 2011.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소화, 2009.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6.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2000.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북한의 당·국가기구·군』,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7.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관계 이론」,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조영준, 『퀸터 그라스의 「양철북」 - 독일 소시민사회의 해부 -』, 한국학술정보(주), 2004.

## 2) 해외 논저

미하일 바흐진,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버나드 J. 패리스, 「작중인물과 함축된 작자 - 심리학의 용도」, 김병욱 편자, 최상규 옮김,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14.

아담 스미스, 박세일·민경국 옮김,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제라르 주네트, 「서술 이론」, 석경정·여홍상·윤효녕·김종갑 엮음,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솔, 1997,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출판사, 2008.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옮김,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칼 폴라니,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2009.

홉스, 김용환 옮김, 『리바이어던』, 살림출판사, 2005.

H. 포터 애벗,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4.

## 3) 논문·평론

### ① 탈북 문학 관련 논문·평론

- 강미라, 「황석영의 바리테기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 바리테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2집, 한국문학회, 2009, 215~245쪽.
-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 -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 생활연구』, 제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141~169쪽.
-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한중인문학회, 2012, 291~310쪽.
-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소설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 - 탈북을 통한 지향점과 탈북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5~86쪽.
- 김영미, 「탈북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는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구.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5~31쪽.
- 김은아, 「이산의 비극성을 통한 분단의 현재성 고찰」,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호, 국제한인문학회, 2014, 91~113쪽.
-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제5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67~293쪽.
- 김재영, 「황석영 소설 『바리테기』에 나타난 탈근대적 인식과 형식적 특성」, 『우리말글』, 제55집, 우리말글학회, 2012, 267~288쪽.
-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 -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305~332쪽.
- 박덕규, 「탈북 문학의 형성과 전개양상」, 『한국문예창작』, 제14권 제3호 통권 35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89~113쪽.
- 서세림, 「탈북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 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52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쪽.
- 신형기, 「잃어버린 청춘의 연가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김유경, 『청춘연가』 작품해설, 웅진지식하우스, 2012, 306~314쪽.
- 양진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상상력 - 200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64집, 우리말글학회, 2015, 349~373쪽.

- 연남경, 「탈북여성작가의 글쓰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1권, 한국현대문학회, 2017, 421~449쪽.
- 이미립, 「유동하는 시대의 여행과 이주양상 -정도상의 연작소설집 짙레꽃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3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263~286쪽.
-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 탈북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21쪽.
-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평화통일학회, 2014, 73~92쪽.
-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217~243쪽.
-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하늬, 「탈북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제6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구.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33~64쪽.
- 현인애, 「수령형상문학과 판타지」,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2호, 등대지기, 2014, 95~107쪽.
- 현인애, 「문학의 재미에 대한 소고」,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3호, 등대지기, 2015, 243~247쪽.

## ② 북한 관련 사회과학 논문

-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5, 5~39쪽
-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제14권, 2009, 69~95쪽.
- 유광진, 「북한의 사회체제와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안보연구』, 제10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0, 51~69쪽.
- 이경직, 「북한의 체제유지와 선전선동의 역할」,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4, 173~201쪽.
-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구조의 성격과 심화 과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우영·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8, 121~144쪽.

장원석·고경민, 「탈북자 문제의 디아스포라적 접근」,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한국평화 통일학회, 2013, 91~116쪽.

### 3. 기타 자료

#### ①잡지·신문 기사

「방민호 교수와의 일문일답」,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제3호, 2015, 37~45쪽.

「북한 시장 경제의 확대는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가(6) 배급제에 의한 인민통제의 약화 -내부영상 자료로 고찰한다-」 (www.asiapress.org/korean)

유현주. 「선전선동의 북한 문화예술(5) - 북한의 기쁨조, 현대판 궁녀들」. 『월간북한』, 통권 517호, 북한연구소, 2015년 1월, 92~97쪽.

「이지명 망명北펜 전 이사장 “개방의지 없는 북한과 교류확대, 北주민에 도움안돼”」, 『서울신문』, 2018년 4월 30일

장해성, ‘권두 칼럼’ 「망명북한작가 PEN문학을 펴내며」, 『망명북한작가 PEN문학』 창간호, 2013년, 10~11쪽.

「최진이 탈북시인 “스칼렛 오히라’ 같은 여성들이 북한의 희망”」, 『여성신문』, 2012년 11월 23일.

#### ②사이트

국제PEN 망명북한작가센터 사이트 (<http://www.nkpen.org>)

북한인권정보센터(2016), 『북한 정치범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사전』 (<http://www.nkdb.org>).

『북한인권포탈』(www.unikorea.go.kr) 사이트 「주민생활의 변화」

[인터뷰: 김정애 작가] 「탈북 소설가, 한국 신인문학상 당선」, 2014년 11월 24일. (<https://www.voakorea.com/a/2531994.html>)

FIDH(2012), 『북한의 사형제도: 전체주의 국가기구』

(<https://www.fidh.org/IMG/pdf/kr-report-high-rez.pdf>)

**【ABSTRACT】**

Aspect of Characters coping with reality in Short stories  
written by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Lee Hye-ye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oh Dae-won

This study aims to consider aspect of characters coping with reality in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short stories representing North Korean society. Being expected to find out how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represent the realities of North Korea, changes of the society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people which are unveiled yet, and finally the literary meaning and limitations of such representation.

This study works with 30 short stories written by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The texts are from 『Shadows crossing the border』, 『A story about gold nugget』 (These are Joint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by South and North Korean writers), and 『North Korean Writers in Exile Pen Literature』(vol. 1~4), which all proclaim accusation of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Therefore these stories represent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lives of the people there in a critical view.

In order to analyze aspect of characters coping with reality,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the realities are represented in the stories first. Finding that two levels of realities exist in the stories after practical analysis, which are economic and political reality.

Economic reality consists of motifs such as a period of North Korean famine, 'Jangmadang' economy (Jangmadang means Market), existential anxiety by deepening competition and the perception of 'survival of the fittest' in capitalism tendency, and wealth gap issues. The key of the economic reality is poverty, however poverty doesn't mean deficiency of wealth or food only. Poverty caused deficiency of generosity and compassion within people. The market economy being appeared to overcome the poverty caused mammonism and deficiency of morality by existential anxiety.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economic reality is represented as 'Reality of Deficiency' in the texts.

Drawing a conclusion of four types of characters from analysis on characters coping with 'Reality of Deficiency', and there are ①Seeking survival, ②Seeking mother's instinctive love, ③Seeking desire and ④Crossing the border.

Political reality is defined as 'Reality of Oppression' which is widely embracing national system in general such as politics and society except economic forces. It is because that various laws and systems being existed to keep the nation such as public execution, concentration camp, domestic exile, Chulsin-songbun (it is a kind of the social and political hierarchy being determined by family origin in North Korea), implicative system, propaganda, government authority are emerged as violence oppressing the people. This reality embraces the area of ideology influencing the characters' sayings and doings and inner consciousness. Therefore aspect of characters coping with this reality have a close relevance to degree of one's immersion in national system.

Drawing a conclusion of four types of characters from analysis on characters coping with 'Reality of Oppression' and there are ①Allegiance, ②Conformity, ③Internal Resistance and ④External Resistance.

The types of 'Seeking survival', 'Seeking mother's instinctive love', 'Allegiance' and 'Conformity' among those eight types of characters are 'Orwellian man' who has strong tendency to sacrifice and obedience in ideology of 'mother's instinctive love' and 'the patriarchal views'. On the other hand, the types of 'Seeking desire', 'Crossing the border', 'Internal resistance' and 'External resistance' crystallize 'the Individual' leaving totalitarianism. Pursuit of an independent life found in these types can be called manifestation of 'Individual consciousness' leaving the ideology of 'Community of one destiny'.

However it can be one of limitations that there is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 represented in the stories and previous 'Orwellian man' in the point of the possibilities of main agents of social reformation. Even though there is progressive change from the figure of 'the Individual in totalitarianism' to 'the Individual leaving totalitarianism', it seems beyond their ability to be main agents of social reformation for 'Seeking Desire' with bourgeois and uncritical tendency and 'Internal resistance' with passivity.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from literarily restricted imagination or a long-time feeling of helplessness of the writers being too afraid to even try resistance. And also it can be understood that even the writers didn't shed themselves their old way of thinking such as 'Orwellian man' and 'Patriarchal views'.

The stories in this study highlight dark sid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have tragic tendency since those stories were created with a strong desire and a vocation for accusation and testimony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based on their own negative experiences. This can be significance of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works, but also can be

limitations in the point of art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go one step forward to reconcile their testimony consciousness and vocation with literary imagination.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works can be regarded as one of North Korean Literature. It is important that the issues of North Korea is spoken in the literature by the people who has a sense of North Korean identity, whoever it's North Korean writer or North Korea defector writer. It is because that it is a matter of Spirit to manage his own destiny. North Korean literature and South Korean literature can meet in Korean literature ultimately. Therefore Regarding the works by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as one of North Korean Literature is to promote spiritual value of Korean literature ultimately. It seem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the outlook is not so dark since there are many ongoing meaningful attempts such as the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by South Korean writers, Collection of short stories by South and North Korean writers in collaboration and North Korean Writers in exile Pen Literature and so on.

Key words : The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Literature, Testimony Literature,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North Korean Novel, Resistant Literatur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rth Korean Writers in Exile Pen Literature, North Korean writers in exile pen center, Joint collection of short stories by South and North Korean writers, A story about gold nugget, Shadows crossing the border, Coping with reality, Type of characters